손.발.어깨.무릎.목.허리
MS재건병원
동인네거리 053.653.0119 지하철1호선 칠성시장역

每日新聞

성심요양병원
남구 대명로14
1호선 성당못역 1번 출구 T_053.657.2111~20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음력 4月 13日 丙寅) 대표전화 053)255-5001 imaeil.com 대구 15~21℃ 구미 15~22℃ 안동 13~21℃ 포항 15~17℃ 제23920호

코로나 팬데믹 3년째…몸과 마음 병드는 아이들

아들은 확찐자 딸은 분노 환자 부모만 피해자

하루 종일 집에 있는 탓에 툭하면 짜증에 불안 장애

대구 14세 이하 ADHD 수 1년 만에 24%↑ 전국 최고

지난해 A(10) 군은 대구 수성구 한 의원에서 8개월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를 받았다.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전환 이후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영향이 컸다.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탓에 분노와 짜증이 늘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부모 문제로 발생한 불안 장애까지 겹쳐 주변 어른을 때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3면

지난해 B(10) 군은 유치원 시절부터 배우던 태권도를 어쩔 수 없이 그만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다니던 도장이 문을 닫은 것이다. 이후 운동 대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배달 음식까지 자주 먹게 되면서 B군은 올해 건강검진에서 처음으로 '경도비만'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넘게 시간이 흐르면서 대구 아이들의 몸과 마음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ADHD 등 정서 장애로 병·의원 치료를 받는 14세 이하 환자가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급격하게 늘었다. 비만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 비율도 치솟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 건강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구(병·의원 소재지 기준)의 14세 이하 ADHD 진료 환자 수는 지난해 3천306명으로, 전년보다 23.7% 급증했다. 이는 전국 특별·광역시 7곳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대구 다음으로 서울 18.0%, 부산 17.6%, 인천 17.2%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소아·청소년 ADHD 환자 급증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당장 나가서 뛰어놀고 싶은데 얌전히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아이들에겐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짜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등교가 연기되는 등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감염 전파 우려로 학교 이외의 외부 활동도 극히 제한됐다.

실내 위주의 갑갑한 환경이 장기화된 탓에 학생들의 비만 비율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대구 초등학생 비만율은 2017년 15.5%에서 2021년 18.4%로 상승했다. 2020년에는 19.6%까지 치솟았다.

김준식 JS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며 ADHD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애착 형성에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한 아이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를 겪은 아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과 신체 등의 문제들에 대해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정훈 기자 hoony@imaeil.com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첫 국무회의 '손실보상 추경' 의결

외교·행안·산자·중기 장관 임명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우선 재가
18개 부처 중 1기 내각 11곳 완성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하루 동안 박진·이상민·이창양·이영 장관을 임명해 '1기 내각' 절반을 넘겼다. 4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먼저 임명했다. 이들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시급한 현안이 있는 부처, 국무회의 개의(開議) 요건 등을 고려해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20~22일 예정)을 앞두고 외교 수장을 계속 공석으로 둘 수 없어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5명(이상민 행정안전·박진 외교·정호영 보건복지·원희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중 2명을 우선 임명 재가한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늦게 임명됐다.

이날 장관 4명이 추가되면서 전체 18개 부처 중 11곳이 '신임 장관 체제'를 갖추게 됐고, 윤 정부 국무위원은 국무회의가 가능한 12명(대통령 및 장관 11명)으로 늘었다.

다만 이창양·이영 장관은 임명 재가 시간이 늦어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윤 정부 첫 임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전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부족한 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개의 요건을 갖췄다.

이날 윤 정부 국무위원으로는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통령 취임 당일 임명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섭 국방부, 한화진 환경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10명이 참석했다.

모두 12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방역에 따른 손실보상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됐던 추가경정예산안(중앙정부 일반지출 기준 36조4천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천억원 규모)이 심의·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2일 밤 화상회의로 열리는 제2차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Global COVID-19 Summit)'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다자 정상회의다. 회의엔 각국 정상들을 비롯한 정부, 국제기구, 민간 재단 등이 참석해 ▷백신 접종 ▷진단검사와 치료제 접근 확대 ▷보건안보 강화와 미래 재난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호준 기자 hoper@imaeil.com

마스크 벗자 매출 20%↑…소상공인 행복한 5월

3년 만에 어린이·어버이날 수혜
"거리두기 해제 효과 제대로 본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사라지면서 소상공인들이 오랜만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방역조치 완화 덕분에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큰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 수혜를 3년 만에 누리고 있어서다.

대구 중구에서 일본식 선술집을 운영하는 황모(34) 씨는 이른바 '불금'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금요일 저녁 시간대 자리가 꽉 차서 손님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적잖다. 황 씨는 "맥줏집·고깃집 등을 운영하는 동료 사장들도 비슷한 분위기를 전해 온다. 모처럼 다시 거리가 살아나는 분위기여서 하루하루가 설레고 행복하다"고 했다.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여 만에 해제된 후 노래방을 운영하는 박모(55·대구 북구) 씨도 모처럼 웃었다.

회식을 하면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뒤 흥을 돋우기 위해 노래방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매출이 밤늦게 집중된다. 그래서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야 온전히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박 씨는 "늦은 시간에 갑자기 일이 많아졌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다"며 "예전엔 3, 4주에 한 번씩 냉장고에 술·음료를 채울까 말까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뒤엔 2, 3일마다 냉장고를 채우고 있다"고 했다.

본격적인 엔데믹 분위기를 맞아 외식 수요가 많아지자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1년 전보다 늘어났다.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의 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직후 1주간(5월 2~8일)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1주 차(4월 18~24일)와 2주 차(4월 25일~5월 1일)의 소상공인 평균 매출도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 때 각각 13.7%, 16.6% 늘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5월 대구지역 소상공인 경기전망 BSI(경기실사지수)도 100.3으로 지난달(85.0) 대비 15.3포인트 늘었다. 100보다 높으면 호전을 전망하는 이가 더 많다는 뜻인데, 100을 웃돈 건 2020년 6월(101.7) 이후 약 2년 만이다.

휴대전화 자료를 활용한 전국 이동량을 보면,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활동 상황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달 1주 차 전국 이동량은 2억8천325만 건이었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1.3% 많은 수치다.

변선진 기자 bsj@imaeil.com



심의필 190508-중-93654호
오래된 척추·관절 통증
완쾌신경과의원 t.642-2123
(상인동 홈플러스 옆 우리은행 3층, 7층)

'가덕도 활주로 3.5㎞' 통합신공항은 3.2㎞ 괜찮나

정부 발표 때 대구경북보다 더 길어 미묘한 파장

대형 화물기 최대 중량 기준 3480m는 넘어야 이륙 의미 "3.2㎞ 충분" 시·도 입장 무색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활주로 길이로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해 의문의 꼬리표가 달리고 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3.2㎞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길이로 그 이상을 제시하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8일 대구경북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통합신공항 활주로 길이로 '3.2㎞ 이상'을 내세웠다.

'이상'이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정부와 대구경북 안팎에서는 통합신공항 활주로 길이가 사실상 3.2㎞로 정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간 시·도는 3.2㎞ 길이의 활주로를 갖추면 중·장거리 노선의 여객·화물기 취항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 왔다.

기존 대구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2.8㎞)보다 400m가량 긴 활주로 조성안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는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봤다. 이 때문에 인수위 공약에도 '3,200m'라는 숫자가 명시됐다.

문제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활주로 길이를 3.5㎞로 발표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국적사 화물기(B747-400F)의 최대 이륙중량 기준의 필요거리(3,480m)를 고려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 보유한 대형 화물기가 최대중량을 싣고 이륙할 때 필요한 활주로 길이가 3.5㎞라는 의미이다.

이는 곧 3.2㎞로 건설될 통합신공항에서는 국적기 화물기가 최대중량을 싣고 이륙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3.2㎞ 활주로로 충분하다고 봐왔던 대구시와 경북도의 판단이 무색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토부 역시 과거 김해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대형 여객·화물기가 퇴역하는 추세에 맞춰 3.2㎞ 길이의 활주로가 적합하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했던 위원회도 2020년 11월 발표문을 통해 '활주로 길이 3,200m에서 뉴욕 노선(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길이로 3.5㎞를 내세웠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통합신공항 활주로 길이를 3.5㎞로 건의해야 하는 건 아닌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지역 한 관계자는 "대형 화물기에 최대중량을 싣고 장거리 비행에 나서는 경우는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드물다. 지역 요청보다 적은 항공수요를 반영하는 대신 활주로 길이를 늘려주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의구심도 든다"면서 "통합신공항 활주로 길이는 3.2㎞로도 충분해 보이지만, 정부가 왜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길이로 3.5㎞를 제시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15일까지 베이비&키즈 페어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시작된 '제33회 베이비&키즈 페어'를 찾은 시민들이 육아용품을 고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임신 출산 육아 교육 관련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영·유아용 여름맞이 용품을 15일까지 선보인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욕창 진료기록 누락 요양병원 추가 고발

대구시 73곳 전수조사 결과 보호자 "발도 괴사" 고소 예정

이른바 '욕창 사태'를 계기로 지역 전체 요양병원 73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대구시가 수성구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진료기록부 미기재에 따른 의료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고발했다.

대구시는 수성구 A요양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달 초 수성구 B요양병원에서 후두부까지 욕창이 생긴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코로나19로 대면 접촉 면회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환자 관리가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달 11일부터 2주 동안 구·군청과 ▷의료인 인력 현황 ▷욕창 환자 관리 실태 ▷진료기록부 작성 등을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대구시는 A요양병원이 80대 환자의 엉덩이에 있는 욕창에 대한 치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진료기록부 미기재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속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관해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범위의 면허자격 정지와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대구시와 합동 조사를 벌인 수성구보건소는 앞서 문제가 된 B요양병원과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A요양병원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고발된 사건을 각각 수사하고 있다. 수사 중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요양병원에 환자를 맡겼던 보호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보호자들은 환자의 엉덩이에 있는 욕창뿐만 아니라 발도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괴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원을 상대로 추가 고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변호사 등을 통해 조언을 구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측은 진료기록을 누락한 의료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환자 관리에 소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주말에도 의사가 직접 환자를 치료했고 간호기록부에는 환자 치료에 대한 기록이 있다"며 "해당 환자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의료분쟁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반박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요양병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로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상반기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도 최소 분기에 한 번씩은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심현재 기자 gjswo0302@imaeil.com

"한발 빠른 뉴스" 매일신문 앱 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다른 곳처럼…대구도 학교 체육관 개방을"

부산·전북 등 이외는 개방 권장 관리자들 아직까지 감염 부담 "23일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

대구 남구에 사는 A(53) 씨는 16년 동안 취미로 배드민턴을 꾸준히 쳤다. 그런데 최근 방역 지침 완화로 실내 체육활동이 가능해졌음에도, 마땅히 운동할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대구에 사설 경기장이 30여 곳이지만, 대구배드민턴협회에 등록된 클럽만 200개가 넘다 보니 배드민턴을 칠 장소를 구하기 어렵다.

A씨는 "실내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이전에 이용했던 학교 체육관을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며 "사설 경기장도 대부분 달성군 등 외곽에 있어 너무 멀고 이용 비용도 많이 들어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이후 대구 학교의 실내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미 개방이 이뤄진 것과 달리 대구는 여전히 개방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학교 체육시설은 실외(운동장)와 실내(체육관)로 구분된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운동장은 부분적으로 개방됐지만, 아직까지 체육관은 시민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는 등 방역 지침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운동장을 적극 개방하라고 안내했으나, 체육관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민들은 방역 완화와 일상 회복 추세에 맞춰 학교 체육관도 외부에 개방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학생들과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게 저녁 시간에 이용해 왔고, 현장학습 재개 등 학교 활동 정상화도 이뤄지는 마당에 더 이상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배드민턴 단체 회원인 B(46) 씨는 "배드민턴은 특히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 실내 공간 확보가 중요한데, 코로나19로 회원 80% 정도는 배드민턴을 제대로 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는 개인 사설 경기장으로 흩어졌다"며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시민에게 체육관을 개방하도록 공문으로 안내하는데 대구만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대구, 부산, 전북을 제외한 다른 곳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등 체육관 외부 개방을 권장한 상황이다. 경상북도교육청 경우 지난 1일부터 학교 실내 체육시설의 외부 개방을 권장한다고 기준을 바꿨다.

다만, 아직까지 교내 감염 발생에 대한 부담이 있는 학교 관리자들 사이에선 체육관 외부 개방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운동장에 이어 체육관까지 개방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와 지역 감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육관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정훈 기자 hoony@imaeil.com

자재값 40% 상승으로 건설현장 마비!!!
3년전 착한 파격 분양가로 분양 개시!
현재 대구 유일한
선시공 준공(5월)완료 후 분양
분양 개시!
안전한 분양
즉시입주!
샘플하우스 오시는길 ▸ 달서구 월배로14길 50
The CENTUMRIUM
|진천역|센텀리움


선시공 준공완료(5월) 후 분양 개시로
파격 분양가
2억대
부터
송현역 센텀리움의 신화를 이어갑니다 !!!
역세권 투자 특구 1 진천역 280미터 초역세권
원스탑 쇼핑특구 2 진천역 주변 이마트, 홈플러스, 월배시장, 롯데 백화점
도보생활 특구 3 도보로 쇼핑 /학교/ 교통 인프라 이용 가능
숲세권 프리미엄 4 대구수목원, 선사유적공원 등 자연공원 밀접
교통 특구 5 진천역, 유천하이패스, 상인IC, 앞산순환도로의 빠른 접근 진정한 사통팔달의 달서교통의 핵
분/양/문/의
053) 283-1100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每日新聞

심의필 제211223-05-41331
두통 어지럼증 치매 신경과 전문의 진료
한의과 전문의 화, 목 저녁8시까지 진료
새로난한방병원 1670-7512
2호선 수성구청역

수업 중 이탈 전례없이 늘고…소아 비만은 급증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아프다. 특히, 중·고교생에 비해 초등학생들의 주의력 결핍과 비만 등 정서 장애와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규칙을 배우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건강관리 대책을 비롯해 아이가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놀이 등 여가활동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12일 대구 수성구 무학산 유아숲체험원에서 '범어 어린이집'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아카시아 꽃향기를 맡으며 자연체험 학습을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정서 장애 겪는 아이들

30년 넘게 교사로 재직한 A(56) 씨는 현재 달서구 한 초등학교에 근무중이다.

지난해 6학년, 올해 4학년 담임을 맡은 A씨는 "수업시간에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갑자기 교실 밖으로 나가버리는 등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이 전례 없이 늘었다"며 "저학년 때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며 규칙을 지키는 습관을 제대로 기르지 못한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애착장애'(RAD) 등 행동·정서상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저학년 때 규칙·욕구 조절 못 길러 행동·정서상 문제 두드러지게 발생 초교 6곳서 ADHD 비율 13% 달해

지난해 정운선 경북대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등은 대구 초등학교 6곳의 1, 2학년 학생 233명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심리 상태를 진단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주관한 '자기조절력 증진 습관 프로그램' 사업으로 이뤄진 검사였다.

그 결과 우선관리군 16명, 관심군 22명 등이 ADHD 성향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1명이 정밀 조사에 참여해 21명이 ADHD로 최종 확인됐다. 정 교수는 이 비율을 233명으로 환산했을 때 전체 ADHD 비율은 13%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서완석 영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여러 행동적인 교육과 훈련이 코로나19로 인해 2, 3년 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향후 ADHD를 비롯한 행동 문제들이 더 눈에 띄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ADHD 아동들의 경우 부정적 경험들이 누적되면 청소년기에 우울 증상이 추가로 나타나거나 성인 ADHD로도 이어져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부모나 교사가 세심히 살펴 이를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고 했다.

◆신체 건강도 빨간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활동량 저하와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인해 비만 학생도 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초등학생의 비만율은 2017년 15.5%, 2018년 15.8%에서 2019년 16.5%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19.6%까지 치솟았다. 지난해는 18.4%를 기록했다. 5명 가운데 1명이 비만인 셈이다.

특히 야외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남학생의 비만율이 2017~2021년 사이 18.5%→19.0%→19.9%→23.8%→22.8%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학생은 12.3%→12.4%→13.0%→15.1%→13.7%였다.

수성구 신매동 한 한의원 간호사는 "코로나19 이전엔 어린이 환자 10명 중 1명이 비만으로 의원을 찾았다면 이후엔 10명 중 4명 정도로, 소아 비만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했다.

원격 수업으로 집에 오랜시간 대기 고칼로리 식품·음료수도 많이 섭취 비만율 20%에 육박…5명 중 1명 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발표한 '2017~2021년 영양결핍과 비만 통계' 분석 결과에서도 지난해 비만 환자는 3만170명으로, 2017년 1만4천966명과 비교해 2배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17년 1천227명에서 지난해 4천457명으로 3.6배나 늘었다. 10세 미만 환자도 같은 기간 1천14명에서 3천102명으로 3배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소아기 비만 증가 원인으로 원격수업 등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운동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봤다. 또 고칼로리 식품과 음료수를 더 많이 섭취하게 된 점도 지적했다.

김진경 대구가톨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코로나19 거리두기 기간에 비만과 관련된 당뇨병으로 진단받는 사례도 함께 증가했다"며 "소아청소년 비만으로 대사증후군,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등이 일찍 나타나거나 열등감과 대인관계 장애, 우울증 등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도 함께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키와 체중, 체질량 지수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건강 검진으로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식습관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음식을 섭취하고, 신체 활동을 늘리는 등 행동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에서 신체·정신 건강 회복"

코로나19를 겪은 학생들의 교육 회복과 더불어 '건강 회복'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대구시교육청은 신체·정신 등 여러 방면에서 건강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등교수업 차질과 대외 활동 감소 등이 학생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25.4%와 고학년생의 32.4%가 코로나19 이후 더 우울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10.6%, 14.7%였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불안감을 더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도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고학년생이 각각 23.8%, 34.8%로 중학생(6.0%)과 고등학생(8.5%)보다 많은 편이었다. 코로나19가 특히 초등학생에게 미친 영향이 큰 것이다.

시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정신건강치료·심층심리평가 지원 자기조절능력 증진 프로그램 확대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면서 대구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 활동 저하와 정서적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돕고자 4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3월부터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해 보건교사, 체육교사, 영양(교)사, 담임교사, 외부 강사 등이 대책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지원 사업으로, 극단적 선택 위기 등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된 학생에게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심층심리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ADHD 관련 대책으로는 지난해 시교육청이 주관했던 '자기조절능력 증진 습관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2학기부터 2천 명이 참여하는 제2차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대구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는 디지털 친구 맺기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윤정훈 기자 hoony@imaeil.com

"놀이·여가활동이 아이들 행복감 높여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놀이실태 조사 응답한 학생 57.7% "여가 생활 긍정적"

놀이와 여가활동 확대가 아동·청소년의 행복감을 높이기 때문에 아동에게 놀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달 '아동·청소년의 놀이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 연구'(연구책임 김영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선 전국 17개 시도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 ▷초등학생 1천6명 ▷중학생 987명 ▷고등학생 999명 등 모두 2천992명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놀이 및 여가활동 기회의 확대가 아동·청소년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놀이 및 여가 활동 기회 제공 확대가 행복감을 높인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57.7%였고, 반대로 부족할 경우 행복감은 11.8%에 불과했다.

아울러 놀이 및 여가 활동에 대한 주변의 지지가 높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행복감이 34.5%인 반면 주변의 지지가 낮을 경우 17.3%로 차이가 컸다. 이는 부모님이나 교사가 휴식과 놀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이를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시사한다.

김영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놀 권리 확보와 놀이활동 강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행복감을 높이고, 놀이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대면과 비대면 놀이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한 접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과정에 놀이활동 수업을 도입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정훈 기자

군위군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최고의 가치를 담은
군위군 명품 브랜드 골드앤위
GOLD & WE
군위군
명품브랜드
PREMIUM
골드앤위는 군위군이 지닌 녹색자연(Green),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Organic)로,
최고의 명품만을 담은(Luxury),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별함(Different)을 선사합니다.

심의필 제190813-중-97996호
대구연세안과
레이저백내장 노안수술 · 라식
수성보건소 맞은편 T_053.626.8881

지선 앞둔 정치권 '퍼주기 추경' 경쟁

尹정부 36조4천억원 의결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
민주 "47조로 늘리자" 맞불

전문가 "고물가 자극 우려"
건전재정 '내로남불' 비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선물보따리 풀기 경쟁에 골몰하고 있다. 새 정부가 36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10조원을 더 얹자는 수정제안으로 응수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물가가 불안하다는 우려와 다음 세대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훈수는 귓등으로 흘리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아무리 선거 승리가 급하다지만 여야가 자신들이 비판하던 주장을 밀어붙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중앙정부 일반지출 기준으로 36억4천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천억원 규모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600만~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방역 시행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발짝 더 나갔다. 정부안보다 규모를 더 늘려 47조원가량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4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천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말 100만원, 올 초 3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 600만원을 추가지급해 모두 1천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여기에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손실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2조원)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8조원) 등도 포함됐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며 "정부안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충분히 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또 "정부는 초과세수 53조원 가운데 44조원 남짓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44조원을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한다"며 "국채 상환에 쓰는 돈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별도 재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원마련 방안까지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경제기구뿐 아니라 국내 경제연구기관들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세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힐 것으로 보이는 세금으로 추경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에 허점이 많다는 얘기다.

정부 재정이 시중에 풀리면 가뜩이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에 육박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추가세수가 들어오면 재정건전성을 위해 나라 빚을 갚는 데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꾼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유광준 기자 june@imaeil.com

권영세 '형제 특혜·미림팀 의혹' 공방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족 비상장 회사 주식 거래 지적
권 "공직은 형님 아닌 제가 하는 것"
도청사건 연루 가능성 집중 추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권영세(사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중대사 재임 시절 후보자의 형제들이 후보자 직위 등을 이용해 투자를 유치했다는 내용의 '가족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김영호 의원은 "후보자 형제가 설립한 TNPI HK가 커피빈 중국 사업권을 딴 직후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후보자는 두 딸을 포함해 주당 1천원에 총 5만주 매입했다"며 "후보자가 주식을 매입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32달러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우리 돈으로 약 40배가 올랐는데 후보자는 공직자 이해충돌을 우려해 원래 산 가격에 다시 팔았지만 형제는 19억원을 벌게 됐다. 형제 입장에선 대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탈세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세청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런 거래 상황이 국내였다면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다 내야 한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왜 안 냈느냐고 물으니 국세청 말이 거래내역서 등이 전혀 없다고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권 후보자는 "공직 취임은 저희 형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2016년에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 형제들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탈탈 털리다시피 했다. 그런데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권 후보자가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 파견근무(1994~1997년) 당시 '미림팀 도청사건'에 연루됐다는 공세도 폈다. 유기홍 의원은 "1994년은 후보자가 안기부장 법률보좌역을 하던 시기다. 미림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며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의 법률보좌를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1997년 서울대 석사논문 제목이 '현행법상 도청에 관한 법적 규제'다. 참 이상하다"며 "1994년부터 3년간 안기부에서 근무하면서도 미림팀 사건을 전혀 몰랐다는 분이 석사논문은 도청으로 썼다. 정말 우연이냐"고 따졌다.

한편 권 후보자는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지금은 제재의 시간, 추후 경협 논의', '특사자격 방북, 남북관계 고려해 긍정 검토', '실사구시적 태도로 남북 대화 여건 조성' 등의 소신을 밝혔다.

유광준 기자

성추문 제명·의원직 상실…민주 '겹악재'

"박완주, 국회 차원 징계도 요청"
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유죄 확정

대선 패배 뒤 지방선거로 재기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형 악재를 만났다. 현역 국회의원은 성추문으로 제명됐고, 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의원은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을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했다"고 밝혔다. 잇단 성추행 의혹으로 비판받아온 민주당이 다시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박 의원은 '86 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으로서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 나설 정도로 입지를 다진 중진이란 점에서 민주당의 충격이 한층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대변인은 "당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당 차원에서 처리한 것"이라며 "국회 윤리신고센터 등을 통해 국회 차원의 징계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에 휩싸여 2020년 9월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원심(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제21대 총선 직전인 2019년 명절 무렵에 자신의 명의로 된 선물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 의원은 2천646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광준 기자

검수완박 국민투표 없던 일로…권성동 "시간 촉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없던 일이 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할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방선거까지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방선거 전까지는 힘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의 협조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란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법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직접 묻겠다며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호준 기자 hoper@imaeil.com



1인당 7번 투표…대구경북 일꾼 538명 뽑는다

6·1 지방선거 주요 일정

- 5월 12 13 **후보자 등록 신청** (오전 9시~오후6시)
- 5월 19 **선거기간 개시일**
- 5월 20 선거인명부 확정
- 5월 22 투표소 명칭·소재지 공고 / 거소투표용지 발송 / 투표안내문 발송
- 5월 27 28 **사전투표** (오전 6시~오후 6시 / *28일 오후6시30분~오후8시)
- 6월 1 (수) **선거일** (오전 6시~오후 6시 / *오후6시30분~오후7시30분)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투표 시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후보자 등록 오늘 마감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자 등록이 대구경북 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작됐다.

12일 대구시와 경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대구경북의 동량(棟梁) 538명을 가린다. 대구에선 시장과 시교육감 각 1명, 구청장·군수 8명, 시의원 32명, 구·군의원 121명, 국회의원(수성구을) 1명 등 164명을 선출한다. 경북에선 도지사와 도교육감 각 1명, 시장·군수 23명, 도의원 61명, 시·군의원 288명 등 374명을 뽑는다.

선관위는 13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보선 치르는 수성구을은 8번 사전투표 27·28일 이틀간 열려 후보 잘 몰라 깜깜이 선거 우려

(2004년 6월 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출마할 수 있다.

지난해 말 법 개정에 따라 피선거권 연령기준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도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후보 등록 상황과 후보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체납 사항·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들은 19일부터 31일까지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그전까지는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22일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가 발송된다. 사전투표는 27~28일 치러진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을 선거구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서 1인당 8표를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 보선이 없는 그 밖의 지역민은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한꺼번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한편 1인 7표에서 많게는 8표까지 행사하는 지방선거 특성상 유권자가 공직후보자 면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투표권을 행사하는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의 한 지방의원 예비후보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선거를 치르는 탓에 솔직히 주민들은 시장·국회의원 후보말고는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대로라면 함량 미달 일꾼이 뽑힐 수도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주민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안동시의원 선거 30대 젊치인 바람

〈젊은 정치인〉

최푸름·안유안·김새롬·허승규 경직된 지역 정치 바꿀지 주목

6·1 지방선거 안동시의원에 도전하는 30대 '젊치인'(젊은 정치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최푸름(31)과 안유안(36), 더불어민주당 김새롬(35), 녹색당 허승규(33) 후보 등이다.

그동안 보수정당이 주도해온 획일적이고 경직된 지역 정치 분위기를 이들이 일신할 수 있을지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최푸름 후보는 국민의힘이 안동에 공천한 유일한 여성 기초의원 후보로 '나'선거구(옥동)에 출마했다. 그는 대선 당시 경북 청년유세단장, 특별보좌역을 맡아 지역 곳곳을 돌며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극복 대안들을 호소했다. 최 후보는 "청년이 마음껏 목소리를 내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유안 후보는 토박이들이 대대로 살아오고 있어 안동 정치 1번지로 통하는 '사'선거구(태화·평화·안기동)에 도전했다. 경북대 로스쿨을 졸업한 그는 법조인의 꿈을 미룬 채 지역에서 기업 운영과 사회활동을 펴고 있다. 안 후보는 "개발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정서적 안정을 소중하게 지켜 드리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김새롬 후보는 '가'선거구(북후면·서후면·송하동)에 나선다. 광우병 사태 이후 시민운동에 나섰다가 자연스레 생활 정치에 입문한 그는 대선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약했다. 김 후보는 "안동에는 시민을 섬기고, 지역을 위해 일하는 부지런한 일꾼이 필요하다. 새 바람이 되고, 지역의 당당한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허승규 후보는 4년 전 선거에 이어 '마'선거구(남선면·임하면·강남동)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진 '젊치인'으로서 '버스타기좋은안동with강남·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대표다. 허 후보는 "지역정치와 현안을 고민하고 활동해온 준비된 후보"라며 "버스타기 좋은 안동, 녹색도시 안동,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안동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엄재진 기자 jinee@imaeil.com

총리 퇴임한 김부겸 "정치도 은퇴"

이임식서 "30년 여정 마무리" 대구 선거 지원 사격 미지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2일 국무총리직을 공식 퇴임하면서 "지난 30년 넘게 해왔던 정치인과 공직자로서 여정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이임식 연설에서 "정치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삶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당연하고도 엄중한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정계 은퇴를 시사했다.

김 전 총리는 퇴임 후 정치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이미 선을 그은 바 있다. 지난 3일 세종시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그는 "현재는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제 결심을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김 전 총리의 정치적 중량감을 고려하면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구 수성구갑 지역위원장 역시 여전히 김 전 총리로 돼 있다.

강민구 민주당 대구 수성구청장 후보는 김 전 총리의 지원사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강 후보는 "총리 임기를 마친 뒤 고향에 내려와 인사를 하겠다는 의사는 확실히 들어서 알고 있다"며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유세 때 수성구만이라도 유세차에 함께 올라달라는 요청까지 해둔 상태인데, 이것까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물론 공식적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한 만큼 공개 지원사격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있다. 김희섭 수성구의원은 "은퇴한다는 말씀까지 하고서 드러내놓고 정치적 도움을 주러 내려오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사적으로 10년 이상 알고 지낸 후배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조용히 한 번쯤 다녀가실 수 있기를 바란다. 평소 스타일대로 말 없이 어깨나 한 번 툭 치고 가시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김근우 기자 gnu@imaeil.com

임미애 "1당 압도적 지지, 절망만 반복"

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 공식 출마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가 12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박영채 기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12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립된 경북, 견제와 경쟁 없이 안일해진 경북의 균형추를 바로잡아 새로운 경북으로 나아가는 일에 헌신하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친 그는 "지난 연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경북 소득수준은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을 잘살게 해주겠다고 늘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던 정치집단은 또다시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경북을 이렇게 만든 이철우 도지사는 책임을 지고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경북 도정과 맞서왔다. 27년 1당 독주체제에서 희생만 강요당하고 절망만 반복해온 경북의 상황을 바꾸는 데 당당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경북도민의 행복한 삶'을 도정 목표로 제시하며 "경북의 완전한 새로운 시작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2가지 정책 전략을 소개했다.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한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사람길을 잇는 사업과 관광산업 육성이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 경북 ▷2025년까지 전체 20% 가구에 태양광발전기 설치 ▷2030년까지 공공건물 탄소중립 100% 달성 ▷K-컬쳐시대의 관광 허브 형성 ▷경북 동해와 내륙을 잇는 둘레길 조성 ▷농촌이 함께 사는 관광사업 육성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 기반이 취약한 경북에서 의성군의원 재선에 성공한 뒤 2018년 도의원에 당선됐다. 2019년 경북공무원노조 선정 '베스트 도의원상'을 받기도 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의성에서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남편은 김현권 전 국회의원이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모 집

모집 기타

냉동기사 모집 냉동 기술자격
기사1급, 기사2급 각1명 구함.
경산시 진량읍 경산공단 공단4로 103
(정일수산) 053)856-3134

기자 대모집 알리보tv&뉴스
대구 중구 태평로 177 (태평라이프 상가 250호) 월수익 4백
홈페이지 "알리보" 010-2553-5440

배 달 직

배달원 황금동,두산동,자산동일대 주택 상가 주부환영 경험자우대 황금두산,자산지국762-4769

배달원 급구 경산시 압량읍 010-2517-1109

배달원 모집 남대구·교대 영대지국 010-8567-4171

배달원급구 대신동일대 남녀노소 252-7741·010-2511-1274

배달원모집 중구 휴학생우대, 초보가능 종로지국 257-2902

배달원급구 율하, 신기, 안심 963-7355

배달원급구 파동 일대 남녀노소 오토바이 소유자 767-3649

배달원모집 안심1·2동 일대 남녀노소가능 962-3290

배달원 달성논공·옥포읍면소재지,남여노소 정년퇴직자, 오토바이소유자 우대010-3521-9876

배달원모집 용산동·이곡동일대 남여노소, 주부우대010-2534-5529

배달원모집 성당/두류동 일대 남여노소 감삼두류3지국 010-3071-3529

배달원급구 범어4동일대 업계최고대우 중범어지국 010-3515-6388

아파트 배달 원 시지, 노변동 남고산 지국 791-3061·010-2873-8885

대명3동 두류동 일대 남녀노소, 오토바이소지 자격 서대명지국 010-3511-0195

배달원모집 만촌1동 754-4370

만촌3동 일대 배달원 모집 남녀노소 최고대우 010-3513-0826

배달원 동구 방촌동 남여노소가능, 오토바이 소유자 우대 010-5584-8331

이시아폴리스 아파트 배달원 숙식 제공 불로지국 985-1137

배달 사원 오토바이소유자 및 현1·2동거주자 환영 송현1동지국 625-6315·010-2809-0030

배달원모집 봉덕/이천동 오토바이소유자 특대우 남부지국 471-9478

배달원모집 오토바이 소유자 노원동 3공단 010-6509-9174

배달원모집 경산 거주자 우대, 경산시 진량읍 진량지국 010-3536-6620

직업 배달원 오토바이소유자 사대2시~6시30분자유(1시간50분소요) 월50만 남칠곡지국010-3810-7005

배달원모집 신천동,대현2동,신암동, 칠성동 일대 010-3046-3113

배달원 북구 산격1·3·4동 일대 남여노소 가능 오토바이소유자必 010-4628-1134

경산시 공고 제2022-947호

경산 도시관리계획(부기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열람공고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40-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관련 「주택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경산 도시관리계획(부기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3일

경 산 시 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경산부기리지역주택조합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 1518-2, 2층 2호
2. **사업예정지 :**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40-1번지 일원(A=9,364㎡)
3.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1. 5. 13. ~ 2021. 5. 27. (14일이상)
4.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경산시청 건축과(053-810-5557)
5. **열람내용 :** 경산 도시관리계획(부기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안)

건 명	위 치	내 용	비고
경산도시관리계획결정(안)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40-1번지 일원 (A=9,364㎡)	• 부기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 지구단위계획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6. **열람도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기간 내에 일반인에게 보임)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건축과(☎053-810-55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2022느단98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피상속인 : 망 이종섭 (1947. 10. 23.생)
사 망 일 : 2021. 11. 28.
최후주소 : 구미시 봉곡서로11길 20, 103호(봉곡동,파인뷰)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2. 5. 13.
청 구 인 : 이연길, 이세미, 이세복
주 소 : (이연길) 서귀포시 신서로32번길 31, 202호(강정동)

상속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2022느단555 대구가정법원
피상속인 : 망 정덕순 (1975. 09. 13.생)
사 망 일 : 2021. 5. 30.
최후주소 : 대구 남구 자유6길 3(대명동)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2. 5. 13.
청 구 인 : 홍대겸
법정대리인(후견인) 정태희
주 소 : 경북 칠곡군 기산면 한솔1길 54



법원경매 재테크 특강
▣ 개강일 : 대구 2022. 6. 7일(화) 오후7시 / 포항 2022. 6. 9일(목) 오후7시
▣ 일정 : 주1회 (총5강)
▣ 강의료 : 무료 (교재비 5만원 별도 있음)
▣ 강 사 : 이 기현 (전: 굿옥션 대표 / 핵심경매실무, 경매판례분석 저자)
▣ 수강인원 : 예약순 20명
☎수강예약 대구 053) 564-1234
▶ 강의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0-1(2층) (주)유옥션
☎수강예약 포항 054) 281-0949
▶ 강의장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34-19(3층) (주)유옥션 포항지사

매일안내 광고문의
080-711-2001
053 251-1234
每日新聞社

"靑 교육정책 맡았던 전문가"

임준희 경북도교육감 후보

新장년 교육 사업이 대표 공약
유치원·어린이집 완전히 무상
지방소멸 대책 내년부터 시행

행정고시 출신에 교사 자격도
단순 교사 출신들보다 적임자



임준희 경북도 교육감 후보가 12일 경북 포항의 선거사무소에서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병훈 기자

임준희 경북도 교육감 후보는 12일 "광역 단위의 교육 개혁을 위해선 교사를 경험한 후보보다 정책을 경험한 후보가 더 적합하다"며 차기 교육감 적임자를 자처했다.

임 후보는 이날 경북 포항의 선거사무소에서 이뤄진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저는 교사 자격증도 있고 교육학도 공부했다. 그렇지만 현장 교사 출신이 아니라 교육부와 청와대에서 교육정책을 담당한 교육정책 전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그는 교육부 정책조정과장,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구시 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지냈다.

임 후보는 교육감은 학생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교사 출신들이 경북교육감을 맡았다. 그러다 보니 정책이 발전 없이 퇴보하고 있다"며 "변혁의 시기를 맞아 경북 교육을 이끌 적임자는 경북 교육 내부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큰 경험을 하고 큰 시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후보는 "임종식 현 교육감이 이끈 지난 4년의 경북 교육에는 한마디로 아무 것도 없었다. 오로지 재선을 위해 정치만 했지, 정책을 한 게 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교부되는 예산을 투입한 물량 공세만 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과 교육적 마인드를 갖고 하는 정책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일부에선 임종식 교육감이 무난하다고 표현하지만 무난한 교육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임 후보는 지방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는 경북의 경우 '완전 무상 유아교육'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든 어린이집에 가든 관계 없이 모든 비용은 완전 무상으로 하겠다. 당선되면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예정이다. 왜냐하면 예산이 약 200억원밖에 들지 않는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누리과정에 더해 일부만 더 책임지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교육정책 전문가로서 어떤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더 효과가 크고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는 자신의 대표 공약으로 '신장년 교육 지원사업'을 내세운다. 그는 "60세 이상 인구를 새로운 용어로 신장년이라고 표현했다. 신장년 인구가 현재 1천200만명이고 10년 후면 무려 2천만명에 육박하지만 이들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플랜이 없다.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또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교육인프라를 놀리고 있는 부분이 많다. 예산 또한 그렇다"며 "그래서 저는 새로운 교육 수요층인 60세 이상 신장년층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원, 향교, 종택 등을 활용한 인성교육 강화도 임 후보가 내세우는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그는 "교실 안에서 하는 지식으로서 인성교육이 아니고 실제 체험을 통한 진정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서원, 향교, 종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형 인성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종택에서 지역 어르신과 함께 교육하면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는 마숙자 후보와의 단일화 무산에 대해선 "단일화 협상은 본인이 단일 후보가 안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한다. 마 후보와는 이런 문제로 논의가 더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체 분석으로는 단일화를 이루더라도 실질적인 표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3자 구도 아래에서 필승의 선거전략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임 후보는 "시장, 군수는 다리를 1년 뒤에 놔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놔둘 수 없다. 해당 시기에 적합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교육은 중요하고,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감은 더 중요하다. 교육감이 바뀌어야 교육 정책이 바뀌고 우리 아이들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말 어느 후보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지, 어떤 후보가 정책 전문가로서 좋은 정책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시고 이번에는 꼭 정책 선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

지선·보선 레이더

"힘 있는 여당 시장, 숙원사업 문제 해결"

박영환 영천시장 후보



박영환(사진) 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장 후보가 1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영천을 바꾸는 새로운 힘! 일하는 시장!'을 슬로건으로 내건 그는 "힘 있는 여당 시장이 시민들이 바라는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이철우 도지사, 이만희 국회의원과 함께 원팀을 이뤄 영천의 숙원사업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도심 연장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포항신항만의 투 포트 배후 물류단지 조성 ▷남부동 투자선도지구 내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직선도로 개설 등 인구 유입·산업·농업·복지 등 4대 분야 7대 중점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22년간 지역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영천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선일 기자 ksi@imaeil.com

"재선 땐 도시철도 연장, 경마공원 완성"

최기문 영천시장 후보



최기문(사진) 무소속 영천시장 후보는 12일 후보자로 등록한 뒤 "시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당선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대구도시철도 영천(금호) 연장, 경마공원 건축허가 승인 등 지난 4년간 영천 지도를 바꾸는 큰 사업을 많이 이뤄냈다"며 "반드시 재선에 성공해 도시철도 연장, 경마공원을 완성하고 축구장 500개 규모 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첨단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영천이 더 크게 발전하는 기틀을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공약으로는 ▷탄약창 군사보호구역(제2·3지역) 해제, 경마공원 역세권 개발 등 살고 싶은 영천 ▷112만평 규모 산업단지 조기 조성 등 기업과 일자리가 넘쳐나는 영천 ▷시립박물관 건립 등을 통한 문화·예술·관광도시 영천 ▷미래형 스마트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최 후보는 "누구든 만나 소통하면서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뛰겠다"고 약속했다. 강선일 기자

의성 부군수에 공직자 선거 중립 당부 서한

이영훈 의성군수 후보



이영훈(61·전 청와대 행정관·사진)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수 후보는 11일 의성군청을 찾아 권경수 부군수에게 공직자의 선거 중립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후보는 서한문을 통해 "선거에 임하면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부 면장 등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 및 선거 개입 현장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며 "올바른 공직자 상을 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또 "선거가 공식화되기 전후 많은 일이 내밀하게 이뤄졌으며, 현직 군수가 무소속이 된 지금까지 행사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법치 기준에서 볼 때 부끄러운 공직자의 얼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부군수는 이에 "면장 등 일부 공직자의 관행화되고 음성화된 일탈 행위에 관심 있게 청문하면서 이 후보가 전달한 서한의 주요 내용을 간부 회의 등을 통해 주지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이희대 기자

선거사무실 열고 3선 도전 본격적인 행보

김주수 의성군수 후보



김주수(70·사진) 무소속 경북 의성군수 후보가 10일 의성읍에서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3선 도전 행보를 시작했다.

김 후보는 다양한 행정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 8년 동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와 이웃사촌 시범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청년층이 유입되는 등 적지않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성군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의성군 발전의 큰 힘이 됐다"면서 "지난 8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의성을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공약으로는 ▷항공물류,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임대형 스마트팜산업단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글로벌 쇼핑몰 복합문화센터 등 스마트 농식품푸드 클러스터 조성 ▷대구~통합신공항 간 공항철도 신설, 경북신도청~의성 간 4차로 도로 건설 등을 내걸었다.

이날 개소식에서 신원호 의성군노인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통합신공항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김주수 후보밖에 없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희대 기자 hdlee11@imaeil.com

부동산

상가

사무실

개업공인중개사 합동사무소 임대 (초보 환영) 남·여 200/22 (시설공과금 포함) 010-3200-3069
No. 27-2014-00079 달서구 개업공인중개사공동사무실

일반상가

경산 갓바위 입구 상가 카페와 식당, 사무실, 주택등 위치전망 최상, 계곡·큰도로접 건40대154매4억5천 010-3818-9881

통상가 교회, 회사 사옥 최적지 대198 건302 북구 연경동 매37억 주인직영 010-6727-3330

대형식당 경산 최요지 건160 주차 50대 보1억, 月1천만 053)815-6655
No. 47290-2019-00058 중방동 경산에부동산 김종수

경북대 통상가4층 6m접 먹자골목 요지, 통로길 대85㎡ 보4천/月250만 出, 몽땅 5억5천만 053)421-1405
No. 가-15-673 북구 대일공인 이봉현

김천 마트 덕곡동 1300세대아파트 독점 상권 대310(1000㎡) 건155(510㎡) 보1억 월500 010-6388-0231
No. 가-16-426 수성구 담티부동산 서관수

요양원으로 변경할 모텔5층 융안고4억 010-2389-8936

구미 최요지 16억 月550만 도로25m 대400㎡ 투자최고 053)763-7990
No. 27260-2021-00132 수성한마음공인 서춘기

月1500만 통상가 매매40억 E/V有 도로 30×8m 053)763-7990
No. 27260-2021-00132 수성한마음공인 서춘기

2층통상가 34억 月800만 도로30m 대800㎡ 전면좋음 053)763-7990
No. 27260-2021-00132 수성한마음공인 서춘기

대형식당 카페 임대 건429㎡(130)보2천/월2백 대구국가산단대단지APT중심, 쿠팡 물류개점 임박, 유동인구 1만명예상 시설비 상담후결정 010-3056-5830

모텔

특급호텔 1천인수 대구 최요지 빛 청산, 선착순1명 주인직접 010-7409-7995

무인모텔 7억인수 대1100㎡ 건430㎡ 룸13개 月1400出 융6억有(승계가능) 공단 입구 리모델링2년 주인 010-4420-0484

무인호텔 대3400㎡ 룸28개 월매출 4200만(장부 확인) 매39억(감정가40억) 융28억 밀양시청뒤 010-5279-9778

대구모텔 매매 대738 건1148, 룸27, 매출月5000出 대형주차(24대), 올리모델링 완료 융28억, 현금16억 인수 425-4504
No. 27110-2020-00045 중구 거기중개(주) 강은경

대구모텔 임대 보5억 월1400 룸27 월매출 4500이상 주인직영중/보10억 월2300 룸42 월매출 7000出 신축1년 주인직영중 425-4504
No. 27110-2020-00045 중구 거기중개(주) 강은경

구미모텔 매매 대658 건974 룸32 대형주차(25대) 월매출 4500出 월순수익 2천이상 올리모델링 완료, 무인시스템 융19억 현금15억인수 425-4504
No. 27110-2020-00045 중구 거기중개(주) 강은경

무인모텔 5억인수 최신식시설 방13개 국도5호선접 010-4538-4590

모텔사우나 성업중 개발 호재, 남여 사우나 독점상권 대1250㎡(378), 4층, 방22, 매가28억 투자 확실!! 053)765-9882
No. 27260-2017-00171 수성구 황금수성공인 배현철

돈버는 무인모텔 매매 대480 룸16 월매 1500~2000 매가 총13억(3억인수) 053)741-8989
No. 27260-2017-00210 수성구 범어동토지 김진영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동구 답 신용동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부근) 1809 당60만원 (가격 조정可) 현.복숭아밭 010-3528-3307
No. 가-17-261 달서구 동아부동산 정동섭

※가창 정대리 주택※ 대906 건159 남8m 매11억원 010-3508-8001
No. 가16-4827 수성구 맥부동산 박영철

산삼 황토찜질방 지하수, 전기, 포장도로 57,341㎡ (17,245) 산 2만, 기타 임산물 2만5천 010-3843-5314·010-5392-1545

성주 포천계곡 대320 건68 민박 및 전원주택 매매 4억 2천 010-8242-4406

대지/임야/공장

※싼경매공장 성주 (물류창고) 유월리 대4100 건1500 (2차선국도접) 053)710-1666
No. 27230-2018-00005 북구 꿈트리공인 정영숙

영천 금호 야산 계획관리 임22,863㎡(6919) 전망최고 전원주택지, 가축농장 최고 당10만 053)815-6655
No. 47290-2019-00058 중방동 경산에부동산 김종수

※바다뷰 최상※ 전국에서 제일 저평가된 바닷가 상업지 8600㎡(2600) 각종 호재有, 당130만 주인직 010-6712-5659

급매 투자땅 동구 용계동 준주거 자연녹지 3094㎡(936) 당260만 다용도 건축가능 053)815-6655
No. 47290-2019-00058 중방동 경산에부동산 김종수

뷰 좋은 낙동강변 땅 커피숍 음식점 요양병원 최고적지 구미 10,944㎡ 당300만 010-3508-8001
No. 가16-4827 수성구 맥부동산 박영철

공장 영천IC 5분 창고 면적 8595㎡ (2600), 공장 3305㎡ (1000) 010-3536-4535

이현동 자연녹지 나대지 1652㎡(500) 성서공단 신축 매매 1917㎡(580) 건1322㎡(400) 053)581-6005
No. 가-17-3948 달서구 보문공인 김혜옥

급매 옥포 땅 일반주거 + 자연녹지 전 2033㎡(615) 당110만, 도8m 시세보다 싸다 635-5301
No. 27710-2017-00100 달성군 매일공인 손종배

의성IC앞 공장 대지 9428㎡ (2852) 건평 2310㎡ (700) 봉양농공단지 010-8579-1801

대도로 상업지역땅 3호선 역세권 대1662㎡ 당 2천만 010-4000-1573
No. 11-2014-2 남구 조성진 천마부동산

군위 소보면 땅 신공항 계획관리/농림지역 205,000㎡(62,000)당 3만원, 인근 임야 010-8579-1801

※공장 1층 임대 북구청近 노원동 224㎡ 넓은 주차공간 보2000/ 月130만 010-5856-8806

주물허가 공장 대1000 건400 고6.5m 전기700kW 매3억인수 호2.8t, 도로10m 054)956-9080
No. 47830-2020-00004 고령 현대공인 조경식

투자 최적지 (야산) 구미시 산동읍 자연녹지 67,041㎡ (20,280) 매매 20억 010-7272-8300
No. 가-421-1999 구미 금고구마공인 이상애

※가창※ 71,735㎡ (21,700) 당3만원 행정리에서 임도따라 8~10km 해발 4~500m 정상 주말농장· 가족묘지· 목장· 양어장 적지 주인직 010-5745-4211

의성 콘크리트공장 의성농공단지 식생옹벽 블록 7924㎡ (2400) 010-8579-1801

이현공단 내 공장부지 대4546㎡ (1375) (공업지역) 당750만, 8m접, 건2049㎡(620) 010-7559-1145
No. 403-8601070 (주)동화

청도군 금천면 멋진 저수지 1094㎡ (331) 위 낚시터 힐링 최적지, 당15만원 010-8383-3029

기타부동산

논·밭 도지 구합니다 (반야월 인근 우대) 농사 대신 지어 드립니다. 010-4540-8949

스크린골프장 양도 대구 다사읍 방8개 연습타석有 주차 무한대 010-3501-8969

SWITZEN
KCC KCC건설

더 옳은 쪽으로! 더 오를 곳으로! ——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

초록빛 자연을 품고 내일의 비전을 거느린 **새로운 수성이 시작됩니다.**



5월13일 OPEN

생활특권은 수성답게, 에코라이프는 남다르게!

- 新중심 숲세권 — 파동IC, 신천대로, 4차순환도로(완전개통)를 빠르게 잇는 숲세권 단지
- 수성구 라이프 — 파동초, 수성중, 능인고, 경북고 등 명문학군 및 수성의 다 갖춘 생활인프라
- 넉넉한 중대형 — 테라스, 복층형 등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21개의 중대형 혁신평면 적용
- 북유럽풍 조경 — 그린비스타, 캐스케이드 등 내 집 정원처럼 누리는 유럽형 힐링 공간

053)244-1000

아파트 총 755세대 | 74~206㎡

시행위탁 FORET SUSEONG
시공 KCC KCC건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상기 설계 관련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 상의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개발 계획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장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118-118번지 외 284필지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737-8

관리인 안두고, 점검은 손놓고 기계식 주차장 추락사는 人災

〈대구 북구 한 상가 건물〉

대구 북구 한 상가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가 숨진 사고(매일신문 9일 보도)와 관련, '인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당 건물 측이 관리에 소홀했고, 기계식 주차장을 허가한 구청과 교통안전공단도 현장 점검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차장 들어가던 차 지하 4층 추락

지난 7일 오후 6시쯤 북구 관음동 한 상가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량이 지하 4층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차량에 있던 20대 초반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결국 숨졌다. A씨는 해당 건물에 입주한 가게 직원이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길이었다.

당시 이 주차장은 기계 오작동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오후 5시쯤부터 문이 열린 채로 수리 중이었다. 수리업체가 작업을 위해 차량이 올라가는 파렛트를 옆으로 치워 지하 4층까지 뻥 뚫린 상태였다. A씨는 문이 열린 주차장으로 평소처럼 진입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다.

사고 순간 수리업체 직원도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2인 1조로 움직이는 수리업체 직원 중 1명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나머지 1명은 지하에서 센서를 점검하고 있었다. 하마터면 추락하는 차량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주차 관리인은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장법상 20대 이상 주차대수를 가진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 관리인을 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은 '기계식 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 주차장치를 조작할 것'이라는 의무가 명시돼 있다.

해당 건물은 29대의 기계식 주차장을 갖췄기 때문에 관련법상 주차 관리인은 이용자가 있을 때 기계식 주차장치를 조작해야 한다.



지난 7일 북구 관음동 한 상가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량이 지하로 떨어져 20대 초반 여성이 숨졌다. 당시 오작동 신고로 수리업체가 작업 중이었지만, 통상 사용되는 것처럼 문이 개방되어 있었다. 사진은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된 모습. 임재환 기자

주차장법상 안전 수칙 어긴 채 작년부터 무인으로 운영된 듯

"감독 의무 없다" 기관은 뒷짐 "현장 단속 여건상 어렵다" 말만

하지만 이 건물을 오가는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주차 관리인이 없는 상태였다고 입을 모았다.

이 건물 내 직장인 A씨는 "2020년에는 상주하는 주차 관리인이 있었지만, 2021년부터는 무인으로 운영되면서 입·출차를 돕는 담당자가 없어졌다. 현재 여기 오는 일반 이용자들 모두 주차를 혼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직장인 B씨도 "법적으로 20대 이상 넘으면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지난해부터 없었다"고 전했다.

인근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C씨도 "차가 들어가고 나가기를 지켜보면서 통제하던 관리인이 2020년 12월 말쯤 나갔고, 상주하던 관리사무실도 없어졌다"며 "관리인이 사라지면서 우리 쪽에 묻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남의 건물이고 이상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알려줄 수 없었다"고 했다.

◆허가 및 관리·감독 기관 책임은?

기계식 주차장을 허가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들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교통안전공단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관리인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교육과 검사하는 기관"이라며 "현장에 관리인이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 권한과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북구청도 전산상 관리인 미배치로 확인된 건물에만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 점검은 여건상 어려울뿐더러 관련 지침도 없다고 말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차 관리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청 내 담당자가 한 명이라 현장에 직접 가서 단속하는 게 어렵고, 몇 달에 한 번씩 나가서 확인해야 한다는 지침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건물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과 북구청 등 기관들과 공조하고 있다"며 "언제부터 주차 관리인이 없었는지를 파악해 이를 근거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물주 대리인은 "건물 내 세입자들이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아야 하는 4시간 교육을 들었다. 그들이 관리인이고 필요하면 나가고 있다. 또 임대료가 얼마 나오지 않는데 주차만을 위한 관리인을 따로 두는 게 어렵다"고 했다.

임재환 기자 rehwan@imaeil.com



나이팅게일의 정신으로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대구 곽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간호사들이 입원환자의 침상을 집중치료실로 옮기고 있다. 국제 간호사의 날은 간호사의 사회 공헌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로 1972년 국제간호협의회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생일인 5월12일로 제정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탈락 대상자에 가산점 주고 점수 낮아도 합격

교육부 산하 채용 부정 10건 적발

한국장학재단·고전번역원 등 서류·면접심사 없이 뽑은 곳도

"관계자 경고 처분·관련 규칙 개정"

한국장학재단 등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 부적절한 가산점 등을 통해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13곳 대상으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건의 부당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 동구에 있는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019년 일반행정직 근로자 채용에서 서류전형 탈락 대상인 A씨에게 만점의 5%에 달하는 국가유공자 가점을 줘 채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채용이 이뤄졌던 당시 선발 예정 인원이 2명으로 소수여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취업 지원 가점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관계자 3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한국장학재단에 탈락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경우 지난 2020년 9월 계약직 특별채용을 진행하면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B씨를 채용했다. 재단의 인사 규정 및 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치러야 한다.

한국고전번역원은 2020년 7월 경력계약직 채용에서 면접 점수 83점인 C씨와 86.75점인 D씨 중 점수가 낮은 C씨를 뽑았다. 원장이 단독으로 최종 면접심사를 열고 채점표에 D씨에 대해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이 부적합하다'고 썼기 때문이다. 한국고전번역원은 원장이 채용 적합 여부를 판단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채용 규칙을 도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관련자 2명을 경고 처분하고, 향후 직원 채용 시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했다. 한국고전번역원에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해당 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윤정훈 기자 hoony@imaeil.com

Q 확진 돼도 백신 맞나요 A 3주 지나서 1·2차 접종

3·4차는 확진일로부터 3달 후에

코로나 자연면역 효과 고려 조치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3주 후에 백신 기초접종(1·2차)을 하는 것이 좋다고 방역 당국이 권고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2일 코로나19 감염으로 획득한 자연면역 효과를 고려해 확진자의 접종 간격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접종은 확진일로부터 3주 후에, 추가접종(3·4차)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전까지는 '확진자는 증상이 회복되고 격리에서 해제되면 기초·추가접종이 가능하다'는 정도로만 기준이 설정돼 있었다.

또한 추진단은 이미 접종을 한 뒤에 확진된 경우에는 '이전 접종 후 간격'과 '확진 후 간격' 중 늦은 시점 이후에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예를 들어 1차접종을 마친 사람은 1차접종일부터 8주 후에 2차접종을 해야 하는데, 1차접종 후 7주 후에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면, 1차접종 8주 후가 아니라 확진일부터 3주 후에 2차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1차-2차접종 간격은 8주를 권고하지만 최소 3주 후에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추진단은 "'권고' 간격을 기준으로 접종할 것을 권하지만, 최소 간격을 기준으로 접종하는 것도 오접종이나 지침 위반으로 보지 않고 허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결혼정보
초·재혼 국제결혼, 결혼정보회사, 스튜디오 개인, 웨딩샵
광고문의 : 251-1234

유익한 생활정보
광고문의 : 251-1234

풀칼라 LED전광판 ◆공장도 판매◆
풀칼라동영상시대 / 기존삼색 / 보상매입
시공 / 견적문의 / 상담환영
국제LED ☎ 1877-3166

진산철학관
사주, 작명, 궁합, 결혼, 부부운, 건강운, 사업운, 취직, 승진, 진학, 시험운, 이사, 매매운, 택일, 사성, 병명없이 고생하시는 분, 친절상담, 즉석선처, 한양대 생활역학 1기 졸업
장소 : 지하철2호선 내당역 3번 출구 / 달서구 파도고개로 207 파도고개 방향 250m 우측(미용실 2층)
전화 : 654-7145, 010-8566-8497

계령철학원
작명, 사주, 궁합 택일, 사성 풍수(이장, 가족묘원전문)교육
대한역학인연합회 회장
대구 달서구 죽전로18 (감삼동 46-15)
www.namdosa.com
053-568-2525 (010-3814-0200)

벌목 임업 전문 위험수목 제거
태양광모듈 청소·예초기
(주)푸른임업 · 벌초
053)424-6567, 010-8773-6567

13인승 대형개인택시
골프·의전 및 관광도~!!
가족 및 계모임, 단체는 13인승 솔라티 택시로!
010-5877-3336 / 010-3824-5775

병원·의원·약국 개원 컨설팅전문 임대/매매/양도양수
金興助 김흥조 상무이사
☎ 010-7317-4579

주식, 선물, 코인(가상화폐), 금융, 건강식품, 천연비료, 각종 좋은 사업아이템 거래 전문가 초빙
사무실(무궁화백화점 5층505호)완비
㈜경성인회석농업(담당) 010-5574-6766

칠·방수
※ DPI 도색 전문 ※
노출 콘크리트 내·외부 시공
건물·주택·옥상 방수, 우레탄 방수, 회사 공장바닥 에폭시 시공, 기계도색, 쫄라톤, 무늬코드, APT 내·외부공사, 실내·외 도색
성진도료(삼화 페인트 대리점)
053)552-7217, 010-3507-7216
대구 서구 내당동 297-18

중고피아노 매입·판매
(운반 · 조율)
고객님의 신뢰와 믿음으로 39년을 지켜온 세광피아노사. 항상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광피아노사
010-4802-0541
대구 중구 남산동2112-2(명덕역1번출구)

파산 면책 /개인회생 신용불량 탈출!!
세계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김대봉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804호
010-6429-3814

고화질 최신 CCTV
대구경북 판매1위 업체
30년 기업 영컴통신
1566-3829

국내 전문 수림결혼정보 초혼 재혼
(초혼) 의사·교사등 대구경북·서울등(다수확보)
(재혼) 재력가, 공직, 안정직 다수확보
홈페이지 www.zzakk.com 지사/매니저모집
T. 010-4811-0690 보증보험 국가등록 대구2008-3호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99길45(관음동101호)

한국결혼정보원
국제·국내, 초혼, 재혼
국제허가 대구중구 2018-0001 국내, 허 대구중구 2018-0002
010-3810-3003 ★독립 매니저 초청★
010-8181-8024(옥소장)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273) 동인3가 271-128

개인회생 / 파산
빚 고민 상담
파산관재인 9년 경력
회생 또는 파산 - 선택중요!
변호사 소칠용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74길 27, 2층
053)754-1151

묘목판매
◆과 실 수 : 감, 대추, 사과, 체리, 오디, 복숭아, 자두, 살구,
◆조 경 수 : 사철, 연산홍, 왕벚, 남천
◆약 용 수 : 가시없는 두릅, 가시없는 엄나무, 참두릅, 엄나무, 구지뽕, 구기자, 오미자, 가시없는 복분자, 오갈피, 옻나무, 가죽
◆산소조경 : 황금측백, 옥향
송정원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1037번지
010-7150-3429 / 010-4008-4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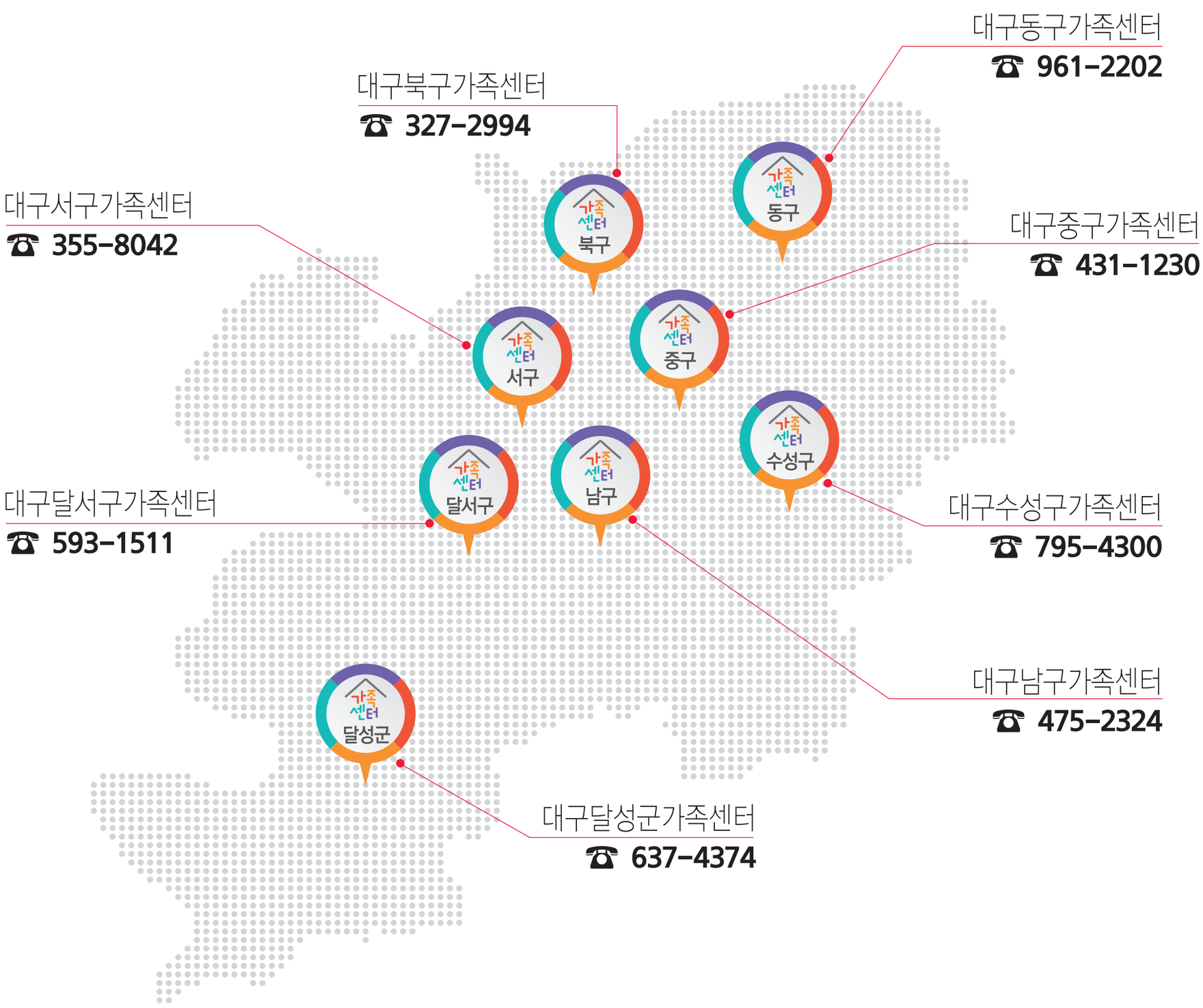
30년 전통을 이어온
청구도시락은 자연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청구도시락 출장뷔페 사업부
(주)청구푸드시스템
053)763-1009/214-8000

가발은 역시 가발명장 셀모로
가발명장 1호 천정일
* 당일내)가발 티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 *
[핀,본드 없이 편한 특허가발]
100% 인모 100%수작업
60만~120만
30년 연구한 가발! (국제기능대학 산업석사, 가발명장 증서)
셀모가발 010-6250-3899 (반월당 23번 출구앞)

가족센터

대구 모든 가족의 행복!
가족센터가 함께!

대구 가족센터 안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제 "가족센터"로 불러주세요

가족센터는 '**지역유일의 가족정책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가족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교육과 상담,
다문화가족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제공,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회는 다양한 가족들을 위해 노력하는 **대구지역 가족센터**를 응원합니다.

‘자살 유족 지원’ 경찰·소방관에 떠넘기기?

7월 정책 시행 앞두고 실효성 논란

기관에 출동 요청해야하지만 현장 처리도 바빠 여력 없어
의무화되지 않은 점도 장애물

대구시, 협조체계 구축 계획



가정의 달 맞아 헌혈 회복세 12일 계명대 성서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헌혈 버스에 올라 헌혈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혈액원 관계자는 “3일 동안 학생, 교직원 1천100여 명이 헌혈에 참여했다”며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헌혈이 거리두기 해제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오는 7월 대구에서 시행되는 자살 유족 관리 지원사업이 시작 전부터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유족이 지원 대상에 선정되려면 우선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해당 기관에 출동 요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가뜩이나 현장 업무 처리에 바쁜 경찰이나 소방관이 유족까지 챙길 여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은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유족에게 심리·정서적 지원과 사후 법률·행정 및 주거비 지원을 해주는 국가 보조금 사업이다. 지난 2019년 광주, 인천, 강원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 중이다. 오는 7월부터는 대구를 포함한 서울, 세종, 충남, 충북, 제주가 사업을 시작한다.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나 소방 공무원이 시·도의 자살예방센터 또는 각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출동 요청을 한다. 센터 측은 사건 초기 현장에서 유족과 만나 심리적 안정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족들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경찰과 소방 당국의 출동 요청과 협조가 필수다. 이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경찰과 소방의 업무만 과중해진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대구 한 경찰은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사흘 안에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유족에게 신변을 인도하는 등 급박하게 돌아간다”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출동 요청을 하고 유족을 인도할만한 여력이 없고 즉각 개입하기도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 당국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사후에 유족을 지원사업 대상자로 등록할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경찰의 몫이다. 유족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유족이 경찰서를 찾아간 뒤 경찰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업 대상자를 인계해야 한다.

결국 경찰과 소방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유족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자살 시도자나 유족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업무가 아직 의무화되지 않은 점도 제도 정착에 장애물로 꼽힌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사업 시행을 앞두고 경찰, 소방과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통해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지수 기자 index@imaeil.com

“오징어 발로 밟기, 일부 선원 일탈 포항 생산업체 전체 매도되지 않길”

건조장 아닌 숙소서 영상 촬영
해당 외국인 노동자 행방 묘연
市, 사실관계 확인 위해 추적 중



최근 SNS를 통해 논란이 된 ‘맨발로 눌러 핀 오징어 건조 영상’. 틱톡 캡쳐

최근 SNS를 통해 논란이 된 ‘맨발로 눌러 핀 오징어 건조 영상’(매일신문 11일 보도)에 대해 포항시가 긴급 점검을 거쳐 “통상적 작업이 아닌 일부 외국인 선원의 일탈 행위”라고 12일 조사 결과를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 11일 틱톡 등을 통해 공개된 속칭 ‘맨발 오징어 영상’이 논란이 되자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포항시 조사결과 관련 영상에 나온 장소는 건조오징어 생산업체가 아니라 외국인 선원들이 머무는 전용 숙소로 확인됐다. 지역 선박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 나온 외국인 선원들은 약 일주일 전쯤 포항에서 마지막 조업을 한 뒤 사라져 현재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주변 외국인 선원 동료 등을 통해 이들의 행적을 쫓고 있다.

현재 포항지역에는 총 37곳의 건조오징어 생산업체가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약 40%(연평균 1천200t가량)를 차지한다. 포항시는 이들 오징어 건조업체의 손질작업 모두 위생적 시설을 갖춘 전문 설비 장소에서 이뤄지며, 오징어를 펴는 작업 역시 수작업이 아닌 소형 프레스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철영 포항시 수산진흥과장은 “외국인 선원의 개인적인 영상으로 오해가 발생했으며, 건조오징어 생산업체 전체가 비위생적인 것으로 매도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경북 영덕에서 슬리퍼를 신고 마른오징어 가공작업을 하는 영상이 공개된데 이어 포항에서도 맨발로 오징어를 눌러 펴는 영상이 나오면서 ‘오징어 비위생’ 논란이 일고 있다.

신동우 기자 sdw@imaeil.com

대구고법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항소심 기각

형 징역 7~12년·동생 집유 3년
재판부 “1심 양형 적절했었다”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방조한 혐의로 넘겨진 10대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친할머니 살해사건’의 항소심에서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과 같이 주범 A(19) 군에게는 장기 12년~단기 7년, 방조범 동생 B군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2012년부터 함께 살아온 친할머니가 자신을 꾸짖자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A군은 할머니를 살해한 직후 할아버지도 살해하려 했으나 할아버지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B군이 만류하자 범행을 중단했다. 이후 할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과 A군은 지난 1월 20일 1심 판결 후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흉기를 휘두른 A군에게는 무기징역, 동생에게는 장기 12년~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다. 아울러 동생은 당시 범행을 만류한 점,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1심 양형이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김윤기 기자 yoonki@imaeil.com

고춧가루 분쇄 기계 몸 끼여
청도 제조공장 근로자 숨져

11일 오후 5시 30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한 고춧가루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49) 씨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분쇄에 앞서 고추가 엉키지 않도록 푸는 작업을 하는 도중 기계에 빨려 들어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A씨와 함께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은 다른 작업을 하다 뒤늦게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노진규 기자 jgroh@imaeil.com

‘보조금 횡령’ 김규봉 전 감독 항소심서 감형

경주 트라이애슬론팀 전 감독 판결
대구고법 징역 6개월 집유 2년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2일 훈련에 참가하면서 참가 인원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감독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제 참가하지 않은 훈련에 참가한 것처럼 허위 훈련계획서를 경주시체육회에 제출해 2억8천여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나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허위 훈련 계획서가 첨부된 거짓 지방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작성해 경주시에 제출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경주시체육회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감독이 다른 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종합했다고 소폭의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윤기 기자

연금복권 720 (제106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700만원x20년	5조	307695
2등	월 100만원x10년	각조	307695
3등	1,000,000	각조	07695
4등	100,000	각조	7695
5등	50,000	각조	695
6등	5,000	각조	95
7등	1,000	각조	5
보너스	월 100만원x10년	각조	979966

가발은 역시 가발명장 셀모로!!

〈핀·본드·찍찍이·실묶음·링·결속 등은 사용하지 않는 편안한 신기술 특허제품〉

(제10-1186193호)

50% 할인행사 60만~120만

100% 인모 100% 수작업

★부분가발 ★전체가발 ★치료가발 ★맞춤전문점

▶ 현재 착용하고 있는 가발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
▶ 타사제품을 착용하시다가 실패하신 분!
▶ 가발 잘하는 곳 / 입소문 1위 업체
▶ 타사 모든제품 수선가능

당일내가발티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

약력
- 국제기능대학 명장증서
- 도전한국인 명인증서
- 한국가발협회 부회장(전)
- 제30회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금상수상
- 벨기에 브뤠셀 C.A.T세계 이 미용선수권대회 심사위원
- 국제자원봉사총연합회 봉사대상 수상
- 국제미용건강총연합회 트레이너(지도교수)
- 일본,중국 이 미용학 연수
- 대구상공회의소 기업발전협의회 상임이사

표창
- 국무총리 (김황식) 표창
- 중소벤쳐기업부장관 (최수규)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표창
- 대구시장 (권영진) 표창
- 대구광역시교육감 (우동기) 표창



KBS 생생정보통 외 다수 방송출연



명장인 저도 특허가발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고민 끝! 이제 망설이지 마세요!

- 가발을 쓰면 티나지 않을까?
- 바람에 벗겨지지 않을까?답답하지 않을까?
- 가격은 비싸지 않을까?

가발의 명가! 느낌조차 없는 내 머리처럼 자연스럽고 편한 셀모 특허가발 쓰자 !!

셀모(毛) 010-6250-3899 (위치 : 반월당역 23번출구 엘리베이터앞 보현사 옆)

NAVER 검색창에 대구셀모 를 쳐보세요

"구미 시내버스 불편" 노선 개편 요구 높아

빙빙 둘러가고 배차도 불규칙
이용객 수 정체…학생은 감소
市 "대대적 개선 시간 걸릴 듯"

구미 시내버스 노선과 서비스를 두고 시민들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미역 중심 주요 노선을 제외하고는 노선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외곽 지역 시내버스는 배차 간격이 길고 불규칙해 승객 이용에 불편해서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 2015년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으로 시작해 2017년, 2020년 시내버스 증·감차, 노선 신설 등 개선 작업을 벌인 바 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시는 2008년 도내 최초로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실시, 2010년 2회 무료 환승 확대 실시 이후로는 접근성 개선 및 요금지원 정책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인 이용객 수는 정체됐고 학생 이용은 감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구미시 중·고생 시내버스 이용건수는 112여만 건을 기록해 2010년 300여만 건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직장인도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토로한다. 구미 산동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A(30) 씨는 "구미에 발령 받자마자 처음 들은 소리가 '구미는 대중교통이 불편해 차량을 사야한다'는 얘기였다"며 "출·퇴근뿐만 아니라 강동 지역과 강서 지역으로 오갈 때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빙빙 둘러가는 노선을 이용하거나 환승을 해야 해 차라리 직접 운전하거나 택시를 타고 다닌다"고 했다.

구미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대비 서비스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천500원(일반인 요금 기준)으로 인상됐지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정류장 무정차 통과'로 6건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불만을 사고 있다.

구미시는 대대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2023년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에 맞춰 사곡역을 중심으로 공단과 오갈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환승시스템 구축을 용역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이 연기되면서 용역도 연기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영광 기자 kwang623@imaeil.com

'경산 무선전력전송 특구' 신청 잰걸음

경북도 홈페이지에 계획안 공고
주민 열람 거쳐 6월 절차 마무리

경상북도가 경산에 '경북 무선전력전송 규제자유특구'(이하 무선전력전송특구) 지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경산시 일대 42만6천여㎡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플랫폼 실증사업과 스마트 리빙 홈 무선전력전송 실증사업을 위한 경북 무선전력전송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경산은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경북TP) 인프라를 갖추고 관련 기업도 있어 무선전력전송 산업화를 위한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무선전력전송특구로 지정되면 전기자동차, 사물인터넷, 스마트 홈, 로봇, 물류 등 폭넓게 무선전력전송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의 사업화가 가능하게 된다. 기업은 또 세금 및 각종 부담금 감면과 연구개발자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2년 7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신청을 위한 행정 절차로 지난 9일 무선전력전송특구 계획(안)을 도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고 기간은 6월 8일까지이며, 이달 16일부터는 주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공고 기간 내 주민공청회와 심의를 거쳐 6월에 신규특구 지정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경산시에 무선전력전송특구가 지정되면 무선충전 및 무선전력전송기기 관련 신사업 분야 진출로 국내외 시장 개척과 전·후방 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차세대 에너지산업 생태계 선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만 기자 factk@imaeil.com

경북도 즐길거리 풍성, 가족과 함께 힐링하세요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홍보를 위해 안동지역 곳곳에서 '탈놀이단' 공연을 마련한다. 안동시 제공

안동 신명나는 탈놀이 버스킹 공연

3년 만에 개최되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홍보를 위해 축제의 마스코트 '탈놀이단'이 먼저 신명과 흥을 불러 일으킨다.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오는 14일부터 11월 5일까지 안동문화의거리, 월영교, 낙강물길공원 등 안동의 대표 관광지에서 '탈놀이단' 상설 공연에 나선다.

탈놀이단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는 버스킹 게릴라 공연으로 진행된다.

주제 공연, 댄스 메들리, K-pop공연 등의 공연 프로그램에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레크리에이션도 더해 안동 관광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탈놀이단'은 지역 문화예술 인력, 대학생, 고등학생 등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축제 때마다 킬러 콘텐츠로서 축제의 흥을 돋우는 활약을 톡톡히 해왔다.

이금혜 안동시 관광진흥과장은 "탈놀이단이 벌이는 신명나는 탈놀이를 통해 시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탈춤축제의 흥을 미리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엄재진 기자 jinee@imaeil.com



영양산나물축제가 15일까지 영양군청과 영양전통시장 등지에서 열린다. 엄재진 기자

영양 산나물 뜯고 씹고 먹고 즐기고

제17회 영양산나물 축제가 3년 만에 현장에서 대면축제로 열린다.

영양군과 (재)영양군축제관광재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영양군청과 영양전통시장 일대에서 다양한 축하공연과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마련했다.

축제는 '산나물채취체험', '산나물판매장터', 구매한 고기를 구워서 산나물에 싸먹을 수 있는 '산나물 고기굼터'가 준비된다. 또, 구입한 산나물의 요리방법을 알려주고 포장해주는 '산나물 요리보고 조리보고', 일월산의 높이 1천219m를 상징하는 '1219인분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있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사상체질 무료진단과 체질에 맞는 산나물을 추천해주는 '사상체질관', 젊은층의 축제 참여와 환경을 생각하는 '야간트래킹 탄소중립 캠페인', 산나물 50여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나물 테마거리' 등이 준비된다.

조중호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들 모두 즐기고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엄재진 기자



2019 마스터즈 사이클 영주투어에 참가한 선수들이 힘차게 달리고 있다. 영주시 제공

영주 600여명 사이클 라이딩 장관

2022년 마스터즈 사이클 영주 투어가 3년 만에 재개된다.

(사)대한자전거연맹에서 주최·주관하고 영주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주경찰서, 영주호오토캠핑장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대한자전거연맹에 정식 등록된 전국 600여 명의 선수들이 오는 14일 영주댐을 배경으로 일주도로를 달리게 된다. 올해 7년째를 맞는 영주 투어 대회는 지난 3월과 4월 창녕과 강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대회가 오미크론 확산으로 취소되면서 올해 첫 마스터즈 투어가 됐다.

경기는 영주호오토캠핑장을 출발해 금광삼거리, 동호이주단지 입구, 동호교 앞, 동막교 앞, 송리삼거리, 강동마루공원, 터널을 지나 오토캠핑장으로 순환하는 코스로 진행된다. 대회 방식은 DMZ리그(오전 9시 출발 47.6km·4주회 정도) 주행과 스페셜리그(오전 11시 출발 59.8km·5주회 정도)를 주행하는 2경기로 나뉘어 개최된다.

감성익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선수들이 영주에서 최고의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투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경대 기자 kdma@imaeil.com



영천시 화남·화북면 일원에 만개한 작약 꽃밭 모습. 영천시 제공

영천 작약 꽃밭에서 인생샷 '찰칵'

경북 영천시 화남·화북면 일원을 중심으로 12일부터 20일까지 '제4회 영천 작약꽃 축제'가 열린다.

한국약초작목반원들이 2018년부터 자체 기획한 작약꽃 축제는 관람객들이 만개한 작약 꽃밭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블로그와 SNS 등에 올리며 사진촬영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작약꽃은 매년 5월 중순 만개하며 종근을 이식해 3~4년차 가을에 수확하는 약용작물로 뿌리 부분이 약효가 좋아 차로 마시거나 한약재로 쓰인다.

전주택 한국약초작목반 회장은 "꽃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영천시 전역에 걸쳐 작약 꽃밭을 개방하겠다"며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음에도 약초의 효능 및 섭취방법 정보가 부족한 작약 약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강선일 기자 ksi@imaeil.com



지난해 경주시 서악동 삼층석탑 앞 작약꽃밭에서 열린 '新화랑 풍류 음악회'. 경주시 제공

경주 '화랑의 풍류' 즐기러 가볼까

경북 경주시 서악동 삼층석탑 앞 작약꽃밭에서 '新화랑 풍류 음악회'가 14일과 15일 양일간 열린다.

21C 글로벌 리더양성 '新화랑 풍류체험' 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통기타 어쿠스틱 밴드 '하늘호가 출연해 양일 각각 오후 3시에 무료 공연을 한다. '新화랑 풍류체험'은 무열왕릉과 진흥왕릉 등 삼국통일 주역들의 문화재가 산재한 서악동에서 신라시대 화랑정신을 알리자는 취지로 벌이는 사업이다. 서악동에서는10월까지 매달 둘·넷째 주 토요일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 이중 화랑복을 입고 화랑무예(죽궁, 택견)와 화랑예법(다도), 세속오계 목판체험, 영웅화랑 스토리탐방 등의 '新화랑 풍류체험'이 인기가 높다.

김호진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체험 행사는 현장·사전접수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진홍 기자 pjhbsk@imaeil.com

건강체험단을 모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고 허무맹랑하다고 했다. 그렇지만 2013~2021년 8년 동안 1700여명의 임상 및 음용 체험 결과 놀라운 결과 확인!

치료해도 호전이 잘 안되는 만성질환, 희귀 난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융복합 신기술의 경성마늘수(茶)를 음용하면서 병원치료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와 신비한 결과를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 자연식품이라 부작용 전혀 없이 신비스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새롭고 건강한 삶이 시작됩니다.
● 좋아지신 분들의 감사 후원금으로 더 큰 발전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음용 한달 후 병원검사 실시)

㈜경성인회석은 지난 8년간 1700여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병원에 다녀도 호전이 잘 되지 않는 만성질환, 희귀난치병의 사람들이 융복합 신기술의 경성마늘수(茶)를 음용하면서 병원치료를 받아 새로운 활력을 얻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거나 음용 체험을 해 보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간 기능 (간경화,지방간,암)	비염, 알레르기로 고생한다.	갑상선, 호르몬, 갱년기	중풍으로 다리가 불편
폐기능이 좋지않다 (폐종양)	심장질환, 심근경색증, 고혈압	통풍, 부종, 화병, 담적	파킨슨, 알츠하이머, 치매증상
희귀난치병이 있다.	아토피, 탈모, 피부개선	당뇨가 심해 움직이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함	전립선, 뇌졸중, 이명, 백내장
만성질환이 있다.	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비만, 피로, 대상포진

병이 개선된 후에 낸 "감사의 후원금" 은 여전히 질병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또 다른 무료 체험에 주로 사용되며.
효능 개선을 위한 임상실험과 연구 자금으로 쓰여집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에 사용됩니다.



<중소기업연수원,한국능률협회,항공대학교,한국표준협회,금호인력개발원,인하대학교,구청,방송 창업강의>

건강 상담부터 해보세요!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실 것입니다

(주)경성인회석농업 . 부설 경성치유농업 . 온전한 삶 회복운동본부
건강체험 상담문의 ☎(053)745-6776 / 010-5574-6766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길111. 무궁화백화점 5층 505호


하나1Q원큐 K LEAGUE 1 2022
문화체육관광부
KSPO
KELME
NH NongHyup
친절·질서·청결운동
Happy together 김천
adidas
김천상무 홈경기
5월 14일(토) 16:30 VS 대구FC
5월 21일(토) 19:00 VS 울산현대
6월 17일(금) 19:00 VS 수원FC
6월 21일(화) 19:00 VS 성남FC
7월 2일(토) 19:00 VS 전북현대
GIMCHEON SANGMU
김천상무
FOOTBALL CLUB
2021
김천상무
장소 김천종합운동장
티켓문의 070-4105-4050
김천시
국군체육부대
Korea Armed Forces Athletic Corps
NH농협
KELME
경북나드리
AJU 아주스틸
DGB대구은행

외국인 몰려오고 웨딩 재개…들썩이는 호텔업계

가스총회 앞 5성급 예약 증가
대규모 연회·축제도 기지개
중소호텔 매출 한달새 40%↑

지난해 '호캉스'로 호재를 누렸던 호텔업계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해외 관광객들의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코로나19로 연기돼왔던 웨딩·연회 등 행사가 본격적으로 열릴 준비를 하고 있어서다.

지난 3월 5성급 호텔의 지위를 얻은 대구 메리어트 호텔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투숙객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 지난 1~2월에는 전체 고객 중 외국인의 비율이 9% 정도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자 외국인 비율은 25%를 넘었다. 대구 메리어트 호텔은 국제선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세계가스총회가 개최되는 이달엔 30%까지도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호캉스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호텔 객실 예약률은 대부분 코로나 이전 수요를 회복한 지 오래다. 다만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히자 객실은 내국인들로 대부분 채워졌다. 외국인 수요는 사실상 없었지만 지난달부터 조금씩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5월 호텔 객실 예약률도 커지고 있다. 5성급 호텔인 인터불고 호텔의 평일·주말 객실 예약률은 60% 수준으로 준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대구의 또 다른 호텔 관계자는 "10일 기준으로 5월 평일의 호텔 객실 예약률이 벌써 40~50%에 이른다. 작년 이맘때 20~30% 정도였다"며 "평일은 직장을 다니는 국내 고객들이 호캉스 하기가 쉽지 않은 탓에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그만큼 한국에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엔데믹 분위기에 힘입어 호텔 웨딩이나 연회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대구 메리어트 호텔은 최근 웨딩 계약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정도로 늘었다. 하객 인원 제한도 없어지는 등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방역 완화가 이뤄지자 비용이 일반 웨딩홀에 비해 4~5배 비싼 5성급 호텔 웨딩에도 예비부부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연회 행사 수도 전년 대비 2배 정도 늘었다고 했다. 인원 제한 탓에 소규모로 진행됐던 지난해와는 달리 대규모의 연회가 잡혀 큰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는 23일부터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가스총회로 세계 각국의 에너지 기업 고위 관계자 등이 고급 호텔의 VIP룸 등에 등록을 끝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불고 호텔 관계자는 "세계가스총회 기간엔 외국 인사의 사전 예약으로 대부분 객실이 잡힌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호텔 관계자는 "세계가스총회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권위 있는 행사여서 높은 성급의 호텔부터 차례로 마감된다"며 "지역 호텔업계로서는 반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코로나로 중단됐던 지역 축제와 각종 이벤트가 재개되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대구 방문도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대구에선 7월 '대구컬러풀페스티벌', 9월 '제8회 수성못 페스티벌'과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이 3년 만에 열린다.

대구의 한 중소규모 호텔의 한 관계자는 "5월 들어 호텔 객실 매출이 전달보다 30~40%는 더 늘었다"며 "앞으로 관광객들이 몰리면 호캉스 수요뿐만 아니라 여행하기 위해 들른 '진짜 숙박 수요'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bsj@imaeil.com

DGB Index 〈12일〉

코스피	2,550.08	(-42.19P)
코스닥	833.66	(-32.68P)
국고채금리 (3년물, 연%)	2.900	(-0.028%P)
환율 (원·달러)	1,288.6	(+13.3원)
금값 (1g)	76,670	(+960원)

DGB대구은행 DGB
증권연계계좌를
더 가깝고 더 편리하게!
-14개 증권사의 증권계좌 개설 가능
-공모주 청약부터 해외주식 투자까지증권연계계좌로 가능
*체결전 상품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5050 / 1588-5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1-151호 (2021.04.01~ 2022.03.31)

"한발 빠른 뉴스"
안드로이드용 매일신문앱 아이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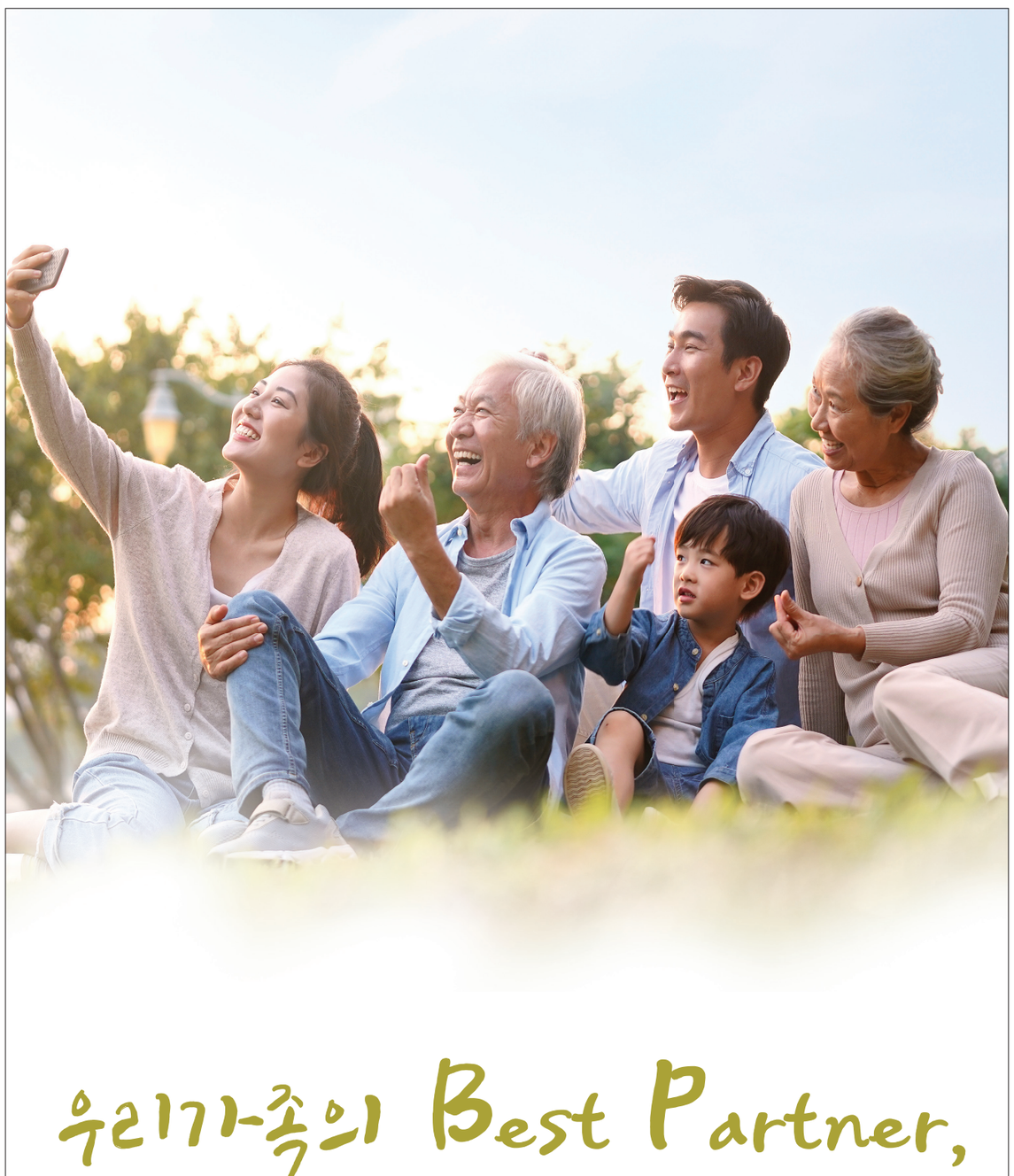


롯데百 '빌보드' 포토존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오는 15일까지 7층 특설매장에 팝 캐주얼 브랜드 '빌보드 스타일'의 포토존을 운영한다. 사진을 찍고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폴라로이드 사진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제공

가스公 1분기 영업이익 19.4% 증가 9126억

코스피 상장사 한국가스공사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천12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8천286억원을 10.1% 상회했다.

매출은 13조9천795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1.3% 증가했다. 순이익은 7천361억원으로 42.9% 늘었다. 연합뉴스



美 4월 물가상승률 8.3%…'자이언트 스텝' 우려

〈금리 0.75%P 이상 인상〉

3월 보다 둔화됐지만 예상 웃돌아
연준 긴축 강도 더 거세질 가능성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8.3%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박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미 노동부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작년 같은 달보다 8.3% 급등했다고 밝혔다. 상승 폭은 40년 만의 최고치였던 3월의 8.5%보다 둔화했으나 시장에서 예상한 8.1%를 웃돌았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12일 코스피는 8거래일 연속 하락해 2천550.05로 2020년 11월 20일 이후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연속 주식을 내다 팔아 1조6천억원 가까이 순매도했다.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12조2천억원을 넘는다.

미국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미국의 물가정점론도 탄력을 받기 어렵게 됐다. 금융시장은 4월 소비자물가가 8% 아래로 나올 경우 물가 인상이 급격히 꺾일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뚜렷하게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했다.

게다가 예상보다 상승률이 웃돌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인상) 기조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연준의 긴축 강도가 더 거세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빅스텝으로 인플레이션 완화의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연준의 75bp(0.7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선 약세장 지속과 기술적 단기 반등 전망이 엇갈린다.

약세론자인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주식 전략가는 S&P500지수가 단기간에 3천700까지 저점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이투자증권은 미국 뉴욕 증시가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이후 변동성 확대로 낙폭을 확대했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달러는 강세를 보인 만큼 당분간 인플레이션 이슈에 민감한 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환 기자 lc156@imaeil.com

달러 강세에…환율 1300원 육박

금융위기 후 13년 만에 최고치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이 1천300원선을 목전에 두게 됐다.

전문가들은 고물가와 미국의 긴축정책,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환율 변동성 확대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3.3원 오른 달러당 1천288.6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은 2009년 7월 14일(1천293.0원) 이후 약 13년 만에 최고치다.

이날 환율은 7.2원 오른 달러당 1천282.5원에 출발해 장중 줄곧 상승세를 보이며 장 후반부 들어 달러당 1천291.5원으로 고점을 높였다.

지난 사흘 동안 환율 변동 폭은 1~2원 수준에 그쳤지만, 이날은 10원 이상 급등하며 변동 폭을 확대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도 상승하며 104.1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물가 상승세 지속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강한 긴축 기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달러화 강세에 기본적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난 게 이날 외환시장에 충격을 더했다.

당분간 환율이 더 오를 전망이다. 달러화 강세가 전 세계적인 현상인 데다 이런 추세를 꺾을 만한 재료가 없는 상황이어서 당국이 개입하더라도 당장 원화를 약세로 전환하기엔 동력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분위기에선 섣부른 개입 시도 시 외환보유고만 축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외환·금융위기 시기가 아니면 역대로 도달한 적이 없었던 달러당 1천300원선 위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달러당 1천300원이 뚫리면 외환위기를 부를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환 당국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창환 기자

DGB금융 'ESG 평가' 국내 최고 등급

글로벌 3대 지수 MSCI서 'AA등급'

상위 두 번째…리더 그룹 포함
지속 가능 경영 추진 성과 인정
한국 랭킹 120선 지주로 1위

DGB금융그룹이 추구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다.

DGB는 글로벌 ESG 평가 지표인 'MSCI(모건스탠리) ESG 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MSCI 지수는 S&P다우, FTSE와 함께 글로벌 3대 지수로 평가되는 글로벌 펀드 투자의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지표다. MSCI의 ESG 평가 등급은 MSCI가 산출하는 다양한 ESG 지수의 편입 기준이 된다.

DGB는 전체 7개 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고, 특히 MSCI가 상위 2개 등급(AAA, AA)에 부여하는 '리더 그룹(Leader Group)'에 포함됐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AAA 등급을 받은 기업이 없어 DGB가 획득한 AA등급이 금융권 최고 수준의 등급이라는 게 DGB 측의 설명.

DGB는 최근 '한국 ESG 랭킹 120' 발표에서 종합 15위를 기록했고, 금융지주 중에는 1위에 올랐다. '한국 ESG 랭킹 120'은 미국 ESG 솔루션 기업 'CSR Hub'가 평가 데이터를 보유한 국내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CSR Hub는 MSCI, S&P 글로벌, 무디스, ISS 등 800여 개 ESG 평가기관의 결과를 종합해 세계 5만2천여 개 기업의 컨센서스 점수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Korea'의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 획득 및 ESG 우수기업상 수상 등 지속적으로 국내외 ESG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DGB는 2006년 국내기업 최초로 지속가능경영 선포식을 개최한 이래 유엔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선도적 가입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경영을 추진해 왔다.

ESG 경영이 더욱 강조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시작으로 탈석탄 금융 선언, 이사회 내 'ESG위원회' 신설, ESG 채권 발행 등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별 ESG 경영 활동을 강화했다.

김태오 회장은 "DGB의 꾸준한 ESG 경영 추진 성과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어 매우 뜻깊다"며 "ESG 경영의 내재화를 넘어 대외적으로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에 기반한 선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imaeil.com

"고기능성 농작물로 맞춤 영양 서비스"

대동-엔젠바이오 공동개발 MOU
유전체·미생물 빅데이터 활용 예정

대구 농기계 기업 대동이 엔젠바이오와 협력해 고기능성 작물을 활용한 맞춤 영양 서비스를 개발한다.

대동은 '대용량 유전체 플랫폼 기술'을 개발한 엔젠바이오와 지난 11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대동과 엔젠바이오는 개인 유전체와 미생물 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 영양 분석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건강 상태 파악으로 각자 필요한 영양소, 식습관 등을 제시한다.

대동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고기능성 농작물을 활용해 초개인화된 건강관리 상품·서비스도 공동 개발한다.

원유현 대동 대표는 "농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도로 검토해 신성장 동력을 지속해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출 엔젠바이오 대표는 "자사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에는 질병 관련 유전체 데이터와 일반 유전체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고,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 건강 솔루션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대동의 스마트팜 솔루션과 결합해 혁신적인 식이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설립된 엔젠바이오는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방법을 제공하는 정밀진단 분야를 연구하는 유전체 진단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이용자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영양소, 운동, 피부, 모발, 식습관, 개인 특성, 건강 관리, 혈통 부문에 걸쳐 최대 70개 항목까지 검사 가능한 개인 유전자 검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채원영 기자 chae10@imaeil.com

외국인 주식자금 5조3천억 빼갔다

韓 증시서 3개월 연속 순유출

美 긴축 강화·우크라 사태 여파
2월 18억→3월 39억, 점점 커져
채권 자금은 16개월째 순유입

미국의 긴축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5조원이 넘는 돈을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중 외국인의 주식 투자자금은 42억6천만달러 순유출됐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4월 말 원/달러 환율(1천255.9원) 기준 약 5조3천500억원이 빠진 것으로, 3개월째 순유출을 기록했다. 순유출 규모는 2월 18억6천만달러에서 3월 39억3천만달러를 기록하며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한은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정책이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은 민간 자금을 중심으로 4억7천만달러 순유입됐다. 16개월 연속 순유입으로 역대 최장이다. 다만 순유입 규모는 2월 34억9천만달러에서 3월 5억4천만달러로 내려앉는 등 줄어들고 있다. 외국인의 주식, 채권 투자자금을 모두 합친 증권투자자금은 4월 37억8천만달러 순유출됐다. 2개월 연속 순유출이다.

한국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상승세를 지속하며 지난달 월평균 33bp(1bp=0.01%포인트)를 나타냈다. 전월보다 3bp 올랐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 성격의 금융파생상품이다. 해당 국가 경제의 위험이 커지면 대체로 프리미엄도 올라간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 폭은 평균 5.1원으로, 3월(6.9원)보다는 일부 내렸다.

연합뉴스



라코스테 릴랙스핏 폴로셔츠 대백프라자 7층 의류브랜드 '라코스테'는 지난해 여자 연예인들이 입고 화제가 되면서 완판시킨 '릴랙스핏 폴로셔츠'를 올해도 출시해 20~40대 여성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총 5가지 색상(블랙, 네이비, 베이지, 화이트, 블루)으로 가격은 10만원 대다. 대구백화점 제공

영세기업 디자인 개발 최대 200만원 지원

대구시-대경디자인진흥원 맞손
제품·웹·사진 분야별 차등 지급

대구시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1인 기업·영세기업에 현장 상담과 시안 개발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디자인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자인 개발을 수행하는 초기창업 디자인 전문회사에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해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해당 사업으로 지난 5년간 1천여 개 지역기업이 간판, 사인물, 전단지 개발은 물론 자가상품 패키지, 로고 개발에 이르기까지 부문별 디자인 지원을 받아 매출 상승효과를 봤다. 기업의 만족도는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13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로고·홍보물·포장 등 제품 디자인, 웹·GUI(Graphical User Interface), 사진촬영 분야에 대해 부문별로 최대 200만원에 해당하는 디자인 시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대구창업허브(DASH)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우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기업에 디자인 컨설팅과 소규모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매출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 디자인 기업 육성을 통해 디자인 등용문 제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채원영 기자

혁신도시 1호 수소충전소 준공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동구 혁신도시 수소충전소 구축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11개 혁신도시 최초로 들어선 대구 혁신도시 수소충전소는 총 사업비 53억원이 투입됐다. 시간당 수소 승용차 10대 또는 수소 버스 2대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연간 수소 승용차 기준 1천300대(200t)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가스공사는 충전소 내 마련된 홍보관에서 가스공사가 추진하는 수소 사업을 홍보하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한다. 아울러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가스총회 기간 수소충전소 연계 산업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준공으로 김해와 대구에 자사 직영 수소충전소 2곳을 확보했다"며 "내년 말까지 광주, 창원, 평택에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완료하는 등 수소 인프라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채원영 기자

심의필번호 : 제151023-중-29959호

홈페이지 대구유림한의원

성기능 저하

발기부전·조루·성욕감퇴
피로·지구력 부족·낭습·수족냉증·정액결핍

무리한 성생활로 신휴하면 건망, 불면, 현기증, 이명, 오심번열, 무기력, 자신감 결여 등이 올 수 있다.
몸이 피로하고 성기능이 떨어지면 혼자서 고민하고 괴로워 말고 조기치료를 하시오.
43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정력증강과 피로를 풀어 신기를 튼튼히 하여 성생활 개선은 물론, 건강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전립선염·비대

야간뇨·빈뇨·잔뇨·무력뇨·급박뇨
유뇨·회음부통

소변의 고통이 삶을 포기하고 싶도록 괴롭지만,
치료는 잘 안되고 특히, 전립선염은 재발까지 잘 된다.
치료를 게을리 하면 신·방광 등이
나빠질 수 있으니 조기치료가 중요합니다.
43년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원인과 증상을 면밀·분석하여 허한 신기를 도와 소변의 불편은 물론 성기능 저하도 개선 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감퇴된 성욕과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 조루치료를 통해 자신감 회복과 생활의 활력을 유림한의원에서 찾으십시오.

유림한의원 원장 조 남 학 대구 남구 대봉로 19길 20-2(구.남도극장 앞) 상담문의 053.474.5166

아이스크림 시장 다시 '얼음' 될까



코로나로 '집콕 생활' 늘면서
2년간 아이스크림 매출 폭발
대형마트 즉시배송 상품 목록
겨울철 상위권 오를 정도 인기

작년 합계출산율 1명도 안돼
주소비층 아동 인구 계속 감소
구독경제·신제품·수출개척 등
거리두기 풀리며 수익 안간힘

'우리나라에서 향후 아이스크림 시장의 입지는 어떻게 변할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드는 요즘,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성장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였던 2020년과 2021년엔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던 아이스크림 시장이 이례적인 성장을 이뤘다. 업계 안팎에선 저출산·고령화로 아이스크림 시장이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간식 수요가 높아지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업계는 주소비층의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아이스크림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지 않는 한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축소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고 있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FIS)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는 전년(1조7천269억원)보다 5.1% 증가한 1조8천153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1조7천269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상승세다.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는 2015년(2조330억원)에 2조원을 넘긴 뒤 2017년(1조7천725억원)에서 2019년(1조6천134억원)까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이었다. 업계에서도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시장 그래프가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는 게 중론이었다.

◆코로나19로 아이스크림 시장 성장

하지만 코로나19가 일상 전반을 바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사람들이 밖을 나가지 않는 '집콕' 생활로 집안 내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 수요가 늘었다. 실제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의 지난해 6월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아이스크림 구입 빈도를 묻는 질문에 34.8%는 증가했다고 했고, 12.5%만이 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2월 도입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시간 즉시 배송'을 통해 찾는 주요 상품 목록을 보면 롯데제과 '명가 찰떡아이스', '설레임' 등 빙과류도 자리에 있었을 정도다. 2020년엔 떠먹는 홈 타입의 아이스크림 점유율(19.2%)이 콘 타입의 아이스크림 점유율(17.7%)을 넘어서는 현상도 일어났다. 아이스크림 무인매장도 이 시기 급증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까

다만 지난달 19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여 만에 풀리면서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는 이전보다 더 크게 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이스크림 시장의 근본적인 난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다. 주소비층인 아동 인구수가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반면 고령층의 비율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치인 0.81명을 기록했다.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롯데제과 아이스크림. 연합뉴스

아이스크림을 대체할 수 있는 간식거리가 많은 점도 있다. 결국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가 오는 2024년엔 2019년 수준인 1조6천억원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업계 전망도 나온다.

◆아이스크림 업계, 판로 개척 중

아이스크림 업계는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 우선 아이스크림에 구독경제를 도입한 모습이다.

롯데제과는 작년 5월 '월간아이스'를 내놓고,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테마에 맞는 아이스크림을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있다. 이어 롯데제과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나뚜루'를 이용해 만든 '월간 나뚜루'도 론칭했다. 빙그레는 2020년 10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끌레도르'를 이용한 정기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다.

주소비층을 넓히기 위한 신제품 출시도 활발하다. 매운맛이 인기를 끌자 빙그레는 지난해 아이스크림에 불닭소스를 넣은 '멘붕어싸만코'를 롯데제과는 '찰떡아이스 매운 치즈떡볶이'를 출시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롯데제과는 지난해 4월 1일 '만우절'엔 딸기맛이 아닌 멜론맛이 나는 '메론 먹은 죠스바'를 200만 개 한정품으로 내놓기도 했다.

롯데푸드는 최근 아이스크림 제품 '아맛나' 출시 50주년을 맞아 잔칫집 떡을 모티브로 만든 '아맛나 앙상블'을 한정 판매하기도 했다. 1972년에 출시된 아맛나는 국내 바 아이스크림 중 가장 오래됐는데, 1년에 약 2천500만 개씩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끄는 제품이다.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채식주의가 하나의 트렌드로 퍼지면서 비건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있다. 작년 5월 나온 나뚜루의 비건 아이스크림은 출시 두 달여 만에 7만 개가 팔렸다. 같은 해 10월 이랜드에서도 비건 아이스크림이 출시됐다.

해외로도 'K-아이스크림'을 나르고 있다. 한류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수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미국·중국·캐나다·필리핀·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아이스크림 수출이 매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분기(1천857만달러)보다 19.5% 성장한 2천219만달러로 나타났다. 연간 규모로 보면 작년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7천242만달러로 전년보다 19.4% 늘어났다. 2020년의 신장률(11.9%)보다도 더 컸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로 수출하는 아이스크림 비중은 2020년 이후 크게 늘어났다"며 "저출산·고령화에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이 저성장할 수도 있지만 수익 구조 다변화를 통해 난관을 극복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bsj@imaeil.com

집 안으로 들어간 AI스마트홈 기술

KT대구경북광역본부 세미나
주택조합·시행사 대표 대상
주거 관련 기술과 노하우 소개

KT대구경북광역본부는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X) 기반 주거문화 트렌드 변화 세미나'를 열고 KT의 주거 관련 AI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11일 호텔 인터불고(EXCO) 아이리스홀에서 열린 이 세미나는 '더 나은 주거 생활 경험의 대중화'를 주제로 대구경북 내 주택조합·시행사 대표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수화 코그렌 대표이사(한국외대 겸임교수)는 '주거 문화 트렌드 변화' 강연을 시작으로 KT 공간·안전DX사업담당 배기동 상무가 'AI Space DX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또 'AI Space 도입 활용 사례' 등 업계 전문가들이 주택 시장 트렌드와 최신 기술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 이후 참석자들은 최근 주택 시장의 트렌드인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AI주택형 솔루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AI 주택형 솔루션'은 주택 내 설치된 조명기구,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과 같은 IoT 가전제품을 음성이나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다.

KT와 스마트홈 전문 기업 코맥스가 공동 개발해 아파트, 호텔과 같은 대형 건물뿐 아니라 지금까지 스마트홈 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웠던 소규모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에도 적용할 수 있다.

KT대구경북광역본부는 'AI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을 위해 대구시 고성동 'KT대구본부' 1층에 'AI주택형 솔루션'을 적용한 체험 공간을 구축, 관련 업계 종사들이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안창용 KT 대구경북광역본부장은 "주거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AI주택형 솔루션'을 활용해 고객들이 편리하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KT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모델 : <자인 방앗간> 박재홍 대표

gcs_bangsong

일편단심
묵묵히 걸어온 진심

고집과 원칙으로 한 길만 묵묵히 걸어온 여러분이 명인(名人) 입니다.
<자인 방앗간> 박재홍 명인처럼 오늘도 푸른방송은 한 길만 걸어갑니다.

28th CS 푸른방송 GREEN CABLE TELEVISION STATION X 명인프로젝트

※푸른방송은 창사 28주년을 기념하여 '명인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중소상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www.gcs.co.kr | 053) 551-2000

北 코로나 방역 뚫렸다…첫 감염자 발생 최초로 인정

조선중앙통신 "최중대 비상사건"
김정은, 全시·군 봉쇄 지시
국경·해상 경계 더욱 강화

"비상방역사업 반드시 승리"
다음 달 상순 전원회의 소집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발생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가 1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비상방역지휘부와 해당 단위들에서는 지난 5월 8일 수도의 어느 한 단체의 유열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에 대한 엄격한 유전자 배열 분석 결과를 심의하고 최근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와 일치하다고 결론하였다"고 전했다.

이날 정치국 회의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해온 북한이 확진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국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사업단위, 생산단위, 생활단위별로 격폐한 상태에서 사업과 생산활동을 조직하여 악성 바이러스의 전파 공간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선과 국경, 해상, 공중에서 경계근무를 더욱 강화하며 국방에서 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또 "당과 정부가 지금과 같은 비상시를 예견하여 비축해 놓은 의료품 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조치를 가동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최대 비상 방역체계의 기본 목적은 우리 경내에 침습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상황을 안정적으로 억제, 관리하며 감염자들을 빨리 치유시켜 전파 근원을 최단기간 내에 없애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악성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적은 비과학적인 공포와 신념부족, 의지박약"이라며 "우리에게는 장기화한 비상방역투쟁 과정에 배양되고 다져진 매 사람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고도의 자각성이 있기 때문에 부닥치는 돌발 사태를 반드시 이겨내고 비상방역사업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마스크 착용' 처음 공개 북한 조선중앙TV는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열린 노동당 제8기 제8차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공개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회의 발언 때 마스크를 벗어 책상에 내려놨다. 김 위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북한은 중요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6월 상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尹 정부 출범 이틀 만에 도발

'코로나 발생' 공개 당일 저녁
올해 16번째 무력시위 감행
방역과 별개 '국방 강화 지속'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 당국은 사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이날 발사는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 올린 지 닷새 만이자 올해 16번째 무력시위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출범한 뒤 첫 도발이다.

이에 우리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차원의 점검회의를 즉시 개최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차원의 점검회의를 즉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회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는 다르다고 대통령 대변인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NSC 상임위원회도 통상적으로 안보실장이 주재한다.

특히 이날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다고 발표한 당일로, 코로나19 방역으로 전국적인 봉쇄 조처를 내린 상황에서 무력시위를 감행한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국가방역에 집중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국방부 강화 방침'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국가방역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핵실험 등 도발을 자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상 이같은 관측에 선을 그은 셈이다.

합참은 그간 통상 탄도미사일이 탐지되면 '1보' 형태로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라고 발표했지만, 이날은 발사체라는 단어 대신 '미상 탄도미사일'로 표현을 바꿨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천명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기조가 반영된 조처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포착된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는 정보가 있다는 연락을 방위성으로부터 받았다고 이날 오후 6시 33분 발표했다.

11분 뒤인 오후 6시 43분에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는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정보가 있다고 방위성의 연락 내용을 추가로 발표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낙하 위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규정한 수역의 바깥쪽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흑해 장악 요충지 외딴 뱀섬 쟁탈전

우크라 수복 노리고 러시아 방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흑해상 즈미니(뱀)섬을 둘러싼 전투가 치열하게 이어지면서 이 곳의 전략적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영국 BBC는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뱀섬과 흑해 통제권을 둘러싼 전투' 제하의 기사에서 뱀섬의 역사와 최근 전황, 이번 전쟁에서 가지는 전략적 가치에 대해 조명했다.

0.18㎢ 크기에 불과한 바위섬인 뱀섬은 흑해 북서쪽 루마니아 해안에서 약 45㎞, 우크라이나 본토 남단에서 약 48㎞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동구권 몰락 이후 우크라이나가 이 곳을 장악했고, 루마니아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분쟁을 겪은 끝에 2009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로 현재의 해양 경계선이 확정됐다.

러시아는 침공 직후 수 시간 만에 자국 기함인 모스크바함을 이곳으로 보낼 정도로 뱀섬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후 우크라이나 군이 끊임 없이 뱀섬 수복을 노리고 있고 모스크바함까지 침몰됐지만 러시아가 아직 방어에 성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가 올레 즈다노프는 러시아 군의 뱀섬 주둔지 강화가 우크라이나에 경제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러시아 군이 뱀섬에 장거리 방공 체계를 구축한다면 우크라이나 해안을 타격할 비행 대대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며 "나아가 그들이 흑해 서쪽과 우크라이나 남부의 육해공을 모두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는 뱀섬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넘어 몰도바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인 루마니아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다.

러시아 군은 뱀섬을 통해 몰도바 내 러시아 영향권인 트란스니스트리아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뱀섬 주변 바다에 석유와 가스 등 탄화수소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것도 이 곳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부동산

동 구

동경부동산(주)(금국연,동구744-6767/2714-0201-005006

※대구공항근 부동
2차선 2332㎡(706), 당220만
투자최고! 384, 411, 798 농지
창고 사무실 전문 053)744-6767①

달 서 구

KT부동산중개(주)(허은,달서588-0097/27290-2018-00149

★대구최대부동산★
공장전문 최우수 부동산 공장 임대, 매매
최다물건보유,전화주세요 588-0097

★프레스공장 인수
하실분(성주선남) 대2,644㎡,건561㎡
고8M, 크2.8t 1대, 프레스8대(로봇)
매매가16억5천만 010-9973-0097

★성서 공장매매★
대4900㎡, 건4,300㎡, 고5M
당460만 010-9973-0097

★성서신축공장매매
대2,446㎡, 건1,719㎡, 고9M
당625만 동력30KW 010-9973-0097

★현풍 금리 나대지 매매 자연녹지지역,공장밀집지역
대지2,492㎡(754) 당140만
투자 추천 010-9973-0097

★창녕 고암면★
계획관리지역, 토지매매, 13,474㎡
평탄작업, 당35만, 추천용도: 제조
물류, 영농법인 010-9973-0097

★왜관 소매점매매, 대1029㎡
건305㎡, 대로변
핫플레이스, 추천/산강공원다갖춘
땅,스타벅스,투썸,베이커리,스크린
골프, 당600만 010-9973-0097

서 구

(주)대동부동산(윤희문,서구564-8200)가-13-2141

창고 봉촌
대4,050㎡, 건771㎡, 보5,000
月440만出, 매가 당235만
매물접수 053) 284-0118

고령운수 전원주택
730㎡,37만 1100㎡X23만
도6M 053)284-0076

관광농원,캠핑장 수련원 매매,안의계곡접
부지46770㎡,현영업中
최고의 명당자리 053)284-0188

성주 산업단지 內 공장 대지19,800㎡
건물 3,000㎡
분할가,가격문의 010-9007-8283

月1950 빌딩부지 대492,건2710,대로코너
61억인수,약국병원인접
당2,700,대로코너
역세권, 820㎡
010-2509-9996

대지부동산(임유현,서구561-6561)27170-2016-00067

카모텔 모텔,3억인수(융하),대260
객18,주택有3 파계사,교환可
카모텔 4억인수(융하)
대270, R24
신축5년 053)561-6561

모텔,11억인수(융하)대209 R33,배관까지 올리모델링
모텔 12억인수,(융하)
룸38, 대320P
시설 및 매출 양호 053)561-6561

호텔 12억인수,(융하),대390
룸48, 준신축
모텔 13억인수 (융하)
대215, 룸36실
상가임대수입별도 053)561-6561

호텔26억인수융하대3100,R53 실,신축수준,매출120000이상
콘도,33억 인수,(융하)
최고위치, 년매출12억이상
임대수입 별도 053)561-6561

재개발 예정지
30M 코너 준주거, 2,864㎡
당 매매 1,400만
원대역 도보5분 053)719-4095

대농부동산(김영기,서구521-4949)27170-2019-00025

모텔매매 25억
대2,800㎡
객실45, 최신시설, 융.별
12억 대1,066㎡,객실35,주변
상권최상 053)521-4949

모텔매매 8억(융별)
대775㎡
객실30, 영업최상
12억 인수,대745㎡,객실30
시설최상 053)521-4949

온누리부동산(양현석,서구오이밭-공사중)27170-2020-00012

달구벌대로코너상가
초역세권 대단지앞2층상가,스크린골프,병원등 다용도,月1200만出,대993㎡,3900만/3.3㎡ 053)572-0409

연수익6%코너상가
36억/月1800出 융자無
공실無
대1425㎡,매매37억 053)572-0409

★가창 카페 음식점 90˝ 주차 30대
보1억, 月330出, 권시금3천
가창 건축가능땅 266,446㎡(8,000)
급매,당7만5천원 053)571-0413

연수익5.3%메디컬 빌딩
102억 月4,500만, 융자無
역세권 특상권, 대587㎡
건3,632㎡ 010-8896-4599

중심상업지35M코너 통상가 횡단보도앞 주상복합
대단지 초인근
대660㎡,59억 010-8896-4599

초역세권 전면최상 통상가 대565㎡,역출구앞
특급바글상권, 공실無
39억,月1,600만 010-8896-4599

코너상가감정평가 이하 초급매 대357㎡, 활발한 먹자
상권, 공실無
17억,月630만 010-8896-4599

5%일반상업 특급상가
42억 月1700만, 융자無
초 대단지앞
공실無, 대590㎡ 010-8896-4599

초역세권,통상가
50억~300억대 달서구,수성구
A급물건 다량확보중
010-4501-3935

대로 단층상가 점포 4개
[재개발] 대249㎡, 최고상권
[예정] 기대수익, 횡단보도앞
14억인수 010-9355-5056

다이소入4층통상가
보2억5천, 月1670만, 대745㎡
신축급, 20억5천인수
전속중개 010-3134-9375

★대구 최요지 상가
브랜드 본사 장기계약, 보2억
月2200만 35억인수
010-3134-9375

★달서로6차선 단층상가 대1240㎡, 명도가능, 병원
골프스크린, 사옥적지, 초
급매,당1700이하 010-3851-5504

대단지코너상가주택
9억 月330만, 2호선, 역세권
공실없슴, 대246.5㎡
건419㎡ 010-5432-9578

코너 약국 병원상가
26억 月995만, 대단지앞
재래시장 근, 대616㎡
건1534㎡ 010-5432-9578

시세보다2억싼카페
투자금15억,매13억,수려하고멋진뷰
방갈로와둘레길,당신이영화속주인
대1792㎡,건99㎡ 010-5432-9578

영천I·C 5분, 계획관리
95,000㎡, 95억
대합I·C 2분, 계획관리
10,000㎡, 65억
053)572-0408

★6억인수,月370만 급매 시장 코너, 3층 통상가, 대319㎡
유동인구완전많은정말탐
나는상권 010-9357-5675

★10억인수月760만
2호선 초역세권 신축 5층통상가
대288㎡,대단지앞대로코너,엘베有
호재지역 010-9357-5675

月300,3층상가주택
대228㎡,수익성 안정된 상가,20m
매8억3천 노후 보장 연금식
010-6435-2556

독점프랜차이즈상가
月1100 26억인수,대796.6㎡
건1411.5㎡, 대도로
코너,손님바글바글 053)572-0410

月1887出6층통상가
대674㎡, 건2578㎡, 보.융20억
인수38억 010-9760-5069

2호선코너특급상가
22억 月801만
목좋은 노다지 황금상권
대349㎡,건1022㎡010-9760-5069

(주)삼성부동산(조정현,서구568-8989)가-13-1978

月1800지하철출구접
대지809㎡, 건2,099㎡
25억 인수,동구 최요지
통상가 010-6547-4488

月4800전층병원빌딩
대943㎡, 건3,888㎡, 몽땅95억
45억 인수,5거리코너 최요지
10년임대 010-6547-4488

月1600약국병원빌딩
20억인수 대435㎡,건1425㎡
지하철출입구접
대단지Ⓐ최요지 010-6547-4488

月1억2천,전층 약국 병원 대1,977㎡,건14,500㎡
120억인수,전층약국병원입
주,지하철출입구접010-6547-4488

月2000대형마트매매
대2636㎡, 건3990㎡, 당816만
25억인수, 일매출1800만, 대단지Ⓐ
최요지 010-6547-4488

月850,몽땅19억
11억인수 대417㎡,건629㎡
대단지 정문
1층 점포5개 010-6547-4488

★역세권빌딩35억
대495㎡,건1586㎡,도로45m
月1400 出,병원,브랜드入,황금
상권 010-5328-5550

★메디컬빌딩60억
대581㎡,건2776㎡,보5억,전층병원
月2000 입점,지하철출입구앞
010-5328-5550

월세많은빌딩85억
대760㎡,건3649㎡,보6억,초역세권
月3200出 특급상권,대도로
010-5328-5550

★★칠호광장 땅★ 몽땅 백십억 최고상권
급매물 053)527-9955

月1400,3층통상가
20억 인수 황금상권
세융안고
급매물 053)527-9955

칠곡 경대병원옆 땅 매55억 1289㎡(390),35m도로
코너, 추천:병원부지
상가부지 053)568-8989(10)

특급상가 몽땅48억
대744㎡, 건1,625㎡, 月1670 出
대로코너,다이소,스크린,유명프랜차
이즈入,사정상급매 010-2234-2892

★특급상가 39억★
대980㎡, 건1470㎡, 4층, 주차완비
성서 최고위치,사정상 급매
010-2234-2892

★특급 빌딩 대1,254㎡
건5,359㎡
보증금50억, 月8,000出, 금융, 병원
약국, 프랜차이즈 입점, 최고상권
투자상담 환영 010-2234-2892

모텔 급매 대1171㎡, 방33 몽땅75억
대1251㎡, 3층통상가, 투자or재건축
용의/대302㎡, 3층상가, 주30 x 20
月560, 22억 010-8029-8118

月1억1천만˝빌딩
대1840㎡, 건11990㎡, 대로35m코너
유동인구바글바글, 로터리코너, 최요지
보.융안고, 90억인수 053)557-9770

3층 통상가
대1560㎡, 대로 30m접, 코너상가
프랜차이즈, 상가3칸, 일부는신축가능
月3300만, 56억인수 053)557-9770

신축˝요양병원
대1,500㎡, 건4, 270㎡, 대로35m접
장기계약, 병원만통사용, 평생공실無
月4,000만, 54억인수 053)557-9770

모텔˝방10개.상가2칸
3층, 직접 운영하실분추천˝합니다
수익률최고8%, 대로25m코너, 올수리
월600만+.5억인수 053)557-9770

4층상가주택 대지264㎡
건607㎡
1.2층상가7칸,신축A주통로,코너상가
올수리, 엘베유, A50평대넓은주인세대
月567만,6억3천인수 053)557-9770

3층 통상가 대지202㎡
건339㎡
도로12m아파트정문주통로최요지
인근대단지A상권,융자7억,보6천만
月370만,5억5천인수 053)557-9770

시세(감정)이하모텔
11억 (융하), 룸39실
대1,551㎡, 건2,584㎡
053)568-8989⑪

★초대단지 통상가
25억 月1160만, 1만세대
역세권, E/V, 대512㎡
건1214㎡ 053)568-8989⑪

月290,4층상가주택
대235㎡ 아파트 정문 최요지
수익성 안정된 상가
매12억5천 053)568-8989⑪

(주)대진부동산(이승열,서구566-6400)27170-2020-00017

★신축 메디컬빌딩
月9천만 보10억 안고
매150억, 대1480㎡
건물 전체 병원 053)566-4488

사거리코너5층상가
대610㎡, 건1980㎡, 月1600만
매43억5천 보2억4천안고
053)566-4488

사거리코너5층상가
보5억안고,매60억,대522㎡,건1500㎡
月1700 프랜차이즈 입점
053)566-4488

월세많은4층상가 주택
대219㎡, 도20x6M, 2호선근접
몽땅13억 月470出, 물건확실
053)556-3600

투자확실 2층 상가 주택
대149㎡, 큰길옆, 도8x4코너
몽땅6억 위치,물건,투자확실
053)556-3600

수 성 구

최선부동산(주)(우병선,수성741-0070)27260-2017-00216

★펜트하우스임대★
범어4동, 빌리브 2차 54,첫입주
지하철 역세권 신축아파트
053)741-0070

(주)경동부동산(한성구,수성1666-0577)가-16-3342

月9천出50억인수가
대4,270㎡, 건12,600㎡
통상가 (보15억,융자120억)
급매 1666-0577

현 커피숍 급매매
대지2,148㎡, 건480㎡, 당650만
10억인수가능, 임대가능, 보1억
月1,000만, 권리금無 1666-0577

19면 계속

1980년대의 삶 그에게 위로받다





김중기의
필름통

아치의 노래, 정태춘

대표작 28곡 담은 음악 다큐멘터리 18일 개봉

1979년 MBC 10대 가수상·부부 토크쇼 사전심의 철폐운동 사진 등 완성도 높아 차가운 땅에 살던 사람들 따뜻하게 안아

1980년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린다. 저 밑에 가라앉은 슬픔과 분노, 억울함이 안개처럼 떠오른다. 더 이상 물대포를 맞지 않기를, 더 이상 지하 단칸방에서 갇혀 죽은 이들이 없기를, 더 이상 시너를 머리에 뿌려 불을 붙이는 일이 없기를…. 목 놓아 외쳤지만, 이후에도 그 슬픈 안개는 걷히지 않았다.

그 시대를 견뎠지만, 여전히 생각만 해도 목이 멘다. 아마 목 어딘가에 묵직하게 각인돼 반사적으로 눈물이 흐르는 모양이다.

이런 8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가수가 있다. 정태춘(68)이다. 가슴을 울리는 서정성에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성을 담은 노래들로 우리들을 달래주었다. 그의 데뷔 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음악 다큐멘터리 '아치의 노래, 정태춘'(감독 고영재)이 개봉한다.

20대의 청년 정태춘이 서울이란 낯선 땅에 발을 내디딘다. 버스 정류장 식당에서 메밀국수를 시켰다. 어떻게 먹는 건지 몰랐던 그는 메밀을 올려둔 받침에 국물을 부었다. 국물은 식탁에 쏟아지고, 그는 부끄러운 마음에 식당을 나와 버린다. 어떻게 먹는지 물어 볼 수도, 가르쳐 주는 이도 없었다.

서울이란 곳은 그렇게 아주 낯선 이름이었다. 70년대는 '저 어둔 밤하늘에 가득 덮인 먹구름이 밤새 당신 머릴 짓누르고 간 아침'(노래 '북한강에서')과 같은 시대였다. '새벽강에 홀로 나와 그 찬물에 얼굴을 씻고 서울이라는 아주 낯선 이름'('북한강에서')을 만났다.

1978년 첫 음반 '시인의 마을'을 냈다. 이 음반에는 타이틀곡을 비롯해 '사랑하고 싶소', '촛불'이라는 불멸의 곡이 수록됐다. '시인의 마을'은 토속적 정감이, '사랑하고 싶소'는 모두에 대한 위로가, '촛불'은 김소월의 서정시 같은 간절함이 담겨, 차가운 땅에 살던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이후 2집(1980)과 3집(1982)을 냈지만 조용필의 등장과 한국 록의 시대가 열리면서 포크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음악적 진정성이 식은 것도 아니었고, 시대의 아픔이 아문 것도 아니었다. 정태춘·박은옥 부부의 이름으로 발매된 4집 '떠나가는 배'(1984), 5집 '북한강에서'(1985)는 더욱 깊어진 음악성으로 사람들을 울렸다.

특히 '북한강에서'는 안개 가득한 강물에 여윈 손을 담그고 산과 산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면 안개가 천천히 걷힐 것이라는 가사를 담고 있다. 가냘프지만, 나로 인해 세상이 바뀌는 그 강건함이 도도히 흐르는 새벽강에 비춰진다. 무척이나 시적인 가사로 시대를 상징했다.

영화는 정태춘의 대표작 28곡으로 그의 음악인생과 그가 서 있었던 그 대한민국의 시대를 그려낸다.

80년대는 늘 함께 모였다. '흩어지면 죽는다'고 노래했다. 학생운동에도 노동운동에도, 1987 6월 항쟁의 역사적인 현장에도 정태춘은 자리했다. 7집 '아, 대한민국'(1990), 8집 '92년 장마, 종로에서'(1992)에서는 정부의 대중가요 검열의 칼과 맞섰다. 검열에서 그의 노래는 늘 '순화 개작', '전면 개작' 판정을 받았다. 7집을 낼 때 검열 거부를 선언하고 비합법적인 유통을 선택했다. 급기야 8집을 낼 때 정부로부터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다. 그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가요 사전심의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영화는 2006년 고향 평택에서 미군기지 확장 반대 시위를 끝으로 음악활동을 하지 않았던 그가 다시 활동하기까지의 40년 삶을 밀도 있게 담고 있다. 고영재 감독은 그의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1979년 MBC 10대 가수상 시상식, 부부가 함께 출연한 토크쇼, 공연 자료 등과 함께 사전심의 철폐운동을 비롯한 사회 참여 현장의 사진들까지 완성도의 밀도를 높였다.

고영재 감독은 2007년 '공동체 상영'이라는 배급방식으로 개봉한 '우리 학교'의 제작자로, 2009년 '워낭소리'의 제작과 프로듀싱에 참여했으며 '아치의 노래, 정태춘'은 그가 직접 감독을 맡은 첫 작품이다.

'아치의 노래'는 2002년 앨범 '다시, 첫차를 기다리며'에 수록된 곡으로 자신의 노래가 새장 안에 갇힌 '양아치'라고도 불린 새의 노래 같다는 자조 섞인 가사를 담고 있다. 아름다운 그의 노래들이 칠순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사회의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그의 진정성과 어울려 감동을 주는 웰 메이드 음악 다큐멘터리이다. 20대 그의 목소리가 아직 여전한 것도 놀랍다. 18일 개봉 예정. 113분. 전체 관람가.

영화평론가

안개 가득한 강물에 여윈 손을 담그고
산과 산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면
안개가 천천히 걷힐 것 ♬

–노래 '북한강에서'

새 영화

민스미트 작전



감독: 존 매든
출연: 콜린 퍼스, 매튜 맥퍼딘

2차 대전 당시 히틀러를 속이기 위한 연합군의 치밀한 첩보작전을 그린 첩보 스릴러. 1943년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은 서유럽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인 시칠리아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군은 나치군의 병력을 분산시킬 첩보 작전을 계획한다. 노숙자의 시체를 구해 영국 해군 장교 마틴 소령으로 가짜 신분을 만든다. 개인적인 사진과 공연 티켓까지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시체가 독일군에게 발견되게 한다. 그리고 가짜 작전 정보까지 독일군의 손에 들어가게 만든다. 이를 통해 나치 병력이 시칠리아에서 철수하는데 성공한다. 이 작전이 바로 민스미트 작전이었다. 비밀 첩보 작전이 가지는 긴장감 넘치는 설정과 기만전술이 관객의 손에 땀을 쥐게 한다. 127분. 12세 이상 관람가.

어부바



감독: 최종학
출연: 정준호, 최대철, 이엘빈

늦둥이 아들과 철없는 동생, 자신의 분신인 배를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를 그린 코믹 드라마. 부산 해안가 포구의 멋쟁이 종범(정준호)은 어부바호의 선장이다. 철없는 동생의 느닷없는 결혼 선언과 늦둥이 아들의 첫사랑, 친구들과의 우정까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한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분신이자 아들 노마(이엘빈)에게 엄마 같은 존재인 어부바호가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할 처지가 된 것이다. '가문의 영광'과 '두사부일체' 시리즈의 배우 정준호가 주연을 맡았다. 아픔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서로 의지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가족영화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객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할 가벼운 영화다. 107분. 전체 관람가.

파리, 13구



감독: 자크 오디아드
출연: 노에미 메랑, 루시 장

파리의 아시아 타운이라 불리는 13구 지역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네 남녀의 사랑을 그린 영화다. 이제 막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독립한 노라(노에미 메랑)는 아직 사랑이 두려운 젊은이다. 엄마의 무관심 속에 홀로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까지 돌봐야 하는 에밀리(루시 장)는 사랑을 간절히 원한다. 자유 연애주의자인 카미유(마키타 삼바)와 에밀리는 첫 만남에 잠자리를 갖는다. 카미유는 직장 동료 노라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에 상처 받은 에밀리는 데이팅 앱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펼친 노에미 메랑이 노라 역을 맡았다. 네 남녀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랑을 그린 프랑스 청불 로맨스 영화이다. 105분. 청소년 관람불가.

모다페 센터스테이지 대구 '아이튜브'

국제현대무용제(MODAFE)



대구시립무용단의 '아이튜브' 공연 모습.

김성용 시립무용단 감독 안무
'댄스비전 2022' 최우수 작품상
15일 국립 해오름 극장서 공연

대구시립무용단이 국립극장 무대에 선다.

대구시립무용단은 제41회 국제현대무용제(MODAFE, 이하 모다페) '센터스테이지 오브 코리아'(Center stage of Korea-National Dance Company)에 초청받아 15일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 무대에 오른다고 밝혔다.

초청작은 대구시립무용단이 지난해 제80회 정기공연으로 초연한 '아이튜브'(itube). 지난 2월 '댄스비전 2022'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작품이다.

작품은 아주 사적인 상상에서 시작된, 생존하지만 실존하지 않는 상상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을 안무한 김성용 대구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은 "무용수들이 '아이튜브'라고 불리는 둥근 원통 속에서 펼치는 움직임을 통해, 관객들에게 한정된 공간 속 우리 삶의 모습과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보일 작품은 전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버전의 작품이다. 15일 모다페 무대에서 첫 선을 보인 뒤 다음달 열리는 대구시립무용단 제81회 정기공연을 통해 대구시민을 만난다.

모다페는 국내 최장수 현대무용 축제다. 올해 행사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Let's Feel the MODAFE Magic!'을 주제로 서울 아르코예술극장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등에서 펼쳐진다.

대구시립무용단은 2020년부터 3년간 모다페에 참여하며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엔 대구시립무용단 창단 40주년과 모다페 40주년을 맞아 대구에서 '모다페 인 대구'(MODAFE In DAEGU)를 선보였다.

모다페와 관련한 공연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odafe.org)를 참고하면 된다. 김도훈 기자 hoon@imaeil.com

유소년 합창단 '시인의 사랑' 전곡 도전

〈슈만〉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원곡 분위기 위해 전곡 독일어로 노래

하이네의 시집 '노래의 책'(1827) 중 '서정적 간주곡'에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담은 65개의 시가 실려 있다.

로베르트 슈만은 이 가운데 16개의 시를 골라 연가곡으로 만들었다. '문학과 음악의 가장 완벽한 조합', '슈만 특유의 서정성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으로 평가 받는 '시인의 사랑'(1840)이다.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 전곡을 노래한다. 14일 오후 5시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열리는 제125회 정기연주회 '합창으로 듣는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을 통해서다. 국내에서 유소년합창단이 '시인의 사랑' 전곡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대구시립예술단 측의 설명이다.

인천시립합창단 상임작곡가인 조혜영이 합창으로 편곡하고, 바리톤 공병우(전남대 교수)가 솔로 부분을 맡는다.

두 번째 무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기리는 무대 '순국선열들의 함성'으로 꾸며진다. 한명희의 시에 작곡가 장일남이 곡을 붙인 한국가곡 '비목', 19세기 말 이탈리아 농부의 노동요이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 싸우던 이탈리아 파르티잔의 저항곡으로 자유를 염원하는 이들의 애창곡이 된 'Bella Ciao'(안녕 내 사랑), 빨간마후라 등 우리나라 대표 군가를 작곡가 강한뫼가 메들리로 편곡한 '군가 메들리' 등을 노래한다.



김유환 예술감독

그밖에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악 프로젝트팀 '나봄'이 특별출연해 '희망가', '너영나영'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김유환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는 "남성 솔로 곡으로 사랑받는 '시인의 사랑'을 유소년 합창단이 노래하는 흔치 않은 연주회다. 원곡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독일어로 전곡을 노래하는 등 어린 단원들이 열정으로 준비한 무대인만큼 많은 관객들이 와서 즐기고 응원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람료는 1층 3천원, 2층 2천원. 6세 이상 관람가. 053-616-6311. 김도훈 기자

첼로앙상블로 즐기는 디즈니 OST·한국 동요



지역 활동 '솔리스트 첼로앙상블 경상'
가정의 달 맞아 어린이 곡 위주 공연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솔리스트 첼로앙상블 경상'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Children's concert(칠드런즈 콘서트)가 15일 오후 5시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린다.

솔리스트 첼로앙상블 경상은 첼로 대중화를 목표로 한 대구·부산 지역 젊은 첼리스트들의 모임이다. 송희송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단장을 맡고 있다.

송희송 단장은 "그동안 여러 과정을 함께 이겨내며 단일 악기 앙상블이라는 단점을 장점으로 극복하며 5주년 기념공연을 갖게 돼 매우 기쁘다. 지역 음악 발전을 도모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음악단체로 더욱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퍼토리로 꾸민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 '미녀와 야수', '인어공주' 등에 삽입된 OST곡과 한국 동요 '고기잡이', '섬집아기', '반달' 등을 화려한 첼로앙상블 연주로 선보인다.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곡가 박성미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OST를 첼로로 편곡한 작품도 초연된다.

송희송 단장을 비롯해 이동열, 이일세, 배원, 하세연, 오국환, 조현지, 신윤경, 우창훈, 이희수, 박민혜, 김반석 등이 출연하고 바이올리니스트 오은정이 협연한다. 지난해 TBC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한 어린이 첼로 연주자 이제은(초 6)의 연주도 만나볼 수 있다.

관람료는 1만원. 만 5세 이상 관람가. 010-8859-7738. 김도훈 기자

매일춘추

천천히



김아가다

달포 전, 우포늪 생태체험을 하고 헐티재를 넘는 길이었다. 어둑한 밤길이라 조심해서 도로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커다란 노루가 앞을 지나갔다. 뒤이어 새끼 한 마리가 자동차 불빛 속으로 뛰어들었다. 커브 길이라 위험했지만, 급정거를 했다. 앞 범퍼에 쿵 하는 소리가 들려 숨을 죽였다.

쿵쿵거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고개를 들었더니 궁둥이에 털 방울 두 개가 달린 새끼 노루가 산으로 달아났다. 녀석도 나만큼 식겁했을 것이다. 도로를 먼저 건너간 어미도 애를 태웠으리라. 로드킬. 생각만 해도 아찔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짐승 한 마리 어쩧게 되었다고 감옥 갈 일은 없겠지만, 두고두고 자책감으로 마음이 괴로웠으리라.

동물들이 위협받는 세상이다. 산을 잘라 길을 만들고 터널이 생기면서 생태계에 교란이 생겼다. 에코브릿지를 만들어 동물이 도로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해두었지만, 자연에 길든 짐승이 문명 세계에 쉬이 적응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차에 치여 죽은 생명이 땅바닥에 누워 있으면 미안하고 섬뜩한 생각이 든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멸종되는 짐승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산중에 호랑이와 곰은 아득한 옛날이야기다. 호랑이는 일제 강점기에 가죽을 쓰기 위해 일본인들이 포수에게 돈을 주어서 포획했다고 한다. 곰은 웅담을 얻기 위해 잡았다고 했던가.

환경문제의 대부분이 인간 중심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태 중심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게 되었다.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면 모든 생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생태 중심주의는 자연에 대한 모든 생물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인간과 자연의 윤리적 관계를 회복하려는 환경운동이다.

인간은 자연 전체에 대하여 보존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인간도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생명 있는 것은 다 소중하다. 산길에서 갑작스레 동물을 만나게 된다고 해도 그대로 들이받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누구나 지켜야 할 당위이자 약속이므로 단속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 숱한 로드 킬 사고 후에 세워진 대책은 서행이다. 가창에서 헐티재 가는 길이 구간 속도 40km로 조정되었다. 달리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조절되지는 않는다. 천천히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16km 초과했다고 범칙금이 나왔다.

그것 참! 속이 답답하지만, 자연을 감상하면서 천천히 운전하는 연습 중이다. 빠르게 오가면서 느끼지 못했던 아름다운 풍경이 눈 앞에 펼쳐진다. 꽃 진 자리에 생명 키운 초록이 바람에 하늘거리고, 아기 다람쥐가 쪼르르 바위 뒤에 숨어서 '까꿍' 얼굴을 내민다. 시니어문학상 대상 수상자

제2회 울릉도·독도 전국사진 촬영대회



촬영일자 : 2022년 6월 16일(목요일) ~ 18일(토요일) 2박 3일

촬영장소 : 울릉도·독도(동도 정상촬영)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참가자격 ● 전국사진 동호인 (18세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접종자)
참 가 비 ● 1인 40만원(2박 3일 승선료 및 체제비 일체포함) – 2인 1실 기준
참가신청 마감 ●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작품내용 ● 2022년 6월 16일(목) ~ 18일(토) 2박 3일간 촬영한 모든 작품
작품규격 ● 컬러 및 흑백사진 11×14 inch(장정불요), 필름 또는 디지털 촬영된 사진(디지털 5MB이상, 3024×2016 pixel이상)
출품수량 ● 1인당 4점이내
출품방법 ● 사진 뒷면에 출품표 부착(2점 이상 출품시 참가표 복사 사용가능)
참가표 예매처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지회(지회장 010 4159 7061, 사무국장 010 8563 2421)
참가비 입금계좌 ● 대구은행 504-10-253731-5 (주)매일신문사
＊ 접수시 승선명부 작성 및 여행사 보험 가입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필히 남겨주셔야 합니다.
＊ 개인사정에 의한 당일 대회 불참시 참가비 환불 불가.
출발시간 및 집결장소 ● 2022년 6월 15일(수) 23:30 포항영일신항만(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51 / 전화 054 250 8000)
접수마감 ● 2022년 7월 14일(목) 도착분
접 수 처 ● 39597 경북 김천시 김천로73-2 2층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지회 / 지회장 010 4159 7061, 사무국장 010 8563 2421

작품내용 ● 행사기간 중 촬영한 울릉도 · 독도를 국내 · 외에 홍보할 수 있는 작품
시상내용 ● **금상 1점** : 매일신문사장상 및 상금 300만원
은상 2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지회장상 및 상금 각 100만원
동상 3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지회장상 및 상금 각 30만원
가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지회장상 및 상금 각 20만원
장려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지회장상
입 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지회장상(출품수의 20%)
특별상 2점 : 경상북도 도지사상, 울릉군 군수상
심사일시 및 장소 ● 2022년 7월 16일(토) 오후 1시 매일신문사
심사발표 ● 2022년 7월 19일(화) 매일신문사 지면 및 홈페이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시상일시 및 전시일시 ● 추후통지
유의사항 ● ＊ 입상, 입선 작품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함.
＊ 입상, 입선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 동안 공익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공중 송신할 수 있음.
＊ 한국사협 경북도지회의 출판 및 공익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심사발표 후 입선, 입상 작품은 7일 이내 원본파일(디지털 5MB이상, 3024×2016pixel 이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상권취소)
＊ 행사와 관련 없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추후라도 발견될 시에는 상권이 취소됩니다.
＊ 입상자의 상금은 시상식 후 본인 계좌로 송금(원천징수 후)하여 드립니다.
＊ 다수 입상, 입선작 중 1점이라도 상권포기 또는 취소될 시에는 해당 작품과 관계없이 모두 상권이 취소됩니다.
＊ 출품작 중 낙선작은 3개월 이내 폐기함. 응모자가 반환을 요구 시 반환에 드는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함.
＊ 본 행사는 국내여행 약관규정을 적용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행사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지회 지회장 010 4159 7061, 사무국장 010 8563 2421

주최 매일신문사 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지회 후원 경상북도 · 울릉군

현실 되돌려

한번 뿐인 내 인생,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실현시켰다



정덕현의 **엔터 인사이드** SBS 금토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

만일 다시 시간을 되돌려 살 수 있다면 그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바꿔나갈 것인가. SBS 금토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는 이른바 '인생 리셋'을 꿈꾸는 이들의 판타지를 자극한다. 다소 뻔할 수 있는 열혈검사의 복수극이 달리 보이는 이유다.

권력자에 대항하다 죽음 이른 검사
저승사자 나타나 다시 살 기회 줘
시간 되돌려 인생 하나하나씩 바꿔
검찰 개혁·국정농단 응징까지 이뤄

더 막장인 현실에 갑갑한 시청자들
판타지 속 '리셋' 통해 카타르시스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SBS 금토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는 첫 회에 주인공 김희우(이준기) 검사가 죽을 위기에 처한다. 강직한 검사로서 정재계는 물론이고 대통령마저 쥐고 흔드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조태섭(이경영)을 끝까지 밀어붙이지만 결국 그가 사주한 이들에 의해 건물 옥상에서 추락하게 되는 것. 즉, 주인공의 죽음으로 문을 연다는 점에서 '어게인 마이 라이프'의 이야기는 파격적이다.

그런데 그 순간 저승사자가 나타나 김희우에게 또 한 번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김희우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로 되돌려진다. 되살아난 그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이 살아있는가를 확인한 일이다. 그의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하지만 김희우는 부모님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고 교통사고가 벌어진 날 이를 대비함으로써 죽을 위기에서 부모님을 구해낸다. 이 에피소드는 시청자들에게 하나의 정보를 준다. 되살아난 김희우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어찌 보면 저승사자가 등장하는 다소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판타지는 '어게인 마이 라이프'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결코 벌어질 수 없는 판타지가 초반에 등장함으로써 이 드라마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펼쳐나갈 거라는 예감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주는 실망감을 단번에 넘어서는 건 다시 산다는 '인생 리셋'의 강력한 판타지다.

"천천히 준비해서 완벽하게 옮아매세요." 저승사자가 말한 것처럼 김희우는 단번에 날 수 있거나 괴력을 갖는 그런 초능력을 갖게 된 게 아니다. 그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따라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하나 준비해나가야 한다. 고시 공부를 통해 검사가 되고, 제 몸을 지키기 위해 격투기로 몸을 단련시키며, 조태섭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금을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마련해나간다. 초능력은 아니지만 이미 한 번 겪은 세상이라는 건 그에게 그만한 능력으로 작용한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타날 결과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라면 지금 어떤 다른 선택을 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서다.

이처럼 다소 황당해 보이는 판타지 드라마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건 성장의 사다리가 끊긴 사회, 태생적으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현실 속에서 이른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을 말하는 세태들이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주어진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완전히 삶을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인생 리셋'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는 이뤄지기 어려운 꿈이지만, 그렇기에 이를 드라마로 구현해낸 '어게인 마이 라이프'의 몰입감은 커진다. 김희우의 인생 리셋에 대리 만족 하고픈 욕망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판타지 속 현실의 그림자

동명의 웹소설이 원작인 '어게인 마이 라이프'는 그 이야기 구조가 무협지를 닮았다. 건물 옥상에서 떨어지는 김희우가 그 순간에 저승사자로부터 다시 살 수 있는 기연을 얻게 되는 건 무협지에서 그토록 많이 다뤄지는 절벽 추락 에피소드를 떠올리게 한다. 결국 극한에 몰려 절벽에서 추락하지만 그 곳에서 만난 기연으로 오히려 내공과 무공을 얻어 되돌아오는 에피소드가 그것이다.

되살아난 김희우가 천하그룹의 딸 김희아(김지은), 김석훈(최광일) 지검장의 혼외자 김한미(김재경) 그리고 고교동창이자 선배검사인 김규리(홍비라) 같은 여성들의 도움과 지지를 받는 상황이나, 조태섭에 복수하기 위해 법학과 선배이자 친구인 이민수(정상훈) 검사, 강직한 성품 때문에 지방으로 밀려난 전석규(김철기) 검사는 물론이고 부동산 경매의 살아있는 전설 우용수(이순재), 영향력 있는 정치인 황진용(유동근), 전국구 싸움꾼 이연석(최민) 같은 인물들을 하나하나 측근으로 끌어들이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무협지 서사에서 기연과 인연을 얻어 점점 자신의 세력을 불려가는 이야기는 '어게인 마이 라이프'에서는 김희우 검사가 조태섭이라는 절대 권력과 대항하기 위해 자기 편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재해석된다.

물론 이러한 무협지 서사가 갖는 판타지의 힘을 무시할 수 없지만, '어게인 마이 라이프'는 여기에 만만찮은 현실의 그림자를 더해 넣는다. 그 대표적인 건 조태섭을 무너뜨리기 위해 먼저 해야 하는 검찰개혁이다. 조태섭 라인인 김석훈 중앙지검장과 그 측근들인 장일현(김형묵) 검사, 그리고 최강진(김진우) 검사가 보여주는 부패는, 현재 대중이 갖고 있는 검찰조직에 대한 불신이 투영되어 있다.

장일현은 기업의 상납을 받아온 '스폰서 검사'고 사귀던 국대예술재단 성진미(박나은) 이사장의 비리를 덮어주는 일도 해온다. 최강진 검사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SHC엔터 소속 연예인들을 동원한 성상납과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병역비리를 저지르는 인물이다. 김희우는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김석훈 지검장 라인인 척 접근하고 전석규와 함께 이들을 하나하나 척결해나간다. 무협지 같은 판타지 서사를 가져오면서 그 소재로서 현실적인 그림자를 더함으로써 드라마의 극성을 높인 것. 현실에선 결코 쉽지 않은 검찰개혁 같은 일들을 척척 해나가는 김희우에게서 시청자들은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

◆현실성 깨서라도 얻고 싶은 판타지

사실 SBS가 금토드라마라는 편성시간대에 일관되게 세워놓은 작품들은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다. 현실보다는 판타지를 그리고, 이야기의 깊이보다는 당장의 사이다를 주는 드라마가 그것이다. '열혈사제'부터 '모범택시', '원 더 우먼' 같은 일련의 작품들이 그렇다. 이러한 판타지는 그 성격상 일정 부분의 현실성이 깨지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비현실적이라 느껴지긴 하지만, 그것보다 당장의 판타지를 보고픈 갈증이 더욱 강력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주말저녁을 보내고픈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어게인 마이 라이프'도 이러한 SBS 금토드라마의 흐름 위에 있는 판타지 드라마다. 복수를 위해 우연히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마음을 얻는 주인공의 서사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라 믿기 어렵지만, 드라마는 시청자가 원하는 이야기를 위해 기꺼이 그런 우연을 만들어낸다. 어찌 보면 작위성이 드러나는 막장드라마들이 쓰는 방식이지만, 요즘처럼 사는 일이 갑갑한 시청자들에게는 이런 전개가 주는 시원함이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괜한 현실성과 진지함 같은 게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라마를 보면 한없이 시원했던 그 판타지의 쾌감은, 거꾸로 말해 현실의 갑갑함이 얼마나 철옹성처럼 깨지지 않을 정도로 공고한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김희우 검사가 검찰개혁을 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조태섭 의원을 응징하는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건, 저승사자를 만나 죽을 위기에서 되살려지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정도가 벌어져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니 말이다. 판타지 드라마를 볼 때마다, 그 시원함에 숨겨진 갑갑함이 느껴지는 이유다.

대중문화평론가

법인부동산

수 성 구

(주)경동부동산(한성구,수성1666-0577)가1-16-3342

★나대지 급매매
대지606㎡, 건265㎡, 9억5천
당520만 15m도로접 1666-0577

침산동 최요지 아파트 상가
급매, 1층50㎡, 2층330㎡,커피숍 및 프랜차이즈 최적지, 17억5천
융80%可, 5억인수가 1666-0577

남산동 나대지 급매
대330㎡, 건125㎡, 신축하기 좋은 부지, 재개발 지역투자, 13억7천
융80%가능 1666-0577

신천동 최요지상가 부지
대1,285㎡ 당3,300만, 대도로변접
인근대단지ⒶⓅⓉ단지 1666-0577

수성구 전면 좋은 상가부지
대1214㎡, 당1900만, 아파트 도로접
네모반듯한땅 1666-0577

♥법인·일반부동산 문의♥
☎ 053) 656-4448
FAX 053) 656-1118
대구은행 065-13-147595 (주)매일신문사

일반부동산

북 구

▣더블리치공인(김태동,북구)가1-15-2290
스크린 운영상가 건물 매매
580㎡, 최신8대, 매출4천이상 인수9억, 오토운영
순수익 32% 010-7437-5535

달 서 구

▣유성부동산(김기원,달서)27290-2019-00205
성서 공장 매매
대2,500, 건2,100, 30M도접 고10M, 신축수준
010-3502-7932

▣동우부동산(류진수,달서)27290-2018-00152
★창녕 모텔급매★
보9천 月430, 직영시 보4천 月 천만원
매9억5천 010-9995-2299

계대동문앞 원룸
대65.8, 건112, 12가구, 보2500
月400出 공실無, 매매6억 010-4507-7849

동 구

▣모두부동산(안근희,동구)27140-2020-00130
단층 상가 신축
대188㎡
月210만 몽땅8억8천 아파트입구 급매
053)942-4080

▣스타랜드공인(김자홍,동구)27140-2020-00009
★동대구 I·C 근★
8차선접, 137″, 자연녹지
당1150만원
010-5298-3557

▣금상부동산(홍세호,동구)27140-2018-00149
동촌유원지최고요지 대형모텔 2,376㎡
3.3㎡당1,800만원 053)984-3450

금탑부동산(박정자,동구)27140-2016-00053
신축창고 팔공I·C 10분
면적다양 대출확실
상담환영 053)964-4849

수 성 구

▣유명공인(박성현,수성)27260-2016-00126
月5500만 出, 100억(보10억 대출70억 안고)
지하철 역세권, 명품브랜드, 프랜차이즈, 최고상권, 유동인구 최상
수성구요지 010-3701-0772

月4680만出 총150억 (대출80%可)
수성구 통상가,고급 ⒶⓅⓉ 밀집지역 상업지역,건4982㎡,프랜차이즈,학원 대기업,핵심요지 010-3701-0772

月1100만出,매35억
대지628㎡, 건물1,256㎡
프랜차이즈, 학원, 사무실, 대단지 아파트, 상권좋고 010-3701-0772

▣리더스트럼프(노유진,수성)27260-2017-00196
月350出,7억 1층 68㎡
세븐편의점, 최요지 수성구 역세권 10월입주 구분상가, 보1억+융4억 5000안고 053)768-9000

月950出,20억 대522㎡ 건1295㎡
수성구 코너 APT대단지 상권 식당, 요양복지타운, 학원
보2억+융15억안고 053)768-9000

▣동진부동산(권영철,수성)가1-16-3703
매110억 보3.5억 융60억
月3,200만出 달구벌대로 코너
대지넓음 010-3509-4725

매11억5천 보5천,月300出 1층상가,범어동
최요지 지하철연계
사실상백화점상권 010-3509-4725

매20억 보7,500만, 융12억 7.25억인수
月500만出 대단지 코너
병원건물 010-3509-4725

동남부동산(沈宗望,수성761-7501)가1-16-1501
대로접 코너 빌딩
대576㎡, 건3,890㎡, 상업지역
몽땅80억 보10억,月2,700 010-2714-1155

수성구 역세권 4층 상가
대162㎡, 건540㎡ , 역세권
보1억, 月460出, 공실無
몽땅15억5천 010-2714-1155

月1100만出,매35억
대지628㎡, 건물1,256㎡
프랜차이즈, 학원, 사무실, 대단지 아파트, 상권좋고 010-3701-0772

※평화 시장 인근,프랜차이즈 인수 하실분,최고자리
※月700出 통상가 대구역 인근
세.융안고, 15억 010-9219-0481

★月1900,몽땅58억
상업지역600㎡,병원최적,대로코너접 역출입구, 대단지Ⓐ입구, 유동인구多 핫상권,공실無,E/V 010-6630-8648

月1300 전층병원약국,역,대로접 중구중심상권,인수30억
月700 수성구,ⒶⓅⓉ대단지입구 유명체인점,공실無,E/V
대85″,매23.5억 010-6630-8648

月550 대로코너,대단지Ⓐ앞상가 학원건물, 공실無, 매23억
月400 수성구, 대단지ⒶⓅⓉ앞 학원, 통상가, 매17.5억
010-6630-8648

月380出수성구상동 신축 상가주택, 종상향지역
대234㎡, 인수3억3천
053)762-6688

月350出, 수성구 상가 주택
신축, 대185㎡, 신축역세권, 2차선접
매14억5천 인수2억2천
053)762-6688

月955出남구통상가
6차선접, 대구교대역세권, 대327㎡
매매35억 자부담18억5천만
053)762-6688

대광부동산(이상현,수성)(010)86442066)27260-2018-00006
다이소빌딩月2,500
대650㎡, 건1,500㎡
30억인수 053)214-8816

月2500최요지상가
삼면코너, 최고의 상권, 대209, 건1100
인수26억 053)742-8383

황금부경부동산(정자혜,수성)27260-2021-00122
스타벅스+병원
대466㎡, 건903㎡, 코너, 月905만
20억 최고의 상권
053)762-6100

수성구 병원 약국
月2000 대로, 대단지, 공실無 급처분
세든안고 33억 010-5683-6100

희망부동산(추장우,수성)27260-2018-00150
★스타벅스 건물
매85억,月2500만
수성구 최고상권 010-7668-5709

달 성 군

▣다산들공인(박영수,다산)47830-2020-00005
공장 매매, 대366, 건120
당125만
나대지 117″, 몽땅8천만
땅 계획관리, 531, 대형차입 당25만 054)955-4949

▣한국공인중개사(엄진섭,달성군)가18-321
달성1,2차/국가산단/테폴 공장매매 / 임대 공장전문
경력20년 010-4504-6532

▣현대공인(김영근,가창)27710-2020-00069
가창 자연녹지, 허가有
562㎡(170), 당160만
카페부지 27,000㎡(8,200) 당8만원
010-6415-0051

경 산 시

아주부동산(이재용,경산)47290-2021-00081
※진량4차물류부지
대6,611㎡, 위치 최상
당230만 053)815-8000

※물류창고 IC근접
대3,966㎡, 건2,100㎡, 층고10M
당245만 상태최상 053)815-8000

동구창고부지10M접
대1276㎡, 1종일반주거지역
당365만 혁신도시 근처 053)815-8000

※조야동 공장,창고
대1084㎡, 건430㎡, 당550만
신축동구공장, 대843㎡, 건370㎡
당390만 053)815-8000

※경산월드컵도로접 물류,공장
대1497㎡ 건879㎡,사무실
기숙사, 당185만 053)815-8000

압량 2차선 도로접
계획관리, 4,900㎡, 당75만
주변 시세보다 완전 저렴, 급매
건축, 다용도가능 010-9844-4343

수성구 35M 도로접
1920㎡(580), 건물있슴
교통량 많고 위치좋음
당340만 010-9844-4343

물류 창고 산업단지 반야월
공장 와촌, 대지700″, 건물150″ 매매, 당150만, 신축건물
010-9468-5022/ 010-3502-0322

고 령 군

▣양지공인(권영희,다산)가-4244-000049
★다산 준주거 공장
급매,대674,건324,고12.5M(10x8도접)2002년준공,입주6개월여유,물류창고추천,금액협의010-2878-8945

현대공인중개사(조경식,고령)47830-2020-00004
동고령 IC 2분거리
신축공장 500~ 면적 다양
추레라진입, 도로 8M, 대출80%이상 054)956-9080

합 천 군

해인사IC 급매 전원 주택지
주변이 맑고, 물이 맑고, 공기가 맑고 남향,전기,물,경계석축 170~300면적 다양,7필지 당30만010-7379-9900

법인등록 구궁태극성명 명장
● 대법원 등기, 문화제청 허가
● 구궁 · 태극성명협회 중앙회장
● 이름덕에 산다 태극성명 12진법 저자
● 아호, 상호, 기업명, 신생아 작명, 개명
● 불행을 행운으로 바꾸어 주는 특수비법으로 개명하여 줌(상표 특허출원)
● 노벨문학상 후보 추천
● "독도 찬가" 작사 손기복, 동동동대구역 작사

대구 수성구 상동 152-60 극락사
손기복 시인 053-767-1440 010-3516-6730

제사를 모셔 드립니다
"제사는 조상님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주신 은혜의 보답이며 효의 근본입니다."

신행상담 / 49제 / 천도제 / 구병시식
대구앞산 성불사 : 053-626-7969

김동엽 방망이가 꿈틀거린다

삼성라이온즈 김동엽의 거포 본능이 꿈틀대고 있다. 2경기 연속 3안타 이상을 친데다 홈런까지 곁들이며 매서운 타격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SSG랜더스와 경기에서 삼성은 홈런을 주고받으며 10회 연장 치열한 타격 승부 끝에 6대5 대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김동엽은 1대5로 끌려가던 8회 오재일의 투런포에 이어 솔로 홈런을 보태며 1점차로 따라붙었고 9회 피렐라의 동점 솔로포가 더해지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연장 10회 1사 주자 1루에서도 김동엽은 좌전 안타를 때리며 팀 득점 찬스를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됐다. 홈런을 포함해 이날 4안타를 친 김동엽은 전날 SSG전에서도 팀은 패했지만 3안타를 쳐내며 물오른 타격감을 선보였다.

앞서 김동엽은 지난 4월 21일 NC전부터 5월 5일 NC전까지 10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기록하고 있을정도로 전성기의 타격감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SSG와 3연전서 7안타 몰아쳐
지난해 부진 씻는 절정 타격감

삼성 4대2로 이겨 위닝시리즈
원태인 7이닝 2실점 시즌 3승

이틀간 7안타 경기를 치르며 김동엽의 시즌 타율은 0.311로 3할대 타율까지 올라갔다.

2019년 SK와 삼성, 넥센히어로즈의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 삼성 유니폼을 입은 그는 2020년에도 20개의 홈런을 쏘아올리며 반등을 예고했지만 지난해는 69경기 출전, 타율 0.238 4홈런 24타점에 그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올 시즌이 개막하기 전 비시즌 때부터 삼성 코치진에서는 김동엽의 반등을 기대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묵묵히 훈련하는 모습에 그 기대를 보인 것.

김동엽 역시도 '꾸준함'을 강조했다. 그는 "한 경기 4안타보다는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아프지 않고 매 경기에 나서다 보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활약을 지켜본 허삼영 삼성 감독 역시 "지난해보다 멘탈적으로 더 좋아진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의 타격 밸런스를 계속 이어가줄지 지켜봐야 한다. 팀 내에서 가장 잘한다면 출전 기회는 보장된다. 그 기회 속에 일관성을 보여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12일 대구 SSG전에서 삼성은 신인 이재현의 홈런포 등에 힘입어 4대2로 승리하면서 위닝시리즈를 달성했다. 선발 원태인은 7이닝 6피안타(1피홈런) 5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3승째를 챙겼다. 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전국장애학생체전 경북서 4일간 열전

지역 선수단 190명 15개 종목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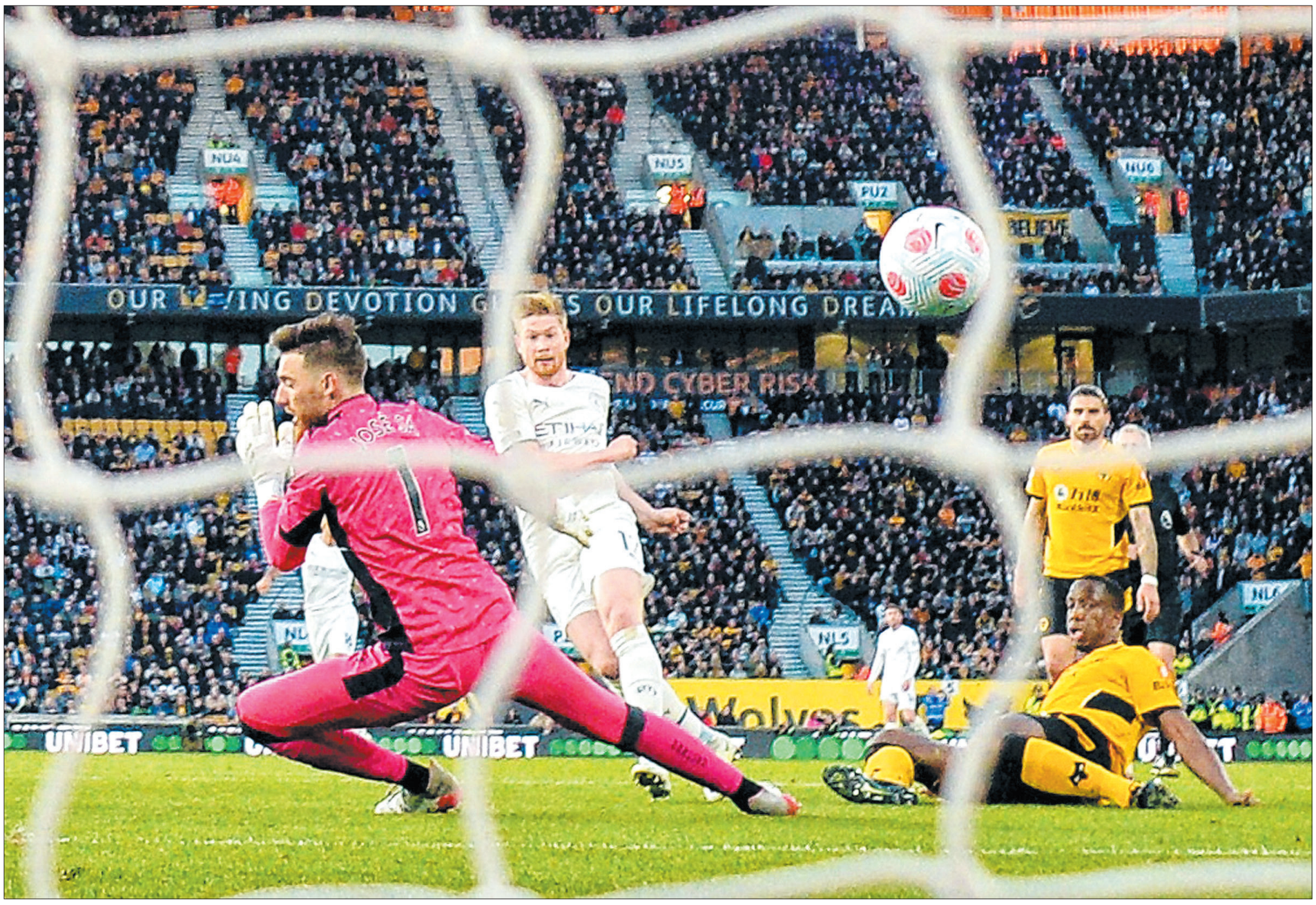
제1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경북에서 개최된다. 경북에서는 처음 열리는 대회다.

경북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17개 종목에 총 3천96명(선수 1천425명, 임원 및 관계자 1천671)이 참가해 4일간 열전을 펼칠 예정이다.

경북은 육상 등 15개 종목에 190명(선수 112명, 임원 등 7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특히 농구 등 단체종목에서도 우수선수 보강을 통해 전력이 한층 높아진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개회식은 '열린 마음으로 희망을, 도전하는 마음으로 미래를'이라는 주제로 17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리며 새로운 시대에 도전을 꿈꾸는 장애인들을 위한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의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방역TF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방역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종근 경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장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작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대회도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만전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우정 기자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브라위너(왼쪽에서 두 번째)가 두 번째 골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이게 위너다! 4골 원맨쇼 펼친 더브라위너

맨시티 1승 더 올리면 EPL 2연패
황희찬 출전 공격포인트 못 올려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4골 원맨쇼'를 펼친 케빈 더브라위너를 앞세워 황희찬이 교체 출전한 울버햄프턴 원더러스를 완파하고 프리미어리그(EPL) 2연패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맨시티는 12일(한국시간)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022시즌 EPL 33라운드 순연 경기에서 홈 팀 울버햄프턴을 5-1로 크게 이겼다.

선두 맨시티(승점 89·28승 5무 3패)는 2위 리버풀(승점 86·26승 8무 2패)과 격차를 승점 3으로 벌렸다.

맨시티(+72골)는 골 득실에서 리버풀(+65골)에 7점 차로 앞서 남은 2경기에서 1승만 더 올리면 우승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맨시티는 무려 4경기 연속으로 4골 이상을 넣는 막강한 화력을 과시하며 리버풀과의 막판 우승 레이스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더브라위너가 경기 시작 24분 만에 해트트릭을 작성하고 총 4골을 넣으며 맨시티를 리그 2연패 고지의 9부 능선까지 견인했다.

실바는 전반 7분 베르나르두 실바의 침투 패스를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선제골을 뽑았다. 울버햄프턴이 4분 뒤 레안더르 덴동커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지만 거기까지였다.

더브라위너는 전반 16분 동료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나오자 재차 슈팅해 2-1을 만드는 결승골을 뽑더니, 8분 뒤에는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예리한 왼발 중거리 슈팅을 날려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더브라위너는 후반 15분 골지역 정면에서 4-1을 만드는 추가골까지 넣었다.

라힘 스털링이 후반 39분 맨시티의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주앙 칸셀루의 슈팅이 상대 수비를 맞고 굴절되며 문전으로 흐르자 스털링이 빈 골대에 슈팅해 득점했다.

황희찬은 후반 27분 라울 히메네스와 교체되며 투입돼 20여분간 그라운드를 누볐으나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후반 45분 골지역 오른쪽 사각에서 과감하게 때린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힌 게 아쉬웠다.

올 시즌 EPL에서 5골 1도움을 올린 황희찬은 최근 8경기 연속으로 골이나 도움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서 로드 FC 역대급 매치 김현우·양지용 4연승 쟁탈전

14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굽네 ROAD FC 060' 매치가 열리는 가운데 김현우(20·팀피니쉬)와 양지용(25·제주팀더킹) 중 4연승의 주인공이 누가 될 지 관심이 모인다.

나란히 3연승을 달리고 있는 김현우와 양지용은 4연승 쟁탈전에서 우위를 점치기가 어려울 만큼 역대급 매치가 될 전망이다.

세계격투스포츠협회(WFSO) 지부장들의 분석도 양분되고 있다. 김태인 지부장은 "힘에서는 김현우가 앞설 것 같고 타격의 유연함에선 양지용이 앞설 것 같다. MMA로 장기전으로 간다면 김현우가, 타격전에서는 양지용이 유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서보국 지부장은 "양지용은 사우스포에서의 타격이 날카롭고 까다롭지만 김현우의 화력이 더 강할 것이라 보고 있어 김현우의 우세가 예상된다"고 했다. 김우정 기자

손흥민 vs 네이마르

브라질, 내달 2일 한국 평가전 명단 발표…호화 라인업 속 골잡이 대결 주목

'최강' 브라질 축구대표팀이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를 비롯한 호화 라인업으로 한국 원정길에 오른다.

브라질축구협회는 11일(현지시간) 6월 A매치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 브라질은 내달 2일 한국, 6일 일본과 차례로 원정 평가전을 치른다.

현역 브라질 A매치 최다 득점자(71골)인 네이마르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네이마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경쟁에 나서는 등 최고 공격수로 떠오른 손흥민(토트넘)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골잡이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네이마르를 비롯해 올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 14골·12도움을 올린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레알 마드리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8골·9도움을 기록 중인 가브리엘 제주스(맨시티) 등 호화 공격진이 총출동한다.

골키퍼 알리송(리버풀), 미드필더 카세미루(레알 마드리드), 수비수 티아구 실바(첼시) 등 다른 포지션도 최정예로 꾸려졌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에 이번 브라질과 평가전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하는 고난도 모의고사가 될 전망이다.

벤투호는 6월 A매치 기간(5월 30일~6월 14일) 브라질, 칠레(6일), 파라과이(10일)를 차례로 상대한다. 총 4경기를 치를 예정인 가운데 마지막 경기 상대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브라질축구협회는 6월 11일 호주에서 치를 예정이던 '라이벌' 아르헨티나와 평가전이 아르헨티나 측 사정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선수 출신으로 브라질 대표팀 운영팀장을 맡고 있는 주니뉴 파울리스타는 "아르헨티나전 취소로 카타르 월드컵 준비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대신 아프리카 팀과 경기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유럽팀과 경기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카메룬, 스위스, 세르비아와 G조에 속해 있다. 연합뉴스

女배드민턴 "기다려 일본" 세계단체선수권 4강 진출

한국 배드민턴 여자 대표팀이 8회 연속 세계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 4강에 올랐다.

여자 대표팀은 12일(이하 한국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2 세계여자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 8강전에서 덴마크를 3-0으로 제압했다.

대표팀은 단식 1경기에 안세영(삼성생명)을 내세워 기선 제압에 성공한 뒤 복식 이소희-신승찬(이상 인천국제공항)과 단식 김가은(삼성생명)이 연이어 승리하면서 덴마크에 완승했다.

이로써 대표팀은 3위에 올랐던 2008년 대회 이후 8회 연속 4강 진출에 성공했다. 대표팀은 4강에서 일본과 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연합뉴스

제4기 1차년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기간 : 2021. 01. 01. - 2023. 12. 31.

| 전문병원 지정현황 |

지정분야	기관명칭	주소·전화번호
뇌혈관 질환 대구·경북 뇌혈관질환 전문병원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굿모닝병원**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대구 남구 성당로 224 (대명동) ☎053)620-9100
척추 보건복지부 척추전문병원 4회 연속 지정	**우리들병원** 척추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48 ☎ 053)212-3000
척추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참조은병원** 신경외과, 정형외과, 척추관절 통증센터, 마취통증의학과, 내과, 영상의학과	대구 달서구 월배로 404 ☎ 053)630-8000
화상 4회 연속 대구·경북 화상전문병원 지정	**푸른병원** 화상외과, 내과, 정형외과, 유방·갑상선외과, 마취과	대구 중구 태평로 102 ☎053)471-2800

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난이도 높은 치료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좋은 병원을 선택하는 현명한 방법!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
체계화된 진료시스템
=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계명대, 우크라이나 난민 성금 10만달러 폴란드에 전달

계명1%사랑나누기·대학교회
동산의료원·선교복지회서 마련
대표단 "난민들 모습 가슴 아파"



계명대와 동산의료원이 폴란드 크라쿠프 시립복지센터에 10만달러의 성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손대구 동산의료원 대외협력처장, 야첵 크라쿠프 시장, 김선정 계명대 국제처장. 계명대 제공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와 계명대 동산의료원(원장 이세엽)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구호를 위해 성금 10만달러(한화 약 1억2천800여만원)를 폴란드 크라쿠프 시립복지센터에 전달했다.

구호 성금은 (사)계명1%사랑나누기와 대학교회에서 5만달러, 계명대 동산의료원과 (사)동산의료원 선교복지회에서 5만달러를 각각 마련했다.

폴란드 현지시간으로 10일 오전 계명대 성금 전달 대표단은 크라쿠프 시청에서 성금 전달식을 열었다.

전달식에는 야첵 마즈크로프스키(Jacek Majchrowski) 크라쿠프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현지 언론사들이 모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야첵 크라쿠프 시장은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줘 너무 감사하고 놀랍다"며 "폴란드로 이주해 오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수용이 한계 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크라쿠프시의 체육관, 쇼핑몰 등을 난민 시설로 이용하고 있어 난민들을 위한 시설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계명대의 성금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밝혔다.

대표단은 피난민들이 머무는 크라쿠프시 내 갤러리아 프라자 난민소를 직접 찾았다. 갤러리아 프라자는 쇼핑몰인데 난민들을 위해 1즈워티(PLN·한화 280원)를 받고 크라쿠프시에 팔아 이곳을 난민소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단장인 김선정 계명대 국제처장은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것으로 보이는 남매 3명이 난민소 한쪽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막상 난민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가족들끼리 서로 헤어져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보며, 전쟁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성금이 이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돼 일상을 회복하고 치유되길 바란다"며 "우리나라 역시 전쟁을 겪어 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현재 상황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성금은 계명대 특임교수인 폴란드 크라쿠프 야기엘로니아 대학교 레나타 체칼스카(Renata Czekalska) 교수가 우크라이나 전쟁고아들의 힘든 상황을 전하는 등 구호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러시아군의 민간 기반시설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접경지역인 폴란드 크라쿠프 지역으로 피난민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폴란드 정부는 크라쿠프 지역에 우크라이나 전쟁고아들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과 전문 보육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서광호 기자 kozmo@imaeil.com



대구시-시교육청 '다문화 교육 코디네이터 보수교육'

다문화가족에 최신 교육정보 제공

대구시는 12일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다문화 교육 코디네이터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코디네이터와 구·군 가족센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코디네이터 활동에 필요한 최신 교육정보를 습득했다. 보수교육은 사업 매뉴얼 안내, 자녀 지원사업 안내,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 견학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언어 차이와 정보 부족 등으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도움을 주고자 대구시는 2017년부터 결혼이주여성들로 구성된 '교육 코디네이터'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모국 후배들에게 출신국 언어로 학교 교육 및 양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통신문 등 안내문 번역도 지원한다. 현재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일본, 우즈베키스탄 등 출신 39명이 활동하고 있다.

구현옥 대구시 여성가족과장은 "대구시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이 교육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구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자녀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채근 기자 mincho@imaeil.com



대한노인회 "디지털 뉴딜 시대 스마트 경로당 열자"

대구서 '핵심지도자 역량 강화교육'

(사)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12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8개 구·군 지회장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핵심지도자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핵심지도자 역량 강화교육은 대한노인회에서 16개 시·도연합회를 순회하며 지역 연합회장 및 지회장들에게 경로당 활성화 중요성과 디지털 뉴딜 시대에 맞는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핵심지도자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2022년 지역사회 노인 지도자로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주시고 대한노인회의 근간이 경로당인 만큼 디지털 뉴딜 시대에 걸맞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모두 적극 동참하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장기 대구연합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구 지역 1천530여 개 경로당 42만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 경로당 모형으로 변화시키는 데 지회장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노인회 정책위원인 김동진 ㈜제이엠 로보틱스 대표이사는 스마트 경로당의 개요, 스마트 경로당 플랫폼 운영 계획, 디지털 일자리 등에 대해 강의해 교육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석 기자 dotory@imaeil.com



경북개발공사, 현장 근로자 '안전퀴즈대회' 열어

예천소방서 소방안전 교육도

경북개발공사는 최근 건설공사 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안전퀴즈대회는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캠페인으로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올해 확대해 진행 중이다.

참가자 중 끝까지 문제를 맞힌 최후 3인에게는 특별 상품도 전달됐다. 아울러 경북개발공사는 예천소방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현장 근로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응 요령과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 등 소방안전 교육도 진행했다.

김영진 기자 solive@imaeil.com



금오공대-美 공군연구소 국제 연구 협력 세미나

금오공과대학교와 미국 공군연구소(AFRL)는 12일 금오공대 회의실에서 국제 공동연구 협력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미 공군연구소의 토니 킴 국제 프로그램 책임자를 비롯해 미 공군·육군 관계자, 금오공대 교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니 킴 책임자는 금오공대와 미 공군 연구소가 진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대학 내 우수 연구자들과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연구 과제의 킥오프 미팅과 함께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이창희 기자 lch888@imaeil.com



포항성모병원 전문 진료과 협진
'코로나 후유증 회복 클리닉' 개설

포항성모병원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후유증 회복 클리닉'을 개설했다.

병원 측은 호흡기내과와 감염내과를 중심으로 신경과·심장내과 등 전문 진료과가 함께하는 클리닉을 구축하고 환자 치료에 본격 나섰다.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는 병원 방문 전 전문 코디네이터와 상담 후 증상에 따라 해당 진료과를 찾아 치료받으면 된다. 박승혁 기자



대구여성가족재단-대구시청년센터
젠더 폭력예방 문화 조성 교류 협약

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은 11일 젠더 폭력예방을 위해 대구시청년센터와 상호 교류 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스토킹 등 젠더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청년들의 인식 개선 및 폭력예방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구미 한우協 '사랑의쉼터'에 한우 300만원 상당 나눔

전국한우협회 구미시지부(지부장 이성희)는 12일 구미 도개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사랑의쉼터에 300만원 상당의 한우를 전달했다. 이성희 지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생활을 해온 사랑의쉼터 가족들에게 한우인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수성대-대구식품협회 '산업 인재 양성' 협약

수성대학교(총장 김선순)와 (사)대구식품협회(회장 김성열)는 11일 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지역의 미래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대성에너지 '대성 아카데미 서부 트레이닝센터' 개소

대성에너지는 11일 대구 서구 이현동 서부지사에서 임직원 직무역량 교육 강화를 위한 사내 교육장 '대성 아카데미 서부 트레이닝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수성구새마을부녀회 '사랑의 이불' 46가정에

대구 수성구새마을부녀회(회장 권순애)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함께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 46가정에 사랑의 이불을 전달했다.



(사)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가온길봉사단 발대식

대구 남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봉기)는 12일 남구의회에서 (사)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가온길봉사단(회장 김혜주)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봉화경찰서, 농번기 절도 범죄 예방 설명회

경북 봉화경찰서는 11일 봉화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마을 이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번기 절도 범죄 예방 등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옥열 화신 회장 계명대 명예공학박사에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는 11일 계명대 성서캠퍼스 동천관 국제세미나실에서 김옥열(사진 오른쪽) ㈜화신 회장에게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김옥열 회장과 샤픽 하샤디 주한모로코왕국 대사, 문신자 한국-모로코협회 명예고문, 이상흔 대구가톨릭대 석좌교수, 성점화 한국-모로코협회장, 신일희 계명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옥열 회장은 "명예로운 자리를 마련한 계명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명예박사학위는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닌 만큼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저의 삶에 더 큰 감사와 책임감을 느끼고 더욱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했다.

서광호 기자 kozmo@imaeil.com

박언휘 원장 수성경찰서 감사장 받아



대구수성경찰서(서장 오완석)는 지난 10일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박언휘 박언휘종합내과 원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원장은 2015년 3월 수성경찰서와 진료 협약을 맺은 후 현재까지 내원하는 경찰관들의 건강을 세심히 살피고,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강좌를 이어왔다.

박언휘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느라 늘 고생하는 경찰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김윤기 기자 yoonki@imaeil.com

박현수 성주 수륜농협 조합장 경북농협 으뜸 조합장상 수상



박현수 경북 성주군 수륜농협 조합장이 11일 제24회 경북농협 으뜸 조합장상을 수상했다.

경북농협 으뜸 조합장상은 ▷계통 간 상생 발전 ▷농·축협 간 협력 ▷사업추진 우수 ▷농가소득 증대 기여 ▷농업·농촌·농협 발전을 위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최고 명예의 상이다.

박 조합장은 2014년 취임 이후 3선 조합장을 지내면서 상호금융 예수금과 대출금 증대로 수륜농협 경영 개선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동상 2년 연속 수상(2019, 2020년), 고객만족도 우수 사무소 시상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현수 조합장은 "조합원과 고객들의 편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수륜농협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영욱 기자 hello@imaeil.com

권정애 대구 강동중 교사에 녹조근정훈장

대구시교육청 '41회 스승의 날' 포상
국·공·사립 교원 275명에 전수·수여


권정애 교사


이운발 교장


구양숙 원장


권갑순 교장


최윤성 교감

대구시교육청은 13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국·공·사립 교원 275명에 대해 '제41회 스승의 날 기념 포상 전수 및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행사에서 김동호 교육국장은 ▷권정애 강동중 교사에게 녹조근정훈장 ▷이운발 영선초 교장 등 4명에게 대통령 표창 ▷김진현 성서중 교감 등 5명에게 국무총리 표창 ▷배서영 경상유치원 교사 등 265명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한다.

권정애(56) 강동중 교사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수준별 학습모형 개발과 수업 개선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발맞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활동과 학교 진로교육의 창의적인 수업 모형을 개발하는 등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에 앞장선 노력을 인정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운발(57) 영선초 교장은 교수·학습 개선 연구에 매진해 교실 현장의 교수학습지원 활동에 기여했다.

또한, 학교 경영의 모든 교육활동에서 학생을 이해하고, 학생의 삶 중심 배움을 실천하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더불어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고, 민주적이고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구양숙(53) 서동유치원 원장은 근면 성실한 자세로 유아의 꿈과 끼를 계발할 수 있도록 교원 전문성 강화에 앞장서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빠르게 대처해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갑순(60) 달성중 교장은 교실수업 개선 및 현장연구를 통한 인성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며 현장교육에 기여했다. 최윤성(48) 경북대사범대부설초 교감은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와 학생 중심의 수업문화를 구축하는 데 전념해 국제바칼로레아(IB) 초등 프로그램(PYP)의 국제 인증으로 공교육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김동호 교육국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대구가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는 선생님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선생님들의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대구 미래 교육의 희망이다. 학생들이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이뤄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윤정훈 기자 hoony@imaeil.com

'우수 귀어귀촌인' 대상에 포항 박정석 씨 선정

어(漁)울림마을 최우수상 송라 조사리

경상북도는 올해 해양수산부 주관 우수 귀어귀촌인 및 어(漁)울림마을에 박정석(33·포항) 씨와 포항 북구 송라면 조사리마을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 귀어귀촌인과 기존 주민의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매년 우수 귀어귀촌인 및 어(漁)울림마을을 선정 포상하고 있다.

우수 귀어귀촌인 대상에 선정된 박정석 씨는 8년간의 원양어선 항해사를 접고 2017년 고향인 포항에 귀어했다. 이후 연안어업에 종사하면서 방송(생생정보통) 출연과 유튜브 어촌 24시 채널에 출연한 바 있다.

박 씨는 귀어를 희망하는 분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상담을 해준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귀어귀촌인 대상 상금은 100만원이다.

어(漁)울림마을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포항 조사리마을은 귀어귀촌인과 함께하는 향토음식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촌계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귀어귀촌인과 기존 주민이 함께하는 교육 진행과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했다.

또한 어촌계 개방을 위해 어촌계 관리 규약을 개정해 어촌계 가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어(漁)울림마을 최우수상 상금은 300만원이다.

김성학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촌자원을 활용하면 다양한 귀어창업이 가능한 만큼 청년층 등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는 귀어귀촌인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과 어촌마을 주민들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우수 귀어귀촌인에 선정된 박정석 씨. 경북도 제공



운경 遊(유) 챔버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
17일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시니어 실내악단 '운경 遊(유) 챔버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가 17일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린다.

운경 遊(유) 챔버 오케스트라는 대구 중구 시니어클럽(관장 권병현)에서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문화콘텐츠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2021년 8월 25일에 창단됐다.

현재 바이올린 7명, 비올라 2명, 첼로 2명, 콘트라베이스 1명 등 모두 만 60세 이상 시니어 12명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 대구시립교향악단 오케스트라 악장과 단원, 대학 외래교수 등을 지낸 음악적 연륜을 자랑하는 연주자들이다.

이번 창단 연주회에서는 모차르트의 'Divertimento in D.K 136'을 시작으로 관객들의 귀에 친숙한 명곡 중심의 6곡을 연주하며, 지휘 장한업, 바이올린 김한기, 첼로 박진규, 테너 차경훈이 함께한다.

또 특별 출연하는 운경 遊(유) 앙상블(지휘 박영호, 반주 정취정)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보리밭' '아름다운 노래들' 합창으로 더욱 풍성한 연주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실황을 당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할 예정이다. 문의 대구 중구시니어클럽 053)422-1901.

석민 기자 sukmin@imaeil.com

최병영 재경 경산향우회장 왕벗나무 기증
고향 오목천에 3천만원 상당 160주 심어



최병영 재경 경산시향우회장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산 압량읍 오목천에 3천만원 상당의 왕벗나무 160주를 기증했다.

경산시 압량읍은 기증 나무로 지난달 압독생활체육공원과 이어진 오목천 둔치 2㎞가량 구간에 오목천 벚꽃길을 조성했다.

최 회장은 "유년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압량 발전에 이렇게나마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오목천 벚꽃길이 압량 읍민뿐만 아니라 경산 시민 모두가 산책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건강 명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압량면 금구리에서 태어났다. 오랜 기간 서울에서 기업을 경영하며 2011년부터 재경 경산시향우회장을 맡아 경산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13년부터 4년간 초대 명예압량면장을 지냈으며, 장학금과 코로나19 극복 성금 지원 등 각별한 애향심을 갖고 있다.

김진만 기자 factk@imaeil.com

이태용 영주 순복음교회 목사
'입양의 날' 복지부 장관상 수상



경북 영주 휴천동 이태용 순복음교회 목사는 11일 '제17회 입양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5월 11일 입양의 날에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입양 인식 개선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태용 목사 부부는 2005년과 2006년 1남 1녀를 공개 입양해 입양 가족의 삶을 몸소 실천해 왔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동방사회복지회 대구지부 한마음부모회장을 맡아 입양 인식 개선 홍보에 앞장섰다. 또 2007년 대구아동상담소, 평택 동방사회복지타운 등에서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및 상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특히 2021년에는 영주 포럼 좋은사람들, 영주평은초등학교, 영주시 기독교연합회 임원 모임 등을 대상으로 입양에 대한 반(反)편견 입양 교육 홍보를 했다.

현재 영주시 기독교연합회장인 이 목사는 한국입양홍보회 입양 가정 전화상담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반편견 교육과 입양 가족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태용 목사는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 가정들을 격려해 주고 축복해 줘서 감사드린다"며 "입양은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임을 꾸준히 알려 입양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마경대 기자 kdma@imaeil.com

독자 여러분의 사연과 사진을 보내주시면 실어드립니다.
전화 053) 251-1580 팩스 053)255-8902
이메일 saram@imaeil.com

오늘의 운세 5월 13일(음력 4월 13일) 더사주 인스타그램 제공


쥐

▶36년생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 거예요. ▶48년생 화합과 질서 규칙에 맞춰서 활동해야 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띄워 주세요. ▶60년생 무례한 언행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부메랑처럼 내게 다시 돌아온답니다. ▶72년생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생각대로 진행되지만 약간의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84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고민하면서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움직여서 잡아야 해요.


소

▶37년생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조심하세요. 분명한 말인지 꼭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9년생 작고 사소한 일들은 해결 가능합니다. 하지만 큰 일이면 준비를 더 해야 합니다. ▶61년생 지금 힘들다고 중지하고 포기하면 안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미래를 만들어요. ▶73년생 오늘은 조금 힘들 수 있는 날이에요. 넓은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85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예의 있고 밝은 모습으로 다가가세요.


범

▶38년생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집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 보는 건 어떤가요. ▶50년생 몸과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62년생 그동안 준비하고 노력해 왔던 일에 좋은 성과가 있어요. 마무리를 잘해 보세요. ▶74년생 다른 사람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유리해요. ▶86년생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계속 진행하면 이루어져요.


토끼

▶39년생 직감에 따라 실천해도 좋은 하루네요. 자신감과 의욕을 가져 보는 건 어떤가요. ▶51년생 억지로 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기보다 여유를 갖고 지인들에게 연락해 보세요. ▶63년생 지난 간 과거나 인연에 집착하지 마세요.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 출발해도 좋아요. ▶75년생 사람 관계는 상대방 의견도 잘 들어야 되지만 내 의견 또한 분명해야 좋습니다. ▶87년생 대화가 잘 통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성을 만날 수 있으니 단정한 모습을 보이세요.


용

▶40년생 상황이 다소 답답하고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무리하는 것은 삼가세요. ▶52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강하게 밀고 나가세요. 도와주는 지인들도 있으니 아주 좋아요. ▶64년생 좋은 기회처럼 보이지만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움직이는 것은 삼가세요. ▶76년생 새로운 일에 관심이 가지만 호기심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으니 자중해야 해요. ▶88년생 어렵고 부진했던 일이 회복되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옵니다. 용기를 내세요.


뱀

▶41년생 갈 길이 멀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점차 위기를 극복하고 기쁨이 찾아올 거랍니다. ▶53년생 용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막혔던 일이 풀리고 근심이 사라지는 하루가 되겠어요. ▶65년생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지금 힘든 문제는 결국 사라지니 예민해질 필요 없어요. ▶77년생 눈이 녹고 새싹이 솟아나니 희망을 가지고 실천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89년생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처럼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내 일에 집중하세요.


말

▶42년생 자연의 법칙처럼 이치에서 벗어나면 괴로움이 생기게 되니 순리대로 행하세요. ▶54년생 오늘은 변화에 맞춰서 실천해도 좋답니다. 긍정적인 좋은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66년생 주목받으면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겸손함을 갖추면 더욱 빛나게 될 거랍니다. ▶78년생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멀리 움직이는 이동수는 별로 안 좋아요. ▶90년생 좋은 조건을 제시받을 수 있지만 내 욕심보다는 현실적 부분을 파악하세요.


양

▶43년생 다른 사람이나 가족과 관계된 일로 바쁘고 분주할 수 있으니 컨디션을 조절하세요. ▶55년생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열려 있는 안목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67년생 나 자신을 원망하고 탓하지 마세요. 능력은 충분하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79년생 오늘은 신용을 잃으면 좋은 기회도 같이 잃게 되니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 보세요. ▶91년생 나에게 밝은 기운이 들어오는 하루입니다. 의욕 있게 하루를 보내는 게 좋아요.


원숭이

▶44년생 희망이 눈앞에 다가와 있으니 적극적으로 실천할수록 성과도 좋아진답니다. ▶56년생 진행하는 일에 손실이 조금 있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으니 좌절은 금물입니다. ▶68년생 나의 비밀이 들통나서 구설을 겪을 수 있어요. 입을 최대한 무겁게 해야 합니다. ▶80년생 오늘은 경제적인 이득보다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이 재산인 날이랍니다. ▶92년생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말보다는 성실하게 실천하는 게 이득인 날이에요.


닭

▶45년생 발밑을 잘 살펴야 하는 것처럼 사소한 일 때문에 근심이 생기니 꼼꼼해야 해요. ▶57년생 외부적인 경제활동이 다소 주춤합니다. 다음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 보세요. ▶69년생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어서 좋지만 지출 관리를 해야 합니다. ▶81년생 사소한 말이 큰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좋습니다. ▶93년생 수입과 지출의 회전이 빠르게 돌아가는 날이네요. 그래도 지출은 줄여야 해요.


개

▶46년생 오늘은 회복되는 운세입니다. 사람도 돈도 명예도 회복될 수 있으니 좋습니다. ▶58년생 내가 정해 놓은 규칙을 내가 깨트려 망신당할 수 있어요. 방심은 금물이랍니다. ▶70년생 오늘은 불편하고 싫은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네요. 마음을 유연하게 가지세요. ▶82년생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행운이 옵니다. 정중하고 예의 있게 대해 주세요. ▶94년생 오늘은 이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행운이 다시 나에게 올 거예요.


돼지

▶47년생 소리에 민감한 날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답니다. ▶59년생 무리한 투자는 어려움을 가져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지키는 것이 이득입니다. ▶71년생 상황이 다소 답답하고 뜻대로 되지않지만 곧 좋은 기회가 생기고 회복됩니다. ▶83년생 내가 가진 모든 걸 보여주지 말고 상대방 언행과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95년생 작은 생각보다 조금 큰 생각을 가지면 작더라도 노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마피아 게임을 재구성한 추리 서바이벌





SBS '검은 양 게임' 오후 11시 20분

SBS TV '검은 양 게임'이 13일 오후 11시 20분에 방송된다.

대중에게 친숙한 마피아 게임을 재구성한 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게임에 참가한 플레이어들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소수의 검은 양(마피아)과 다수의 흰 양(시민)이 정해진다. 이들은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3박 4일간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 생활하며 각종 능력을 총동원해 나와 다른 '색'의 사람을 찾아내거나 숨어야 한다.

다양한 게임과 미션을 통해 서로의 정체를 추리해 나가는 치열한 심리전에서 우리가 무심코 가졌던 타인에 대한 편견들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은 양 게임' 최종 우승을 차지하는 팀은 상상을 초월하는 상금을 거머쥘 수 있다. 남성 잡지 모델로 유명한 김나정 아나운서, tvN '더 지니어스' 준우승 이력의 사업가 김경훈, '하트시그널'로 이름을 알린 정재호 그리고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의 가수 핫펠트(예은)가 도전한다.

문화부 이신혜 tvbox@imaeil.com

cpbc FM 93.1 MHz 대구가톨릭평화방송
가비야 노올자 오후 2시
每日新聞 뉴스 낮 12시

오늘의 역사

1940년 5월 13일 처칠 영국 총리 취임

처칠은 팔삭둥이 조산아로 태어나 초등학교 때는 교사로부터 제일 멍청한 소년이라는 말을 듣고, 중학교 때는 영어에서 낙제 점수를 받아 3년이나 유급했다. 결국 캠브리지대학이나 옥스퍼드대학에는 입학할 수 없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지만 그는 국왕 아래 영국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처칠은 훗날 명문 옥스퍼드대학의 졸업식 축사를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두 마디로 끝냈다.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estlight@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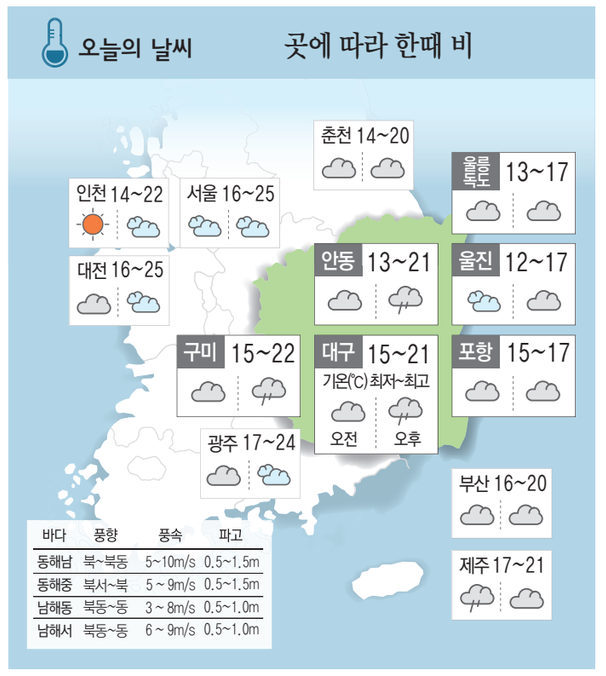
TV 프로그램

• KBS 053)757-7321 • MBC 053)740-9500
• TBC 053)760-2000 • EBS1 1588-1580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TBC/SBS	EBS1
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5:00 굿모닝 대한민국 스페셜(재)	5:00 앙코르 세계 예술 기행	5:00 테마 스페셜(재)	5:00 왕초보 영어 / 30 클래스 e (2)
10 행복충청전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6:00 MBC 뉴스투데이	6:00 모닝와이드 1부	50 한국기행(재)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20 대구 MBC 뉴스투데이	25 모닝와이드 2부	6:10 세계테마기행(재)
7:50 인간극장	7:00 해 볼만한 아침 M&W	50 전국시대	7:10 TBC 굿모닝 뉴스	7:00 엄마 까투리(종합) / 30 뽀로로 동화나라
8:25 아침마당 대구	9:00 KBS 아침 뉴스타임	8:50 일일드라마	40 모닝와이드 3부	45 로보카 폴리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0 갓파더(재)	〈비밀의 집〉(재)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00 딩동댕 유치원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00 인간극장 스페셜	9:30 930 MBC 뉴스	50 좋은 아침	20 블루이 / 50 마샤와 곰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0 지구촌 뉴스	45 기분 좋은 날	9:55 SBS 10 뉴스	9:00 동그리섬의 버네사
20 영상앨범 산(재)	11:00 주말드라마	10:45 탐나는 TV	10:15 TBC뉴스	15 토닥토닥 마음아 / 40 부모 클래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현재는 아름다워〉(재)	11:45 뚝딱구조대2	30 브런치 톡	10:30 한국기행(재) / 50 최고의 요리비결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2:00 12 MBC 뉴스	11:30 고향이 보인다	11:20 세계테마기행(재)
		20 토일드라마	12:00 SBS 12뉴스	12:00 EBS 뉴스 12
		〈지금부터, 쇼타임!〉(재)	25 민방 네트워크 NEWS	10 EBS 초대석
			50 금토드라마〈어게인 마이 라이프〉(재)	1:00 EBS 스페이스 공감(재)
1:00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	1: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50 2시 뉴스 외전	2:00 뉴스브리핑	50 배움이 꽃피는 나무
50 2022 KBS 창작동요대회 수상곡(재)	3:00 KBS 뉴스타임	3:20 꾸러기 식사교실	4:00 화첩기행	2:20 야생의 작은 거인
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또봇V(재)	55 기분 좋은 날(재)	5:00 SBS 오뉴스	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재)
10 쉬어가도 괜찮아 마이크로여행(재)	30 어린이 동물티비(재)	4:55 5 MBC 뉴스	30 TBC대경뉴스광장	3:05 클래스 e (3)
30 밭캐스트(재)	4:00 국민동요 프로젝트 아기상어(재)	5:10 모두의 TV 스페셜	50 네모세모	25 지식채널e(1)(재)
3:00 콘서트 문화창고(재)	5:00 뮤직뱅크			35 세상을 비집고(재)
50 라이브 오늘 스페셜				4:05 영어 스토리 타임
4:00 사사건건				15 페파 피그
5: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 30 라이브 오늘				25 한글용사 아이야(재)
				40 딩동댕 유치원(재)
6:00 6시 내고향	6:30 2TV 생생정보	6:05 테마기행 길	6:50 생방송 굿데이 프라이데이	5:00 EBS 뉴스
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7	7:50 일일드라마	7:05 일일드라마	7:50 SBS 8뉴스	2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40 2022 지방선거 KBS 초청토론	〈사랑의 꽈배기〉	〈비밀의 집〉	8:30 TBC 8뉴스	30 로보카 폴리(재)
	8:30 신상출시 편스토랑	40 MBC 뉴스데스크		45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6: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9: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10:00 슈퍼맨이 돌아왔다	8:50 VR 휴먼다큐	9:00 궁금한 이야기 Y	45 한자로 통(通)하는 삼국지
10:00 시사 직격	11:30 유희열의 스케치북	너를 만났다3-엄마의 꽃밭	10:00 금토드라마	7:00 타타와 쿠마(재)
50 다큐 온	1:00 2022 육상 다이아몬드리그	9:55 금토드라마〈내일〉	〈어게인 마이 라이프〉	20 자이언트 펭TV(재)
11: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1:10 나 혼자 산다	11:20 검은 양 게임	35 자이언트 펭TV
12:10 독립영화관〈우리 이웃의 단편영화〉		1:00 토일드라마	12:55 열린예술무대 뒤란	50 건축탐구-집(재)
1:30 한국의 인류유산(재)		〈지금부터, 쇼타임!〉(재)		8:40 세계테마기행
3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9:30 한국기행 / 50 명의
2:25 숨터 컬렉션(재)				10:4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45 굿모닝 대한민국 스페셜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3:45 아침마당(재)				55 EBS 스페이스 공감
				12:45 금요극장〈쉘위댄스〉

오늘의 날씨

곳에 따라 한때 비



■ 5일간 예보

지역 \ 날짜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영남					
서울					
충청					
강원					
호남					

해 뜸	05:22
해 짐	19:22
달 뜸	16:06
달 짐	03:36

지역	만조	간조
포항	00:58	07:49
	14:39	20:20
부산	06:11	12:10
	18:47	–

· 일기예보 자동응답 131

케이블·위성TV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2-735-6511 • 스카이라이프 1588-3002 • (주)이피지 02)569-5995
※지면관계상 모든 채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스포츠

KBS N 스포츠	MBC 스포츠+	SBS 골프	SBS 스포츠	바둑 TV
10:00 I♥베이스볼	10:00 베이스볼 투나잇	10:30 2022 KLPGA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HL	11:15 2022 KBO리그 KT:KIA	10:0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결정전
13:00 2019 FIFA U-20 월드컵HL	14:00 2022 학산배 전국 장사 씨름대회	12:00 2022 KLPGA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13:50 제24회 전국실업볼링대회	14:0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결정전
15:30 KBO리그 NC:롯데	16:00 다시보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여자배구	15:00 2022 KLPGA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16:30 2022 KBO리그 주간 명승부 BEST	17:3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결정전
18:20 KBO리그 키움:KT	18:30 KBO리그 +NC : SSG	18:00 2022 KLPGA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18:20 2022 KBO리그 두산:삼성	21:00 제6회 글로비스배 세계바둑 U-20
22:00 I♥베이스볼	22:00 베이스볼 투나잇	22:00 2022 보그너 프로vs아마추어 슈퍼 챌린지	22:00 베이스볼S	23:00 YES24배 고교동문전 32강전전
23:00 I♥베이스볼	23:00 베이스볼 투나잇	23:00 2022 KLPGA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23:00 베이스볼S	24:30 명국 Replay 최정:저우홍위

영화·경제

OCN	스크린	씨네프	SBS Biz	한국경제 TV
09:20 프렌즈4	12:15 CSI:MIAMI6	11:40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	11:25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10:30 주식경제
13:40 힘을내요, 미스터리	14:15 상의원	13:50 하트스트링스	13:00 이슈&직설	13:00 나의 투자
15:50 검사외전	16:45 아르고	15:25 에베레스트	15:00 경제현장 오늘	16:00 종목 콕! 톡!
18:20 모리타니안	19:05 빨간머리앤3	17:45 심판	18:55 뉴스 프리즘	18:00 뉴스플러스
21:00 NCSI하와이	22:10 CSI:NY1	19:55 아웃랜더5	21:00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20:00 대박천국 프리미엄
23:10 프리즌	24:00 파이트클럽	22:10 이도공간	23: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1:00 국고처 프라임

드라마·오락

KBS 드라마	MBC 드라마	SBS Plus	tvN	디스커버리
10:30 현재는 아름다워	10:30 라디오스타	11:40 나는 솔로	10:20 어쩌다 사장2	12:10 방구석 1열
14:40 1박 2일	12:10 웃소매 붉은 끝동	13:2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2:20 살인자의 쇼핑목록	15:15 도시어부 3
16:00 무엇이든 물어보살	15:10 웃소매 붉은 끝동	16:40 미운 우리 새끼	15:20 유 퀴즈 온 더 블럭	17:05 아무튼 출근
18:50 붉은 단심	18:10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18:4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7:20 어쩌다 사장2	18:40 고생 끝에 밥이 온다
21:30 차트를 달리는 남자	21:00 놀면 뭐하니?	20:20 판타스틱 패밀리-DNA 싱어	20:40 식스센스3	21:00 방구석 1열
23:50 영화가 좋다	24:00 내일	23:30 나는 솔로	22:40 별똥별	22:15 도시어부3

종편·보도

MBN	TV조선	JTBC	채널A	YTN
11:00 속풀이쇼 동치미	10:30 세계테마기행	10:30 그린마더스클럽 스페셜	10:30 이제 만나러 갑니다 스페셜	10:50 뉴스N이슈
13:40 국대는 국대다 스페셜	13:00 보도본두 핫라인	13:20 유명가수전-배틀어게인 스페셜	12:00 뉴스A LIVE	13:30 더뉴스
15:20 MBN 프레스룸	16:00 국가가 부른다 베스트	15:00 JTBC 이 시각 뉴스룸	14:20 2022 DIMF 뮤지컬스타	15:50 뉴스Q
19:20 MBN 종합뉴스	19:00 건강한 참견	17:40 사건반장	17:20 뉴스 TOP10	17:50 이브닝뉴스
20:30 천기누설	21:00 TV CHOSUN 뉴스9	21:00 유명가수전-배틀어게인	20:00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21:45 뉴스나이트
23:00 고딩엄빠	22:00 우리 이혼했어요2	22:50 쇼다운	23:00 블랙:악마를 보았다	23:50 자정뉴스

어린이·다큐

투니버스	JEI재능TV	챔프	YTN 사이언스	내셔널지오그래픽
11:00 변신기차 로봇트레인S2	11:00 슈퍼다이노	11:00 극장판 붉은 돼지	10:00 핫클립 베스트	11:40 Continent 7: Antarctica
13:00 몽키키드 시즌3	13:00 쉐어TV버라이어티	13:00 가면라이더 세이버	13:00 톡으로 나누는 과학 이야기, 과톡	13:30 Ultimate Airport Dubai 3
16:00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	15:00 가면라이더 이그제이드	15:00 디지몬 어드벤처	15:00 야생 생존의 법칙	16:15 The Hot Zone: Anthrax
19:00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Z	17:30 엉덩이 탐험	16:30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18:00 추적 몬스터	18:05 Big Fix Alaska
21:00 체리툰	20:00 웃짜가족	18:30 신 도라에몽 2	22:00 나는 몸신이다	20:00 Europe From Above
24:00 짱구는 못말려7	23:00 바쿠간 배틀 바쿠기어	22:00 소년탐정 김전일R	24:00 다큐컬렉션 우주	23:00 Big Fix Alaska

종교·해외

cpbc TV	불교BTN TV	CGN TV	BBC World	CNN Int'l
10:00 cpbc 뉴스	10:30 사시불공	11:0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0:00 BBC World News	11:00 Don Lemon Tonight
13:00 신앙과 지식을 키우는 교회사	12:00 광우스님의 소나무 시즌3	13:00 생명의 삶	12:00 BBC World News	13:00 CNN Newsroom
16:00 가톨릭 둘레 특강	15:30 증엄스님의 설화에 담긴 불교이야기	16:20 칩 잉그램의 하나님의 임재	15:45 World Business Report	15:00 CNN Newsroom
19:00 정인준 신부의 성경인물 이야기	18:00 저녁예불	18:10 CGN〈북세미나〉책걸음2	18:00 BBC News	18:00 Early Start
21:00 평화를 위한 기도	21:30 천년의 여행	21:00 더사랑의 교회 주일예배	21:00 Impact with Yalda Hakim	21:00 New Day
22:20 가톨릭 영상교리	23:15 멈춤 그리고 쉼	23:00 맥스 루카르도의 거룩한 가정	23:30 HARDtalk	23:00 Connect the World

교육방송

EBS플러스1				
5:0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물리학 II	11:00 [2022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독해	17: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수학 I	23:40 발전[2023 수능특강] 기하	방송대학 OUN
5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화학 II	12:00 [2023 수능연계완성 4주특강 고난도·신유형] 영어	18: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미적분	24:3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생활과 윤리	9:00 대중영화의 이해
6:4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지구과학 II	5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생명과학 I	19: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기하	1:3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	11:00 이기적인 착한 사람의 탄생
8:2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수학 I	13:40 [2023 수능연계완성 4주특강 고난도·신유형] 수학+확통	20:0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영어독해	2:30 문화유산 코리아	13:00 일본어 기초2
9:1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미적분	14:30 [2023 수능연계완성 4주특강 고난도·신유형] 수학+미적분	21: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40 한 컷의 과학 시즌2	15:00 생명과 환경
10:00 [2022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독해	15:20 [수능의 7대 함정] 수학+미적분	22:00 발전[2023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	50 클래스 e (2)	19:45 미인공감 2
	16:10 [수능의 7대 함정] 수학+확통	50 발전[2023 수능특강] 미적분	3:10 매일 10분 영어	22:00 지역사회교육론
EBS2				
6:00 EBSe 생활영어(재)	10:00 초등1 – 수학	14:00 음악 나리의 앨리스	18:00 슈퍼두퍼 잉글리시	
30 EBSe 생활영어	30 초등2 수학	30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30 오즈, 마법을 찾아서	
7:00 왕초보 영어(재)	11:00 초등1 – 창의체험(2)	15:00 할 수 있다고 2	19:00 형사 가제트	
8:00 Seasame street	30 초등2 – 창의체험(2)	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30 하트가 빛나는 순간	
30 매일 10분 영어	12:00 형사 가제트	16:00 스쿨랜드-과학	20:00 정글 플래닛 / 30 세상을 비집고	
9:00 초등1 – 국어	30 오즈, 마법을 찾아서	20 엉뚱남매 요리조리쇼	21:00 배움이 꽃피는 나무	
30 초등2 – 국어	13:00 방귀대장 뿡뿡이	17:20 즐거운 수학 EBS MATH	3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30 뭐든지 뮤직박스	50 영어 스토리 타임	50 가만히 10분 멍TV	

TBN 대구교통방송 FM 103.9MHz 출발! 대구대행진 오전 7시 每日新聞 뉴스 오후 4시

"밤에도 안심하세요"- 야간진료 병원

소방구급대 ——— 119

대학교병원

- 계명대 동산병원(성서) ——— 1577-6622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서문시장앞) 250-8114
  www.dsmc.or.kr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1688-0077
  www.dcmc.co.kr
- 경북대학교병원 ——— 1666-5114
  www.knuh.kr
- 영남대학교병원 ——— 1522-3114
  www.yumc.ac.kr

종합병원

- 파티마병원 ——— 1688-7770
  fatima.or.kr 동대구역 옆
- 곽병원 ——— 252-2401
  kwakh.co.kr 서성네거리
- 구병원 ——— 560-9114
  gooh.co.kr 지하철2호선 죽전역 4번출구
- 천주성삼병원 ——— 790-0555
  Sungsam21.com 지하철 2호선 신매역 5번 출구
- 대구의료원 ——— 560-7575
  www.daegumc.co.kr
-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 320-2500
  www.tcmcch.co.kr 대구은행칠곡지점 건너
- 경산중앙병원 ——— 715-0119,0129
  www.gsjoongang.com
- 드림종합병원 ——— 640-8575
  www.dreamh.co.kr 지하철 1호선 안지랑역 4번출구

병 원

- 수성메트로병원 ——— 743-7777
  남부정류장네거리 지하철2호선 만촌역

요양병원

-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054-743-6200
  www.kjho.co.kr 동국대→영천, 고경 방향
- 상주연세실버타운 ——— 054-533-1600
  www.syst.or.kr
- 연세한방병원 ——— 054-531-9988
- 연세요양병원 ——— 054-536-5588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필 제090804-중-14127호

심야약국 · 365 연중무휴 약국

■ 심야약국(저녁10시~새벽6시) 768-3679 수성구 황금2동 757-3 대구시약사회관 별관1층

■ 365 연중무휴 약국

- 〈중구〉대하약국 ——— 254-8164
- 〈중구〉한성약국 ——— 425-5575
- 〈동구〉팜프라자약국 ——— 607-2733
- 〈서구〉경명약국 ——— 355-7255
- 〈수성구〉시지광장약국 ——— 792-8297
- 〈북구〉형우당약국 ——— 358-9696
- 〈북구/칠곡〉강북약국 ——— 323-8736
- 〈달서구〉삼일약국 ——— 568-3375
- 〈달서구〉메디칼중앙약국 ——— 586-7900
- 〈달성군〉중앙약국 ——— 615-0007

■ 365 자정약국

- 〈중구〉복음약국 ——— 252-1325

당직 변호사 (13일)박미송 (14일)지은혜 (15일)진광석 053)741-6338 FAX: 053)751-6006


작명전문
아기이름 · 개명
우리나라 대표 이름연구소·40년 전통
정통원제 큰이름
큰이름 ▼
교보문고 옆 미도빌딩 9층 053-241-3456



이진숙의 영국 이야기

영국인다운 말

"영국 문화는 언어 중심 문화이지, 시각 중심 문화는 아니다"라고 했다. "문학 덕에 세계적으로 인정받지만, 미술이나 음악은 영 아니다"고도 했다. 영국인 문화인류학자 케이트 폭스의 말에 나는 셰익스피어와 제인 오스틴이 떠오르며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러고 보니, 패션 감각이 뛰어난 옷 잘 입는 영국인을 본 적이 없다. 영화 속 절제된 대사가 엄청 멋졌던 것도, 마차 타던 시절 여주인공의 편지 쓰는 장면이 그렇게나 많았던 것도 다 수긍이 갔다.

영국인은 감정 표현이 별로 없다

영국인은 감정 표현이 별로 없다. 다른 서양인처럼 잘 껴안지도 않고, 몸짓이나 손짓도 많지 않고, 얼굴 표정도 잘 변하지 않는다. 의사 전달은 말에 의존한다는데 말수도 적다. 그래서 다가가기 어렵고 차갑고 쌀쌀맞게 느껴진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들은 영국인의 멋진 말들이 생각난다. 공항에 가면서 택시를 탄 적이 있다. 도로가 막혀 걱정됐는데 기사도 그랬나 보다.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약간의 무례를 범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의아했다. 내가 눈알을 굴리는 사이, 그가 슬며시 앞차 앞으로 끼어든다. 아니, 끼어드는데도 양해를 구하다니! 몹시 신사다운 느낌이 들면서, 작은 일인데도 입이 크게 벌어졌다.

깊게 파인 푸른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 86세라서 놀랐는데, 지금도 풀타임으로 일한다고 해서 또 놀랐다. 나이 잘 드는 비결을 묻는 내게 "I don't advertise my age"(나이는 광고하지 않는다)면서, "하던 일을 계속하고, 늘 관심을 잃지 말라"고도 한다. 게다가 더 경이로운 나이의 90세 여인은 "몸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라며, '애티튜드'를 강조한다. 툭하면 '나이'를 끄집어내고 '건강'이 제일이란 말만 듣던 나는 그 말들이 마음에 들었다.

화창한 일요일에 공원을 산책했다. 건너편에서 걷던 할머니가 미소 띤 얼굴로 내게 말했다. "Enjoy the small amount of sunshine!"(적은 햇볕이니 즐기라)고. 해가 귀한 영국에서, 낯선 이와는 말을 섞지 않는 영국인이, 처음 본 외국인에게 다가와 알려준다. 적은 것에 만족하고 누리라는 말이 깊고 좋아서 나는 두고두고 잊지 않는다.

때로는 언어가 삶을 안내한다. 나는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영국인은 과장하지 않고 오히려 줄여서 말한다. 자신의 불행이나 고통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춰서 이야기한다. 영화 속 주인공이 희귀병으로 급작스레 온몸이 마비되고 말도 제대로 못 하게 됐다. 놀라서 달려온 아내에게 그가 어렵사리 뱉은 말은 "a bit of bother"(조금 성가신 일)이다.

상대 배려·존중…거절도 솔직하게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고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다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도 속뜻이 들어 있고, 말하지 않아도 속뜻을 알아챈다. 힘든 시간을 풀어내는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이 감탄스럽기도 하다.

친구 스텔라가 원치 않은 전화를 받았다. 상대가 꽤 오랫동안 뭔가를 권하는데도 그는 내내 정중하다. 처음에는 "아주 솔직하게 말해서"라며 사양하더니, 중간에는 "다시 생각해 봐도" 아니라고, 마지막에는 "나중에도 내 마음은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면서 거절한다. 통화가 끝날 때까지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 흐트러짐이 없다. 거절까지도 '우아하고 상냥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거였다.



화창한 일요일에 공원을 산책하던 할머니가 미소 띤 얼굴로 내게 말했다. "Enjoy the small amount of sunshine!"(적은 햇볕이니 즐기라!) 해가 귀한 영국에서, 처음 본 낯선 외국인을 향한 할머니의 말은 잊히지 않았다.

언어가 삶과 직결되어 있고, 언어가 말하는 사람의 면모임을 깨닫게 된다. 말은 생각보다 중요할지도 모른다. 나를 진심으로 기쁘게 한 것이 선물이 아닌 나를 아끼는 말이나 나를 인정하는 말일 수도 있다. 나에게 깊이 상처로 남은 것이 그가 한 행동이 아닌 그가 한 말일 수도 있다. 긴 여운을 남기는 것이 말일 수도 있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봤다. 미국인 수상자가 복받치는 감동과 심심한 감사를 일일이 표현하느라 인사가 길었다. 이어서 영국인 배우 앤서니 홉킨스가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앞에서 이미 다 말했으니, 더 말할 게 있겠느냐?"는 그의 첫마디가 몹시 '영국인다워서' 나는 혼자 웃었다. 문화칼럼니스트

그립습니다

이정희 씨 남편 고 하규시 씨

갑자기 떠난 당신, 하나에서 열까지 멈춰 버린 사실 이제야 깨달았어요…당신 보란 듯이 잘 살겠습니다

당신!

강한 빗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낮에 누렁이란 놈이 자기 밥그릇과 자기 집을 자꾸 도랑에 밀어 넣고 있었습니다. 다시 꺼내 오기도 한두 번이지 자꾸만 도랑에 밀어 넣는 누렁이란 놈이 미워서 밖에 그냥 두었습니다. 밤에 저 많은 비를 맞고 있을 누렁이 생각에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비옷을 챙겨 입고 나가 보았습니다. 누렁이란 놈 냉큼 집 안으로 들어가네요. 다음에 또 그러면 다시는 안 들여보내 줄 거야, 한소리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안방에 당신이 없네요. 항상 그 자리, 그곳에 있을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떠난 당신.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풋풋했던 이십 대에 만나 숱하게 많은 날들을, 기쁨도 슬픔도 함께했지요. 좀 더 살갑게 대해 주지 못하고 잘 챙겨 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요구만 하고 원망만 했네요. 지난날들이 가슴 먹먹하게 후회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남편 고 하규시 씨 회갑 기념으로 중국 여행을 갔을 때 촬영한 이정희 씨 부부. 가족 제공

하나에서 열까지 당신이 해 주지 않으면 모든 게 멈춰 버린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아요. 당신이 떠난 후 하루하루 지나면서 더욱 실감이 납니다. 혼자 할 수 있어, 혼자 해낼 거야, 다짐을 해 보지만 날이 갈수록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겁이 납니다.

혼자서는 힘이 들어도 잘 해 나가야겠지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당신은 칭찬을 잘하잖아요. 남은 인생도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살다가 당신 곁으로 갈게요. 당신이 걱정하셨던 논도 대충 정리했어요. 올해는 혼자 벼농사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뭐든 심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과수원엔 사과 꽃이 한창이에요. 흰 눈이 내린 것 같아요. 얼마나 사과가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날이 밝으면 약을 쳐 주려고 해요. 물 새는 물탱크는 고쳐 놓았고 물 호스도 만해 아재가 밸브를 사 와서 잘 고쳐 놨어요. 혼자서도 차곡차곡 하나하나 잘해 나갈게요. 도와주세요. 당신!

당신 알죠? 내 생활신조는 '순응하며 살자'잖아요. 살아오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잖아요. 그럴 때는 낙담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길 아니면 저 길, 앞길이 아니면 뒷길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잘 헤쳐서 갈 거예요. 당신 없는 빈자리가 너무 크지만 어딘가에서 당신이 미야! 하고 부를 것만 같아요. 안 울려고 다짐을 하고 애를 쓰지만 참기 힘이 들면 애들처럼 울기만 한답니다. 이놈의 눈물샘은 아직 마르지가 않네요.

당신!

이제 울지 않고 잘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길을 나 혼자 가게 한 당신을 가끔 원망도 하면서 당신 보란 듯이 잘 살아가겠습니다. 잘해낼 거니까 다음에 만나면 칭찬해 주세요. 미야, 잘했다 장하다 하고요. 밉지만 정말 사랑했던 당신. 그동안 정말,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고달팠던 일 다 잊고 편히 쉬세요.

당신의 아내 이정희 드림

'그립습니다' 사연 이렇게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매일신문이 함께 나눕니다.

- **분량**: 200자 원고지 8매, 고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 1~2장
- **문의 전화**: 053-251-1580
- **사연 신청 방법**
  http://a.imaeil.com/ev3/Thememory/longletter.html 혹은 매일신문 홈페이지 '매일신문 추모관' 배너 클릭 후 '추모관 신청서' 링크 클릭
  이메일 missyou@imaeil.com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매일신문 그립습니다' 검색 후 사연 올림



LINC 3.0사업과 대구경북 대학

기 고



민 정 식
경운대
산학협력단장

올해 대학가의 최대 화제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사업) 선정이었다. 기술혁신선도형 대학은 6년간 330억 원, 수요맞춤성장형 대학은 6년간 240억 원, 협력기반구축형 대학은 6년간 120억 원을 받는 사업이다. 대구경북에서는 ▷기술혁신선도형에 경북대 ▷수요맞춤성장형에는 경운대, 경일대, 계명대, 금오공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안동대, 영남대, 한동대 ▷협력기반구축형에는 위덕대가 선정됐다.

눈여겨볼 부분은 수요맞춤성장형 대학 분야이다. 수요맞춤성장형은 권역별로 나눠 권역별 10개 대학을 선정하는데, 대구경북은 강원도와 함께 권역이 분류돼 이 속에서 경쟁을 펼친다. 대경강원권에서는 이번에 16개 대학이 수요맞춤성장형에 지원했다. 1.6의 경쟁률이었던 것. 결과는 대구경북권 9개 대학이 무더기로 선정됐다.

최종 선정 전에 1차 선정 과정이 있었다. 5개 권역별로 10개씩 선정하기로 하고, 1차에 8개를 선정한다. 여기에서 대경강원권에서는 경운대, 경일대, 계명대, 금오공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안동대, 한림대 등 8곳이 선정됐다. 8개 대학 중 한림대를 제외한 7개 대학이 대구경북 대학이었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는지를 잘 보여준다. 실제로 지역 대학들은 산학협력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여주었다. 기존 LINC+ 수행 대학인 경운대, 경일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안동대, 영남대 등 7개 대학은 각 대학의 특화 분야에서 '키맨' 역할을 해냈다. 마침 각 대학의 특화 분야는 거의 겹치는 부분이 없었다.

▷경운대는 항공 및 지능형 드론 ▷경일대는 미래형 자동차부품 및 융복합 콘텐츠 ▷계명대는 의료기기 및 스마트 제조 ▷대구한의대는 코스메디컬 바이오 ▷안동대는 농생명바이오·백신 및 지역 소멸 대응 ▷영남대는 미래형 자동차 및 미래에너지 ▷대구대는 다문화 자산 활용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이 각각의 특화 분야였다.

이들 대학은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공동으로 산업 현장과 지역사회에 스며들어 기술지도, 기술개발, 재직자 교육, 지역사회 공헌 등의 활동을 해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대학과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서 선도적인 협력 활동을 폈다. 대학 내에서도 LINC사업단들은 기업 전문가와 공동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진행하는 산학협력교육, 창업교육, 취업연계 현장실습, 4차산업 관련 특화 교육 등을 진행하며 정규 교과과정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을 맡아 학생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LINC 3.0 사업 선정 결과는 지역 대학들이 이러한 활동을 얼마나 뛰어나게 수행했는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상 사회가 대학의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준 LINC사업은 하마터면 이번에 사라질 뻔했다. RIS사업 등 국가적 인재 양성이라는 대형 사업에 예산이 몰려 사업 자체를 계획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정책 입안자가 보기에는 파급력이 약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는 LINC사업은 대학이 가장 대학답게 사업을 펼 수 있고, 실효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대구경북의 정책 입안자들도 LINC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과의 산학연관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대학들은 이 부분에서 남다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실뜨기하던 소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춘추칼럼



장석주
시인

나라는 선진국 대열 들어섰지만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 골 깊어져

생산 강제·성과 강제 포박된 사회
우리 삶은 얼마나 더 행복해졌을까

내가 어렸을 때 시골 누이들은 실뜨기 놀이를 즐겨 했다. 실이나 노끈의 양쪽 끝을 연결한 실테를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번갈아가면서 손가락으로 걸어 떠서 여러 모양으로 변형시키는 이 놀이는 심심함을 잊기에 좋았다. 누가 실뜨기 놀이를 고안해냈는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이들은 그 즐거움에 빠져 보냈다. 간혹 어른들의 꾸지람도 없지 않았지만 누이들은 한나절을 찐 고구마를 먹고 까르륵거리며 실뜨기 놀이에 열중했다.

실뜨기 놀이는 나바호족, 에스키모, 오스트레일리아나 뉴기니 원주민이 만든 놀이 중 하나라고 한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인류학 교수인 A. C. 해던(1855~1940)은 뉴기니 섬이나 보르네오 섬 등지에서 줄을 갖고 갖가지 동물 모양을 만드는 놀이를 한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그의 딸 캐슬린 해던 리시베스(1888~1961)도 이 인류학적 놀이를 연구하면서 태평양 섬의 원주민들을 만난다. 원주민들과 말은 달라도 서로 같은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을 때 흥분과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 놀이는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해 필리핀, 보르네오 등지에서도 성행했다. 실뜨기 놀이는 유럽에도 전해졌지만 문명국가에서는 그 맥이 이어지지 못한 채 끊겼다.

1960년대 한국 농민들은 가난으로 허덕였다. 어른들이 오늘의 버거운 삶과 암담한 내일에 진절머리를 칠 때도 누이들은 실뜨기 놀이를 즐겼다. 어느 사이에 동백이나 모란보다 더 화사한 누이들이 제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우리의 형과 삼촌들이 '청룡부대'나 '백호부대'에 뽑혀 베트남에 파병되고, 누이들은 구로공단에서 가발이나 인형을 만들거나 '금성사 라디오'나 '대한전선 텔레비전' 부품 조립 라인에서 일했다.

구로공단과 달동네가 있던 시절, 우리는 채변 봉투를 갖고 등교하고, 교실에서는 '국민교육헌장'을 달달 외웠다.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나훈아의 '고향역', 남진의 '님과 함께' 같은 대중가요가 대유행을 했다. 공단 쪽방에 살던 누이들은 낮엔 '산업 역군'으로 일하고, 밤엔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를 다녔다. 산업화 시대와 계엄과 위수령의 시대를 지나 서울올림픽이 열렸다. 어느덧 구로공단이 디지털 산업단지로 바뀌고, 나라 살림 규모는 예전과 견줘 몇 백 배나 더 커졌다.

지금 우리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들어서며 생산 강제와 성과 강제에 포박된 채로 각자는 고립 속에서 자기 생산에 몰두한다.

재벌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전통시장은 거대 쇼핑몰로 탈바꿈하며, 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의 골은 깊어졌다.

가난은 고착되고, 현실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공장형 양계장에서 닭들이 24시간 알을 낳는 동안 젊은이들은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사라진 사회에 절망하며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을 외친다.

돌이켜보면 누이들과 실뜨기를 하던 시절은 좋은 시절이었다. 그 한가롭고 즐거웠던 시절은 너무 빨리 지나갔다. 공장에서 가발이나 만들던 누이들은 이젠 할머니가 되었다. 시골에 실뜨기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없다. 그저 빈집을 지키며 허공을 향해 짖는 개와 경로당을 찾는 노인 몇몇만 남았을 뿐이다.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그치고, 마을 공동체가 소멸하는 동안 삶의 질은 얼마나 더 높아졌고,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해졌을까.

누이들이 그 특유의 화사함과 명랑함을 잊은 채 노동 현장에서 '여공'으로 산 세월은 '유효한 역사'일 텐데, 우리는 그 '유효한 역사'를 기억에서 밀어내느라 분주하다. 그 망각은 더 높은 윤리 지표 위에 삶을 세우는 일의 태만에서 나타나는 삶의 실패이자 유죄의 증거일 테다.

우리가 놀이 능력을 잃고, 삶의 방향성도 잃은 채 갈팡질팡하며 나아가는 사이 실뜨기하던 소녀들은 다 사라졌다. 그 소녀들 중 하나라도 어렵게 생계를 잇다가 고독사를 맞는다면, 이 불행의 책임은 마땅히 우리의 몫이라야 한다.

每日 희평 김경수



관풍루 觀風樓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성 비위 사건으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 관련 "더 큰 성 비위 제보도 받았다. 어쩌다 우리 당이 이 정도 됐나. 민망하다"고 비판. '피해호소인'이란 말이 자당 여성 의원 입에서 나올 때 예상된 바.

○…윤석열 정부 들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도발'로 표현. '미사일'을 '발사체'로, '도발'을 '위협'이라 했던 지난 5년간 '홍길동'으로 살았던 우리 軍(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한 단체가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해 틀어 애먼 주민들이 고생. 경찰 "집시법이 정한 심야 소음 기준(55㏈) 아래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每日新聞 The Maeil Shinmun | 땀과 사랑으로 겨레의 빛이 되리 | 매일신문 www.imaeil.com

발행인·인쇄인 정창룡 편집인 이동관 논설실장 김해용 뉴스국장 김교영

대표전화 053)255-5001
대표팩스 053)255-8902
광고 신청·안내 080-711-2001
구독·배달 안내 080-711-2002

본사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계산동2가 71) 우)41933
경북본사 054)855-1700 경북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3 NK프라자 3층 우)36759
동부지역본부 054)276-0001
서부지역본부 054)453-3333
서울지사 02)733-0755

구독료 한달 15,000원 1부 800원
1946년 3월 1일 창간 1960년 7월 1일 등록 가-29호(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새는 집 방수 한번 시공으로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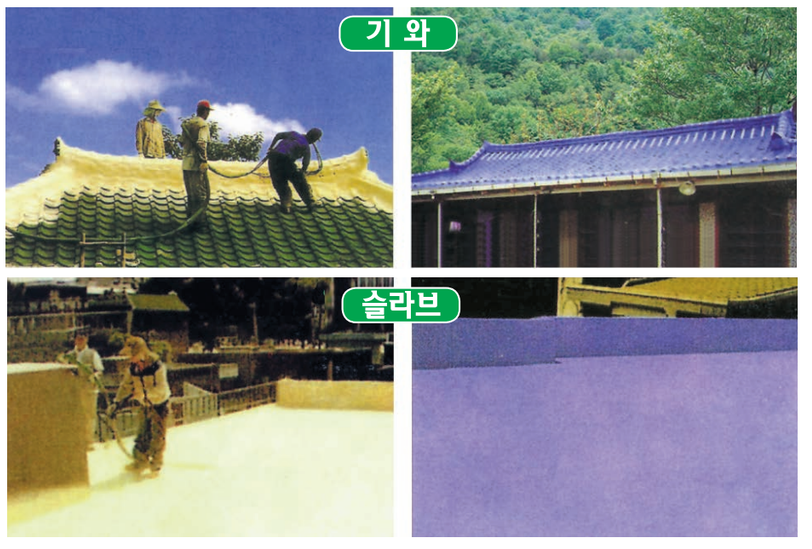
우레탄 방수·단열 전문 시공업체·하자 보증보험 100%

기 와 → 우레탄 폼 + TOP코팅
스레트·공장판넬 → 우레탄 폼 + TOP코팅
옥상 스라브 → 우레탄 폼 + 하이브래드 + TOP코팅

방수1팀	방수2팀	방수3팀
우레탄 폼	도막방수	외벽도색
단열방수팀	시트방수	외벽방수

한번 시공으로 방수에서 단열까지 반영구적. 어디든지 무료출장 견적 상담 해드립니다.

▼시공 중인 모습 ▼시공 후



(주)한일우레탄·한일주택
053)568-0600
010-3202-4848
FAX)755-5543
NAVER, DAUM 우레탄 방수 검색 http://www.hanilure.co.kr

‘시민 향한’ 대구시향 하모니 울려 퍼지길

청라언덕



김도훈
문화체육부 차장

“대구시립교향악단(이하 대구시향) 기량이 너무 떨어졌다.”

10년 만에 다시 음악을 맡게 되면서, 4개월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다. “이젠 관심 없다. 긴장감도 없고 지루하다”며 대구시향을 마음에서 떠나보낸 애호가도 있었다.

이전과 비교할 때, 내부 질서가 흐트러져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였다. 감독의 영향력은 줄어든 반면, 단원의 목소리는 강해졌다. 이렇다 보니 ‘연습을 제대로 안 한다’ ‘코바체프(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는 기량 향상엔 관심이 없다’ 등의 얘기도 꾸준히 나온다.

최근엔 잇따른 공연 불참으로 구설에 올랐다. 대구시향은 올해 교향악축제 초청을 받지 못했는데, 지난해 불참한 게 원인이었다. 당시 시향은 전국의 교향악단이 모이는 이 무대에서 개막 공연을 맡을 예정이었으나 공연 3주쯤 전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최근엔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일환으로 광주 공연 제안을 받았는데 이 또한 불참하기로 했다. 몇몇 이유가 있었지만, ‘1인 30만 원’의 공연 수당으론 부족하다며 추가 수당을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해 국립합창단이 받은 수당은 1인 30만 원,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는 1인 26만 원이었다.

이렇다 보니 대구시향이 공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 이면엔 시향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 단원의 평균 연령은 50세 정도. 30세 전후 젊은 단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해도 스승뻘인 고참 단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단원 의사결정 때도 마찬가지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말도 나온다. 너무 많이 무너져 지금의 형태로는 변화가 불가능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대중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재단법인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단이 되면 장점도 많지만, 고용승계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누군가는 청춘을 바친 직장을 잃어야 할지도 모른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술단체가 본연의 임무인 공연을 회피하는 건 큰 문제다. 대구시향 연간 운영비는 대략 60억 원 규모. 단원은 90명 정도로, 운영비의 90%쯤이 인건비로 쓰인다.

대구시향이 연간 20회 무대에 오른다고 가정하면, 1회 공연에 드는 비용은 3억 원이다. 지난달 대구서 공연한 프랑스 메츠 국립오케스트라(80여 명)가 받은 개런티는 2억 원이 채 안 된다. 7월 공연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120여 명) 개런티는 2억 원을 조금 넘는다. 대구시향 운영비가 적은 돈이 아니란 얘기다.

예술이 돈으로 환산 못 할 수많은 가치가 있다는 말에 백퍼센트 공감한다. 그렇다면 단원들도 직장으로서 처우 개선만 요구할 게 아니라, 자신이 소속한 예술단의 ‘공익적 가치’에도 주목했으면 한다.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를 대표하는 대구시향이 시민에게 외면받는 계륵이 돼서야 되겠는가.

누군가 얘기했다. 코바체프가 갓 부임한 2014년 시향 연주가 가장 좋았다고. 엄격하고 까다로웠던 곽승 전 지휘자가 특유의 카리스마로 단원 기량을 한껏 끌어올려 놓은 상태에서, 코바체프가 부임해 주눅 들지 않고 연주를 즐겼을 테니 그럴 법도 하다.

바꿔 말하면 단원 역량은 충분하다는 말도 된다. 단원들이 지휘자와 뜻을 모아, 다시 시민을 향한 하모니를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 1년 이상 예술감독과 단원 간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대구시립합창단에도 해당되는 얘기다.

야고부 野鼓賦

부울경이 부러운 대구경북

대구경북 입장에서는 부산·울산·경남이 한없이 부럽게 됐다. 부울경에 기쁜 뉴스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13조7천억 원이 들어가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이 확정됐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됐다. 국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통합신공항을 만들고 있는 대구경북은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는 부울경이 부럽기 짝이 없다.

국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이 출범한 것도 부울경엔 낭보(朗報)다. 세계적 메가시티(megacity)를 꿈꾸는 부울경특별연합의 목표는 원대하다. 2040년까지 현재 790만 명인 인구를 1천만 명으로, 275조 원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491조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인구 500만 명이 무너진 대구경북으로서는 지금보다 인구가 200만 명 이상 늘어날 부울경이 부러울 뿐이다. 대구경북은 지역내총생산이 160조 원에 불과하다. 2040년에 부울경의 GRDP는 대구경북의 세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에 부울경은 당차게 도전장을 던졌다. 지방의 담대한 반란이라 할 만하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이 유야무야된 대구경북으로서는 부울경메가시티 출범이 부러울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 이어 부울경이 제2의 블랙홀이 돼 대구경북을 빨아들일까 걱정이 앞선다. 30년에 걸친 노력에다 소속 정당이 다른 광역단체장들이 힘을 합쳐 성과를 낸 것도 대구경북으로서는 경탄할 일이다.

부울경을 바라보며 추락하는 대구경북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부산·경남 반대로 위천국가공단 설립이 무산돼 발전이 좌초됐던 대구경북은 속이 쓰리다.

6·1 지방선거에서 이변이 없다면 홍준표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 체제가 들어설 것이 유력하다. 불협화음을 보였던 두 사람이 동반 당선될 경우 어떤 관계를 보여줄지 궁금하면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협치해야 한다는 주문이 벌써 나온다. 서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커버해 시너지 효과를 내길 바랄 뿐이다. 두 사람이 선거 후 해야 할 일은 논공행상(論功行賞)이 아니다. 부울경메가시티처럼 대구경북을 아우르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대현 논설위원 sky@imaeil.com

사 설 社說

이젠 정부 예산 편성권도 틀어쥐려는 민주당의 검은 속셈

머릿수 우위를 무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끝이 없다. 이젠 정부 예산 편성권까지 탐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야당이 된 지 하루 만인 11일 “국회에 무슨 예산 심사권이 있느냐. 국회는 완전히 들러리를 서고 있다”며 “향후 헌법 개정은 물론 국회법 개정 또는 관행적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더 분명하게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내표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회는 예산 심사의 들러리가 아니다. 헌법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지난 5년 내내 해온 예산 심사는 무엇이란 말인가.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는 소리는 더욱 어불성설이다. 민원성 ‘쪽지’ 예산이 극성을 부리면서 정부의 재정 운영은 파탄 날 게 뻔하다. 여당이던 지난 5년 동안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가져야 한다는 소리는 한 번도 없었다. 그래 놓고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예산 편성권을 틀어쥐고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을 일일이 간섭하며 어깃장을 놓겠다는 것 아니면 달리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뿐만 아니다. 앞으로 검찰의 기능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 한다. 중수청장 후보 추천 위원 7명 중 다수 의석 정당 추천 몫을 늘려 자신들 입맛에 맞는 인사가 중수청장이 되도록 하고, 중수청의 소속도 법무부가 아닌 독립기관으로 한다는 구상이다. 중수청을 윤석열 정부에 못 주겠다는 것이다.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고수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법사위원장은 여당 견제를 위해 2004년 17대 국회 때부터 야당이 맡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2020년 4·15 총선에서 압승하자 법사위를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겠다고 합의했다. 그래 놓고 이제 야당이 됐으니 법사위원장을 못 주겠다고 한다.

김부겸 총리 정치 은퇴 선언, 한국 현실 정치 암담함의 증거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작년 5월 14일 취임)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퇴임했다. 김 총리는 이임식에서 총리 퇴임뿐만 아니라 정치 은퇴를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경북 출신으로 경기도 군포와 대구 수성구갑에서 국회의원을, 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그는 이임사에서 “정치인, 공직자의 삶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당연하고 엄중한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달 초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치 은퇴’ 이유에 대해 “정치를 하자면 한 진영에 속해야 하고 우리 진영에서 박수를 받으려면 상대편을 가차 없이 욕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영 내에 설 자리가 없다. 그러려면 나의 가치(신념)를 버려야 한다. 지금 정치를 더 하려면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나쁘다고 해야 한다. 이런 정치를 계속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12일 “온몸을 바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우리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들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의 ‘은퇴의 변’은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적나라하게 짚고 있다. 상대편에게 험한 말을 쏟아낼수록 자기 진영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자기편을 무식하게 옹호할수록 팬덤이 늘어난다. 합리와 논리, 지성과 과학, 공화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인과 맹목적 지지자들이 주거니 받거니 국민과 국가를 타락의 길로 몰아가는 것이다. 정치가 나라와 국민을 돕기는커녕 망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김 전 총리는 1958년생, 만 64세로 은퇴하기에는 젊다. 그럼에도 그는 은퇴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암담한 현실을 지적하고, 변화를 역설(力說)했다. 김 전 총리가 역설한 한국 정치의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은 지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야 한다. 김 전 총리가 지적한 문제들이 하루속히 옛 이야기로 묻히기를, 협력과 타협, 상식과 사실이 한국 정치의 주인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역 대학 살려야 인구 유출 막을 수 있다

대구경북 총인구가 500만 명 선이 붕괴된 데 이어 최근 10년 사이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 신입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신입생이 감소하면 지역 대학은 존폐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지역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대책 마련이 급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 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대학의 입학생 수는 10년 전보다 8.2% 감소했다. 울산은 10년 만에 신입생이 17.9% 줄었고, 다음으로 경남(-16.6%)과 전남(-16.4%), 경북(-15.6%) 등의 순이었다. 특히 대구(-8.5%)는 특별·광역시 7곳 중 울산과 부산(-11.3%) 다음으로 신입생 감소 폭이 컸다. 수도권인 서울(0.9%)과 인천(1.8%)은 오히려 신입생이 늘었다. 이는 대구경북의 신입생들이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 집중 현상의 심화에 따라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는 말을 뒷받침하는 수치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동은 2단계로 이뤄진다. 대학 진학 단계에서 1차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구직 단계에서 2차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과 직업 등의 이유로 지역을 떠난 청년들의 귀환율은 매우 낮으며, 청년 유출은 지역 활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다.

지역 인구 유출을 막는 ‘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을 살려야 한다. 지역 대학은 지역사회 혁신을 리드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역 대학의 존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지역 대학에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역 단체장들도 지역 대학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지역 대학들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한다. ‘댐’이 무너져 지역의 근간이 흔들리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

2022 어린이사랑 다자녀가족
사진&UCC 공모전
총상금 : 1,500만원
5/15일까지



주제(택1)
– 사랑스러운 어린이
– 행복이 가득 담긴 다자녀 가족
– 결혼, 출산, 가족의 소중함
접수마감 : ~5월 15일(일) 23:59까지
출품자격 : 개인 또는 팀(4인 이하)으로 누구나(내·외국인 제한 없음)
출품방법
매일신문 앱 또는 홈페이지(imaeil.com) ☞ ‘사진·UCC공모전’ 배너 클릭 ☞ 접수
• 표현 : 자유(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등), 미발표작
• 출품수 : 1인(팀) 4점(편) 이내 / 출품료 없음, 사진 및 UCC 복수 출품 가능
• 출품부문
– 사진 : 1MB(1,042KB) 이상, jpg파일로 접수
– UCC(광고, 패러디 등 자유영상)
규격 : 30~90초 이내, 해상도 1280×720 pixel 권장, 100MB 이내
파일형태 : mp4, wmv, avi, mov 등 영상 파일
• 유의사항
– 입상작으로 선정될 경우 고화질 원본 영상과 썸네일(JPG) 별도 제출
– 동영상 시작 화면에 작품제목과 팀(개인)명 표기
– 끝 화면에 BGM 제목 등 출처 반드시 명기
※ 제작에 사용된 음악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음원이어야 하며, 출품작의 저작권, 초상권,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음악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or.kr)에 문의
시상내역

구 분		시상내역
대 상	1점(편)	상패 및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사진 1점	상패 및 상금 200만원
	UCC 1편	상패 및 상금 200만원
우 수 상	3점(편)	각 상패 및 상금 100만원
장 려 상	10점(편)	각 상장 및 상금 20만원
입 선	30점(편)	각 상장 및 상금 10만원

※ 5월 말 ~ 6월 초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후보작을 공지하며, 발표 후 2주간의 표절 검증 기간을 거쳐 수상작 최종 결정
※ 입선 이상 수상자에게는 희망자에 한해 매일사진동우회 입회 자격 부여
시상식 : 7월 2일(토) 오후 3시, 대백프라자갤러리 A관(12층)
수상작 전시
– 1차 : 6. 28(화)~7. 3(일), 대백프라자갤러리 A관(12층)
– 2차 : 9. 2(금)~3(토), ‘여성up엑스포’ 특설갤러리존(엑스코 1층)
– 사이버전시 : 6. 13(월)~, 매일신문 홈페이지 ☞ 포토갤러리
문의 : 053)251-1416
유의사항
– 작품 제출은 아래 사항들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공모전 진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 심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2차 수정) 안에서 작품 전체 또는 일부를 변경, 복제 및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
• 입상작은 발표일로부터 3년 동안 별도의 통지 없이 주최측(대구광역시, 매일신문)에서 진행하는 공익적 사업에 활용(공익 목적을 위한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 작성 및 이용권 포함)
– 이미 발표된 작품이거나 표절·합성·조작 등을 비롯한 출품작의 저작권, 초상권,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가 밝혀질 경우 전체 심사과정 제외와 수상 취소는 물론, 시상식 이후라도 상금 및 상패는 환수 조치됨
– 입상자로 선정된 경우, 수상작 발표와 상금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제출규격에 맞는 파일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상자는 시상식에 참여하여야 함
– 공모요강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들은 공모전의 일반 관례에 준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최 대구광역시 每日新聞
협찬 NH농협 대구도시공사 금복문화재단 DEBEC

심의필 제190206-중-88465호 www.pain-goodbye.com

힘내라 대구경북!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수술 척추 관절 치료
죽곡연합마취통증의학과의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함께 하는 **죽곡연합마취통증의학과**는
근골격계 초음파 검사와 **척추 내시경**을 기반으로 하는
비수술 척추 관절 중점진료합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어깨, 무릎 관절치료는 죽곡연합마취통증의학과



대표원장·통증의학과
전문의 **류한구**

- 척추내시경 유착박리술
- 프롤로(인대증식요법)
- 체외충격파(ESWT)
-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절제술
- 고주파 수핵감압술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고주파 열응고술(RF)
- 경피적 추간공 확장술
- FIMS / 도수치료
- 근골격계 초음파
- 풍선확장기능을 포함한 경막외강내 유착부위 박리시술

진료예약 및 상담
053.**584.7504** / **010.7469.7502**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77
MB PLAZA 2층 (대구지하철 2호선 대실역 1번출구)

죽곡연합마취통증의학과의원

TALK 카카오톡 상담
@ 죽곡연합마취통증의학과